



11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11호

(루게 421)



◆◆◆◆◆◆◆◆◆◆

## 차 례

◆◆◆◆◆◆◆◆◆◆

기념사진 .....	4
찬란한 태양 .....	5
백두산의 새벽 .....	6
완월루에 오르시여 .....	7
백두산의 눈보라 .....	8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은하수》에 대하여 .....	9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신념의 노래 .....	15
다시 걷는 길 .....	19
삼지연의 붓나무 .....	27
검덕이여 우리 가는 길은 .....	27
나의 기쁨 .....	29
번영하라 나의 해변도시여 .....	30
가꾸는 마음 .....	33
심장에 높뛰는 초침소리 .....	43
용해장의 새벽 .....	44
물농사 바다농사 .....	45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가자 .....	45
한그루 소나무 .....	46
땅밑에 남기는 자국 더 많아서 .....	47
높은 곳 .....	48

인민의 락원 대성산 .....	53
나서 자란곳 .....	60
내 마음 .....	67
삶의 노래 .....	68
나의 총 .....	69
젊은날의 한순간을 .....	70
뜨거운 심장으로 .....	71
《근거지의 봄》의 언어형상 .....	73
탄부의 인사 .....	77
형상수준과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 .....	77

# 기념사진

박래설

그날은  
노을이 류달리 곱던 날

둥그런 해는 서쪽하늘가에서 웃고  
한껏 자란 강냉이쭈이  
와스스-있을 모아 설레이는데  
그 끝은 어디메인지...

머나먼 현지도의 길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골정경을 바라보시던  
아버이수령님  
차를 멈추시고 발머리에 나서시었네

산기슭에서 골짜기따라 아득히 펼쳐진  
강냉이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네  
《이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에도  
훌륭한 주인이 있군...》

때마침 발을 돌아보려  
산비탈을 내리던 처녀  
우뚱 멎어섰네  
(...누구실가?  
정말 원수님이 아니실가...)  
처녀는 멀리서도 알아보았네  
그리고 한달음에 달려가 안겼네  
아버이 그 품에

처녀는 아버지 넓으신 품에 얼굴 묻고  
어린애마냥 작은 어깨를 들먹이는데  
어떻게 이처럼 강냉이를 잘 가꾸었는가  
어서 말해보라 말씀하시는  
아버이수령님

처녀는 대답올렸네  
봄내 정성으로 심은 씨앗 더디게 자라  
몹시도 애타던 이야기  
굵은 비방울 조금만 뿌려도 솜뭉뎠어  
발머리에서 밤 밝히던 이야기  
지나온 날에 있는 가지가지 일

기쁨절반 설음절반으로 이야기 할제

《그래서 울었던말이지...  
장하오! 어린 처녀가 참 장하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  
너무도 대견하시여 마음 기쁘시여  
수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네  
《오늘 이 좋은날에 우리  
일 잘하는 처녀분조장을 만난  
기념이나 남기지요.》

처녀는 귀를 의심했네  
흠뻑은 옷자락만 매만지며  
어쩔줄 모르는데  
《일없소 나는 동무의  
그 흠뻑은 옷차림 그대로가 더 좋소.》  
하시며 환히 웃으시는 원수님

해는 산마루에 기울고  
하늘가득 노을은 불타는데  
아버이수령님 떠나시며 말씀하셨네

《내 기념으로 이 사진을 가져가겠소  
좋은 기념이 될거요.》

그러자 온 한해 처녀와 함께 자란  
강냉이쭈이  
일시에 키돋움하며 좌-설레이었네  
서산마루의 붉은 해도 눈을 습벅이고  
골짜기에 오가던 바람도 정겹게  
속삭이었네  
-처녀야 이런 날에사 실컷 울어도  
좋으리...  
네 소원 이루어진 오늘에사 발머리에서  
운들 탓하리...

.....

해와 달이 가고 다시 가도  
처녀는 오늘도 여기 발머리에 나오네  
강냉이쭈 설레는 소리 듣고싶어서...  
노을이 곱던 그날처럼  
아버이수령님 다시 이 길로 오실것만 같아서...

# 찬란한 태양

알리 무스라파 모함메드

설레이는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억만 사람들의 마음  
붉은 노을 피어오르고  
새들도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조선으로 달립니다  
가슴마다 향기 그윽한 꽃뭉음을 안고  
영광의 2월의 명절아침에  
당신을 우러러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백두의 푸른 기상 한몸에 안으시고  
인류의 리상을 꽃피워나가는분  
력사의 운명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신 향도의 별  
아, 그 별은 영명하신 지도자 **김정일**동지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어  
광복의 총포소리 자장으로 들으시였고  
백두산하 천리를 굽어보시며  
첫걸음을 옮기신 그날로부터  
당신께서 걸으신 영광의 길 그 얼마이십니까

당신께서 새 조선 건설의 언덕길을 넘으시였고  
준엄한 전쟁의 포성을 들으시였고  
복구와 건설의 마치소리 높은곳에  
당신은 인민과 함께 계시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대를 이으신  
유일한 후계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리시었습니다

격동과 환희에 넘쳐 세계는 말합니다  
백두산의 장수별 빛나던 조선에  
위대한 향도의 별 찬란히 솟아

조선은 해와 별 빛나는 나라  
조선에 대통령이 났다고

이 시대 이 력사우에  
찬연히 솟아 빛나는 별이신  
영명하신 **김정일**동지  
아 당신은  
사상과 리론의 천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  
예술의 대가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한순간에 천리를 달리고  
하루에 십년 백년을 주름잡아나아가나니  
세계는 경탄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선은 기적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당신은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고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향도자  
인민들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당신께  
영원히 맡기고있나니  
정녕 당신은 인민의 진정한 지도자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일찌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위하여  
크나큰 사랑과 위대한 창조로  
행복의 락원을 꽃피우시나니  
불멸의 그 업적 그 위훈  
영광으로 천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향도의 별  
인류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명하신 지도자동지의 존함은  
영생불멸의 금문자로 빛날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봄을 안아오는  
영광의 2월의 새아침을 맞으며  
**김일성** 주의위업의 전세계사적승리를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필자 예멘 다마르도병원 직원임)

## 백두산의 새별

무함마드 쌀림  
아직 한번도 가본적 없건만  
우리모두 잘 알고있노라  
조선의 새별 솟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조선혁명이 높은 령마루에서 무르익던  
새봄

봄우뢰가 하늘가에서 에돌던 2월  
백두령봉에 솟아오르신 새별  
아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하고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펼치신  
주체의 해발을 받아안으시고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님께서  
수령님께 바치신 그 충성 받아안으시고  
백두산 천지우에 솟아오르신 새별  
아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 새별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 안고  
위대한 **김일성** 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하시여  
현시대에 라침관왕 주시고  
투쟁의 전략을 주시였네  
아 그 이름 찬란하여라 백두산의 새별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백두산의 장수별 빛나던 조선의 하늘에  
위대한 향도의 새별 높이 솟아  
온 세계를 그늘진곳 없이 밝게 비쳐주네  
썩바르산줄기의 높은 봉우리도  
사하라사막의 열풍도  
몸부림치는 홍해의 물결도  
그 빛발 막지 못하네  
위대하도다 백두산의 새별  
아 그이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대한 백두산의 새별을  
수만리 먼곳에서 우러르며  
흙모의 정 가득가득 심장에 담아  
노래를 드리노라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 예멘 의사임)

# 완월루에 오르시여

김광호

동주성 옛성터에 어스름이 깃들고  
구봉산마루에 둥근달 솟는 밤,  
푸르른 달빛을 밟으시며  
완월루에 오르신 김형직선생님  
아름다운 산천경개에 심취하신듯  
달빛어린 강산을 이윽히 바라보셨네

그 옛날 변방을 지켜싸운 인민의 기상인양  
승엄한 자태를 드러내는 봉우리들  
계곡을 따라 멀어진 한줄기 오솔길은  
저 멀리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문득 어디선가 가슴 허비며 들려오는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소리  
파도에 부대끼며 흘러가는 돛배 한척...

아, 나라도 인간의 권리도 다 빼앗기고  
가난과 학대 속에 민중이 신음하니  
강산도 달빛도 눈물속에 흐려졌네  
설음이 있어도 하소할곳 없는  
겨레들의 피라는 소원을 담아  
선생님께서서는 시 한수를 읊으셨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 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오, 선생님의 불같은 호소에  
구봉산 장수봉도 키쫓구며 일어서는가  
은은한 달빛아래 흐느끼던 압록강도

서슬푸른 장검이 되어  
번뜩이며 굽이쳐흐르는가  
왜놈들 학정아래 눈물짓던 배사공도  
분노의 총검들고 결사전에 나섰거니  
작은 나루배 아닌 무산혁명의 큰 배우에  
2천만 겨레들을 태우시고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향방없이 흘러가던 조선의 배머리를  
광복의 기슭으로 돌려세워주신 선생님!  
완월루의 달밤은 그렇듯 아름다웠어도  
아름다운 그 한밤조차 즐기지 못하셨구나

그날의 완월루 달밝은 밤에  
선생님께서 바라보신 조국강산  
안개속에 사라졌던 한줄기 오솔길은  
무르익은 파원의 향기속에 묻히고  
그 옛날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소리는  
오늘의 이 땅에  
즐거운 행복의 노래로 울려 퍼지나니

인민의 락원에 단 한번만이라도  
그리운 선생님을 모시고싶은 그 마음  
푸르른 달빛이 되어 흘러내리는가  
충성의 별무리되어 하늘에 비졌는가  
아, 《지원》의 높은 뜻이 꽃으로 만발한  
락원의 이 강산을 감회깊이 바라보시며  
선생님께서서는 오늘도  
동주성 완월루에 승엄히 서계시네

# 백두산의 눈보라

황명성

눈우에 피는 만병초의 향기가

봄빛을 뿌려주는 백두산정

천리수해는 아득히 설레고

얼음꺼지는 계곡의 눈석이물 발목을 적셔도

나는 눈보라를 부른다

눈보라 백두산의 눈보라

눈보라에 온몸을 잠그며

승엄함과 용맹에 차는 내 가슴

벽차도록 혁명의 폭풍을 호흡한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태고의 밀림, 밀림의 백설우에

전설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신

아, 우리 당의 행군이 있지 않았던가

눈보라우에 불꽃처럼 타던 붉은 기발

쓰러지면 땅을 차고 다시 일어나

성에 불린 입가에서 새어나오던 노래

시련을 이기는 의지의 삶은

엄혹한 자연의 힘보다 강하였더라

더운김 서려올리는 우등불가에

진리의 샘을 터치던 글읽는 소리, 웃음소리...

달빛 부서지는 눈우에 산나물 끓이던 냄새

눈덮인 광야에 삶의 역센 숨결인듯

한흡의 미시가루 뜨거운 그 사연도 예 있었구나

엄혹한 겨울을 이겨야 봄이 오듯이

준엄한 세월에 수령님을 따르는 마음들앞에

사랑과 꿈과 미래를 속삭여준 눈보라

너는 혁명의 품에서 태어난 태양의 아들들을

맞부딪치는 철화와 자연의 거칠은 들길에 세워

불새의 나래를 다듬어준 백두의 폭풍!

눈보라 오오, 수령님 품에 안고 헤쳐오신

백두산의 눈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념의 마음들 앞에 펼쳐진

의지의 한바다여, 혁명의 격랑이어

록음 짙어가는 봄날의 강렬한 해빛과

눈서리를 이기고 그토록 아름다움을 떨치는

눈부신 꽃들의 향기에 취해

행복 무르녹는 락원의 강산 어디를 가도

백두의 눈보라를 못잊는 마음

아, 백두산의 눈보라를 안으니

혁명의 열정으로 뒤설레고

혁명의 열정으로 높뛰는 이 심장 커지나니

당을 따라 성스런 백두의 그 길을 이어

우리는 간다, 웃으며 노래하며 창조하며

투쟁하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의 그 한끝을 향하여



##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은하수》에 대하여

김용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폭풍 세찬 험산준령을 헤쳐오시는 과정에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장구한 기간 곡절많은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었다.

참으로 반세기가 넘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은하수》는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로선을 온 세상에 장엄히 선포하시여 력사의 버림을 받아오던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생동한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으며 혁명의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있다.

### 력사의 분수령, 혁명의 전환점

1929년 여름부터 1930년 여름, 이 기간은 년대와 년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분기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단순히 년대와 년대를 구획하는 시간적개념으로서의 분기점만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력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의 시대였으며 주체적혁명로선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포한 력사의 전환점이였다.

장편소설 《은하수》는 1929년 여름 남만청총대회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뮈회의까지의 사이에 실지 있었던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 보시고 그들의 투쟁을 더욱 조직화, 의식화 하기 위하여 길림감옥의 차디찬 감방에서 오래동안 무르익혀오신 주체의 혁명로선, 무장투쟁로선을 장엄히 선포하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

적과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격동적인 사변으로 가득찬 1930년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계급해방, 민족해방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사상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다.

1920년대말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는 매우 엄혹하였다.

세계경제공황의 불길에 말려들어간 일제는 그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만주에 대한 침공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조선땅을 저들의 믿을직한 후방기지,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우리 인민에 대한 폭압과 학살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의 강도적인 학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허덕이었고 일제의 파쑈적인 폭압으로 인하여 조선민족의 자유와 인권은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일제의 폭압과 학살이 강화됨에 따라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은 급격히 앙양되였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반일대중투쟁이 련이어 일어났으며 그것이 점차 폭력투쟁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대중적 진출은 승리를 이룩할수 없었다.

폭압과 항거의 결전장은 일제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우리 인민들의 선혈로 얼룩지었고 피의 절규, 원한의 통곡소리는 하늘땅에 차넘쳤다.

특히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의한 무모한 5.30폭동으로 하여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였다.

구성된 정세는 지체없이 올바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앙양된 대중의 투쟁을 조직화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구성된 정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마침내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뮈회의를 소집하시고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 즉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 되여야 하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며 반일애국력량을 총동원하고 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심오한 진리에 의하여 어둠속에서 갈길몰라 헤매이던 조선혁명은 마침내 광명의 빛줄기를 안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930년은 위대한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소설은 이처럼 거창한 역사적시기의 혁명적사변을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화폭에 담고 계급해방, 민족해방, 혁명승리를 가져오는 그 결정적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그에 의하여 창시된 위대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있으며 수령의 사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깊은 뜻을 체득한 각성되고 단합된 인민대중과 혁명대오의 무궁무진한 힘에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밝히고있다.

《환히 터진 은하수가 캄캄한 밤하늘 한복판으로 저 멀리까지 쭉 열려나갔다. 대강을 상징하는 것 같은 붉은 획이었다. 그 획을 타고 붉은 별의 성좌가 빛을 뿜는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대오를 상징하는것 같은 붉은 별의 성좌! 아, 은하수, 칠칠혹야에 획을 그은 붉은 은하수, 그 누가 이 우주를 잠재우고 하늘에 획을 긋고 붉은 별을 뿌려던졌는가. 열도와 빛을 뿜는 태양이 없다면 저 은하세계가 저렇게 밝을수 있을가. 역사는 하늘의 이 상징을 영원속에 새겨둘것이다. 쿵, 어데서 또 한번 쿵하는 위대한 탄생을 고하는 큰 울림이라도 울려올것 같은 숭엄한 정적속에 붉은 은하수가 찬란히 흐른다.》

캄캄한 밤하늘 한복판에 그어진 붉은 획-그것은 위대한 김성주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붉은 기치이다.

그 획을 타고 빛을 뿜는 붉은 별의 성좌-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전위대오, 주체의 혁명대오이다.

《그 누가 이 우주를 잠재우고 하늘에 획을 긋고 붉은 별을 뿌려던졌는가》 그이는 바로 2천만 우리 민족이 충성의 마음으로 받들어 올린 민족의 태양, 절세의 위인, 위대한 김성주동지이시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상징적인 수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강렬한 주정토로는 작품의 심오한 사상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해명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이 거둔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공의 하나가 있다.

## 태양의 빛발, 태양의 열도

빛과 열-이것은 태양의 속성이다. 태양은 밝은 빛으로 무한대한 우주를 비쳐주며 자기의 뜨거운 열로 만물에게 생을 준다.

그래서 인간은 오래동안 태양을 칭송하여 왔으며 태양처럼 밝은 예지와 태양처럼 뜨거운 사랑을 지닌 그런 위인이 탄생하기를 열망하여왔다.

그러나 인류가 생겨 100만년,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시작되어 한세기가 넘지만 세계는 것처럼 위대한 인간, 태양에 비길만한 그러한 분을 오직 한분밖에 알지 못한다.

그이는 바로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정도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이시며 그이가 바로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만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이시다.

장편소설 《은하수》는 작품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활동가로서의 그이의 위대한 품모를 폭넓고 심오하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한다고 자처한 사람들은 혁명투쟁에 인민대중을 조직 동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물젖어 우리 혁명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조선혁명을 하는것만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1920년대말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여전히 파쟁과 사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한 진통을 겪고있었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그들과 리탈하여 파벌싸움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갔으며 적들의 반동공세가 강화되자 맥없이 주저앉거나 투항변절하는 길에 굴러떨어졌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길림의 토착세력이 몰려나와자 《국민부》의 우두머리로 된 현종관, 고인호들은 《혁명당》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 손문의 민생주의를 본따서 허황한 민생문제해결의 《강령》을 들고 인민들과 청년들을 유혹하였다. 이자들은《남만청총대회》를 열고 《조선청년운동》이라는 그 무

슨 통일조직을 내오려고 책동하였으나 김성주동지의 정연한 논리앞에 그 진상이 날날이 폭로되자 마침내 《민족운동》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백주에 테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장덕순을 비롯한 애국청년 여러명을 피모산속에 끌고 들어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나중에는 왜놈들에게 투항변절하여 놈들의 앞잡이로 전락되고 말았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책동도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운동안에 기여한 종파분자들은 령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싸움만 벌리고 있었으며 국제당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적수공권의 인민들을 무모한 5.30폭동으로 내몰아 류혈참극을 빚어내고있었다.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 놓인 이 엄중한 난국을 과연 어떻게 타개할것인가. 생사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 로선을 기다리었고 거칠은 만주땅에 피눈물을 뿌리며 흩어져 헤매던 조선민족은 자기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위대한 수령의 탁월한 령도를 목마르게 고대하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앞에 가로놓인 이 엄혹한 사태를 비범한 예지와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보신 김성주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지금까지 벌려온 맑스주의선전과 시위조직의 한계점에 머물러 세울수 없으며 신음하는 민족앞에, 몸부림치는 시대앞에 피를 주고 숨결을 주는 새로운 혁명로선을 제기하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폭을 전조선적인 판도로, 전민족적인 범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시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는 한여름 내내 모대기시던 이 문제를 왕청문사건이후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과제로 받아들이시였으며 차디찬 길림감옥의 감방에서 수련이가 가지고 온 장덕순의 자료집을 연구하시는 과정에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완성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30년 6월 30일,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로선을 장엄히 선포하시였다.

이 력사적인 순간으로부터 풍파많은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주체의 궤도를 따라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소설은 이처럼 작품의 전반을 관통하여 주체의 심오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 업적을 숭고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놓음으로써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그이의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럴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소설은 위대한 인간에게서만 볼수 있는 위대한

생활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는 광명의 화신이실뿐 만아니라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기도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태양의 열도에도 비길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반세기 넘는 조선혁명은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오래동안 운명의 노예가 되어오던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인으로, 혁명의 전위대오로 자라났다.

인간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가장 고매한 품목이다.

소설은 한없이 넓고 깊으신 도량과 열렬한 포용력으로 혁명전사들은 물론 지어 적 진영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혁명의 동정자, 지지자로 만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믿음과 크나큰 포용력을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소설에는 김성주동지께서 혁명의 길에서 방황하던 한운이를 굳게 믿으시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여 혁명의 전위대오에 세워주시는 감명깊은 이야기가 있다.

한운이는 한때 《국민부》의 우두머리인 현종관의 《로선》을 따라 애젊은 청춘을 무모한 투쟁의 진창길에 내던지고있었던 사람이다. 왕청문사건이후 《국민부》의 파렴치한 권력쟁탈전에서 환멸을 느낀 그는 마침내 그들과 결별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왔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따듯이 맞아주지 않았으며 지어 서울에서 중학시절을 함께 보낸 강창수도 그를 내쫓아버린다.

과거에 대한 쓰디쓴 환멸, 가슴저려나는 회오, 등불없는 캄캄한 인생, 한운이는 자신의 기구한 정치적운명을 한탄하며 몸부림친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그이께서는 반동들의 체포소동이 계속 벌어지고 걸음마다 위험이 뒤따르는속에서도 길림시내를 다 뒤지시며 그를 찾아다니신다.

이 과정에 그이께서는 불행하게도 원수들에게 체포되신다.

위대한 김성주동지께서는 길림감옥의 감방에서 한운이를 따듯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붉은 기발을 날리며 전진하는 혁명대오의 한 성원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한없는 보람을 느끼신다.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수령이 혁명과 반혁명의 갈림길에서 모대기고있는 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한몫 바쳐 나선 일이 있었던가.

그이는 인간에 대한 한없는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김성주동지 한분뿐이시였다.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는 《화요파》의 장단에 춤을 추며 다니면서 인생을 값없이 탕진한 장운삼에게도 참된 삶의 길, 보람찬 혁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었으며 길림감옥의 리간수까지도 혁명의 동정자로, 지지자로 만드신다.

소설은 이처럼 인간을 믿으시고 그들을 혁명대에 세우시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뜨거운 사랑,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가장 위대한 인간적품모이다.

승고한 의리와 혁명적동지애를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는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병마에 쓰러진 한 평범한 전사에게도 소생의 활력을 주시고 단두대에 오른 혁명전사에게도 따뜻한 미소와 인간의 참된 긍지를 안겨주시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청춘의 행복한 사랑을 되찾아주신다.

소설은 처음부터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성주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위대한 서사시적 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놓는다.

왕청문에서 피살된 장덕순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김성주동지,

왕청문에서 돌아오시는길에 아무도 없는 수연이네 집에 들리시여 마당도 쓰시고 굴뚝도 손질하시며 자신의 아프신 마음을 조용히 달래시는 김성주동지의 모습은 동지들의 마음을 끝없는 격정의 열풍속에 몰아넣는다.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 채경이 오누이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동지적 사랑의 최고 절정을 이룬다.

심한 고열로 고통을 받는 경주를 위하여 김성주동지께서는 위험을 무릅 쓰시고 인의병원의 박승훈을 찾아가시여 치료를 부탁하기도 하시며 무송에 계시는 어머님께 보내시여 허약해진 몸을 추세워주기도 하신다.

원썬들에게 체포된 혁명전사 채경이에 대한 김성주동지의 사랑은 수령과 전사간의 동지적사랑의 위대한 모범으로 된다.

리보익녀사께서 만경대로부터 허리에 띠고오신 토목천으로 존경하는 강반석어머님께서 감옥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드님께 지어드리신 양복, 그 귀중한 양복을 김성주동지께서는 사랑하는 혁명전사인 채경이에게 보내주신다.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 보내주신 한벌의 수수한 양복, 그것은 천만근의 무게로도 꺾을 없는 한없이 귀중한 동지적사랑의 결정체였다.

하기에 그는 원썬들의 야만적인 고문과 악형속에서도 혁명의 령도자 김성주동지께 다진 맹세를 꺾고 지켰으며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영생하는 삶의 길을 빛나게 걸어갈수 있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참으로 뜨겁

고 열렬하며 자애롭고 웅심깊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차디찬 감방속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구상하시는 가운데서도 면회를 온 백순희의 얼굴에 비친 수심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주시고 하시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한 혁명가의 안해를 위해서는 가정의 단란한 상봉도 마련해주신다.

소설은 이처럼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확고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적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고있다.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발동시키고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힘, 그것은 바로 태양의 빛과 같이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에 있으며 태양의 열도처럼 뜨겁고 열렬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는데 바로 이 소설이 거둔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 충성의 별무리

하늘에는 태양의 빛과 열도로 밝게 빛나는 은하세계가 있다.

수억만의 별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룬 붉은 별의 성좌 은하수, 태양을 옹위하여 불변궤도를 돌고있는 그 흐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막을수 없다.

깜깜한 밤하늘 한복판으로 줄기차게 흘러간 은하수,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충성의 결사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전위대오이다.

소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 혁명의 지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철저히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전사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최상의 영예라는 위대한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소설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혁명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거대한 교양적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신념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는것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이였다.

소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속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이 확고한 신념, 그들의 철석같은 의지

를 주도적인 성격적 특징으로 잡아쥐고 형상의 모든 각광을 여기에 집중하고있다.

《혁명동지들! 우리의 귀중한 전우들!

김성주동무를 철저히 보위하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호소하고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는것, 우리 혁명의 성공을 담보하는것, 그것은 곧 김성주동무를 철저히 보위하고 잘 받드는 일에서만 올것입니다. 그의 말을 철칙으로 여기고 그의 보위를 위하여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을 던져서 해내는것이 우리 조선혁명가들의 기풍으로, 정신력으로 되어야 합니다.

.....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김성주를 철저히 보위하라!

력사는 다시금 우리에게 그런 령수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를 힘있게 옹위하고 전진하라!

아, 우리의 희망, 우리의 리상, 우리의 모든것의 체현자인 김성주동무!...》

이것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혁명동지들에게 유서로 남긴 채경의 심장의 웨침이다.

채경은 왜놈들의 야만적인 고문앞에서도, 단두대위에서도 경애하는 김성주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였으며 목숨바쳐 그이의 신변을 보위하였다.

그리하여 채경은 태양의 빛을 받아 찬란히 반짝이는 은하계의 류달리 빛나는 별로 되었다.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채경의 피의 호소, 심장의 웨침, 그것은 청년공산주의자 전체의 웨침이었으며 청년전위들의 대오앞에서 힘있게 나뭇긴 기발이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위대한 신념은 강창수와 장덕순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 모두의 신념이었으며 이 신념은 그들의 성격에서 기본핵을 이루었다.

장덕순은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의 온갖 주의주장속에서 김성주동지의 혁명사상을 지켜싸웠으며 살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적신념을 고수하고 혁명적의리를 지켜내었다.

소설에서는 강창수의 형상도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그는 언제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성주동지의 신변보위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해나간다.

길림의 정세가 험악해지고 검거선풍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차득보를 카륜에 보내여 경애하는 김성주동지를 철저히 보위하도록하며 그이께서 그곳 카륜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지시만 보내시도록 조직하였다.

그러나 김성주동지께서는 길림의 조직이 파괴당하는데 카륜에 앉아 무슨 혁명을 지도하겠는가고 하시며 차득보를 돌려보내시고 자신께서도 길림에 돌아올 결심을 가지신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창수는 부르쥰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김성주동무를 혁명이 한사람으로만 보아선 안되오. 우리 혁명의 전체요, 전체를 보위하는 투쟁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하오.》라고 차득보를 엄하게 질책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성주동지는 우리 혁명의 전체였으며 그이를 철저히 보위하는것은 조선혁명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그는 김성주동지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송화강물위에 뜬 배를 아지트로 정하기도 하며 그이의 지시와 말씀은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참다운 혁명가의 전형이었다.

김성주동지의 넓은 포용력과 한없는 믿음속에 혁명의 전위대오에 들어선 한운이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그는 그이께서 계시는 카륜으로 왜놈밀정들이 간다는것을 알자 놈들보다 먼저 도착하여 《나의 구원자, 재생의 은인》이신 김성주동지를 위기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밑에 부상당한 몸에 수갑까지 채워있었으나 기고 또 기고 뛰어서 카륜에 도착하여 원썬들의 흉계를 앞질러 분쇄해버린다.

참으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에는 한계가 없었다.

어찌 이들뿐이라!

김성주동지의 소탈한 품성과 자애깊은 사랑에 끝없이 감동된 인민들은 그이를 민족의 영웅으로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며 한마음 다 바쳐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른다.

그이께서 체포되시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자 그자리에서 기절해넘어간 리갑무로인, 《한별선생님》을 찾아 헤매는 인순이의 모습 등 소설에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고있다.

소설에 그려진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모두는 충성의 별무리였으며 이들이 모여 충성의 은하수를 이루었다.

이처럼 장편소설 《은하수》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영원히 받들어 나가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한없이 숭고한 충성심을 감명깊게 그려냈으며 수령과 혁명전사들간의 참다운 의리와 혁명적동지애, 수령과 인민간의 혈연적연계와 같은 심오한 철학적진리를 진실하게 밝혀내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이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가 있다.

## 사회정치적문제와 예술적일반화

장편소설 《은하수》는 당중앙에서 밝혀준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 요구에 맞게 작품에 설정된 심오한 사회정치적문제를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적화목을 통하여 훌륭하게 해명함으로써 특출한 예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설은 처음부터 마감까지 시종일관 작품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줄기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적혁명로선제시의 사회력사적필연성과 그의 본질적내용 그의 장엄한 탄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정치로선문제를 주되는 문제로 취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은 자칫하면 사회정치적문제가 생경하게 로출될수 있는 전제를 적지않게 내포하고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당중앙의 현명한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참다운 인간학의 본보기로 되었다.

이 소설이 거둔 예술적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준데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과 령도선을 주선으로 확고히 그려나가면서도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생활적화목에 담아 잘 맞물려 그려줌으로써 작품의 예술적성과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동시에 인민적 수령으로서의 그의 소탈하신 풍모를 생활적으로 인상깊게,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성주동지께서는 왕청문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사대매국적인 사상에 물젖은 청년들에게 부르조아자유경쟁과 민생문제해결의 반동적본질을 해설하시면서 그 어떤 강당과 연락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그이께서는 앞마당의 널판자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풋콩을 까시며 알기쉽게 해설해주신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카툰의 농민들속에 있는 남도회 북도회하면서 꽤거리싸움을 하는 악습을 뽑아 버리고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친히 오백근의 집에서 하루밤 쉬시면서 그를 알기쉽게 깨우쳐주어 농민혁명의 앞장에 서게 하시였다.

장운삼의 집에 들리시여서는 인순의 일손을 도와 부엌매질도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소탈하신 풍모를 보여주는 이 모든 인상깊은 생활적 화목들은 수령형상창조에 서 격식화와 틀을 마스고 소설의 예술적성과를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인간관계의 특색있는 설정과 치밀한 감정조직, 이것은 이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며 참다운 인간학의 본보기작품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채경이와 경주의 관계를 오누이로 설정하고 작품의 마감까지 시종일관 끌고나가면서 독자들을 인정세계에 깊이 끌어들여 충성심의 숭고한 세계로 승화시켜나가는 치밀한 감정조직, 장덕순이와 수연이의 애정관계에 일찍 극절을 주고 가슴미여지는 슬픔과 그리움을 이겨나가면서 장덕순이가 걸은 혁명의 길을 계속 이어나가는 수연이의 성격장성과정, 이 모든 인간관계와 감정조직들은 수령과 전사간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부각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충성심을 깊이있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소설은 생활세부창조의 귀중한 모범도 보여준다.

소설에는 인상깊고 표현력이 강한 세부들이 많이 리용되어있다.

특히 장덕순이가 남긴 수연이의 가락지세부와 김성주동지께서 보내주신 채경의 양복세부는 매우 인상적이고 뜻깊다.

세부심화수법으로서 소설에 그려진 양복세부는 혁명전사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뜨거운 은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전사의 충성심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참으로 이 소설이 이룩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거대하며 그의 교양적가치는 매우 크다.

오늘 장편소설 《은하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데 참답게 복무하고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80년대속도》창조운동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는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우리는 작품에 그려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충성심을 적극 따라배워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옹호보위하는 성벽이 되고 결사대가 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신념의 노래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 대하여-

최길상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인간의 참된 삶과 보람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심각하게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시대는 자주화의 거세찬 흐름이 대하처럼 굵아치고 있는 시대, 인간존중의 시대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우리 문학은 당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철학적 물음에 인간학적 해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이며 인민대중의 지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예지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된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리정술 작)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철학적인 시형상으로 정서깊고 사색있게 노래한 명가사이다.

## 혁명적신념은 참된 삶의 비결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잘 반영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가사는 당에 대한 우리 시대인민들의 혁명적신념에 관한 문제를 사상적 핵으로 제기하고 투쟁하는 시대, 혁명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철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한결같은 혁명적지향이 응심깊게 담겨져있다.

사람은 혁명적신념을 가져야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충성다 할수 있다.

혁명적신념은 보람있는 삶의 비결이며 원리이다.

이것은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격조높이 노래한 사상예술적주장이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 그 얼마라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혁명의 먼길을 왔어라

우리 혁명은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그 길은 참으로 시련에 찬 로정이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모든것을 다 겪어보고 혁명가로서 체험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 인민은 혁명의 한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변함없이 함께 가는 신념이 삶의 원리로 된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생사를 같이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선렬들의 신념은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들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다.

하기에 사심이 없고 변심이 없으며 고결하고 아름답다.

가사는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따른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적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노래하면서 이것이 바로 혁명적신념의 원천이라는것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확인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지나온 혁명의 길에서 그러했듯이 앞으로 가야할 멀고 먼 혁명의 길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심장속에 더욱 확고부동한 참된 삶의 원리로 간직되리라는것을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고조시켜 폭넓게 노래하고있다.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  
가야 할 길 몇만리나  
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더욱더 불타네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은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갈수록 더욱 확고한것으로, 철석같은 의지로 된다.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를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뚫고 승승장구 할수있다는것을 드물지 않는

진리로 체득하고있다.

이 진리를 체득하고 있기에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의 기치, 성스러운 그 기발아래 다진 우리 인민의 맹세는 혁명의 비바람을 헤쳐가야 할길이 멀고 험할수록 더욱 충성으로 불타오른다.

이 깊이있는 시적형상은 사람들의 신념은 지나온 혁명의 길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도 드림이 없이 계속 견지하고 고수해나가야 참된 삶의 비결로 된다는것에 대한 철학적인 반증으로 된다.

혁명적신념, 그것은 한번 다진 맹세, 한번 선택한 목적, 한번 들어선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물러섬이 없이 오직 당을 따르는 한길만을 아는 고결한 혁명적량심이다.

류레없이 간고하고 곡절많은 투쟁의 길에서 우리 혁명의 력사는 사람들이 혁명적신념을 혁명적량심으로 간직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삶의 비결로 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가사는 이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특히 가사는 성스러운 당의 기치, 혁명의 기발아래 다진 맹세가 비바람을 헤쳐가야 할 혁명의 앞길이 멀고 멀수록 더욱 불타리라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깊이있는 시형상으로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절대적이며 고결한 혁명적량심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가사는 이와 같이 투쟁하는 시대, 혁명가의 참된 삶의 비결은 당을 따르는 혁명적 신념에 있고 우리 인민의 이 신념은 앞으로도 영원히 삶의 원리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개방하고있을뿐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지닌 인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노래하고있다.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이 그 향기가 영원하듯이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을 따르는 신념을 지닌 사람의 삶은 가장 고귀하고 값높은 것이며 영원한것이다.

이러한 시적형상은 우리 시대사람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신념이 빛나는 한생을 사는데서 가장 근본문제로 나선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여기에 이 가사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절박한 물음에 인간학적 해명을 준 형상적성과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가문학창작에 많은 시사를 준다. 시가문학은 결코 소설에서처럼 생활을 펼쳐보이면서 인간성격의 창조를 통하여 인간문제에 해답을 줄수 없다.

그러나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같이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에서 근본적 의의를 가

지는 참된 삶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는 시적 형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해명할 때 시가문학에 우리 문학의 인간학적요구가 체현되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 대하처럼 굽이치는 시대의 서정

우리 당이 밝혀준바와 같이 가사는 사상적내용이 좋아야 할뿐아니라 예술성이 높아야 한다. 가사의 예술성은 시의 본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보장하는데서 이루어진다.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당이 밝혀준 가사창작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서정성을 풍부히 함으로써 명가사로 되었다.

가사는 시대감정과 시대사상을 정서깊고 사색있게 노래하였으며 시대의 서정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시대의 서정, 그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우리 시대, 자주화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정서이며 사상감정이다.

이 가사는 시대의 서정을 구현하는데서 실천적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 가사의 서정은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낳은 충성의 감정이다.

그것은 당을 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한 뜻을 품고 저멀리 험한령을 넘어온 투사의 궁지이며 당을 따라가는 길에서 한번 다진 맹세 변치 않고 한생을 기꺼이 바치려는 전사의 랑만이며 그길이 인간의 참된 삶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오직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환희의 감정이다.

궁지와 랑만, 삶의 희열이 넘치는 이 가사의 서정은 숭고하고 열렬하며 깊고도 뜨겁다. 그러므로 폭과 심도가 있으며 호흡이 크고 박동이 세차며 울림이 장엄하다.

이 시대의 서정을 훌륭히 구현한 여기에 이 가사가 높은 시형상으로 될수 있는 근본요인이 있다.

가사 1절의 서정은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를 헤치며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먼길을 달려온 투사들의 감정이다.

그러므로서 서정의 울림은 숭엄하고 장중하며 만리광야의 눈보라를 헤치며 조국진군의 길을 개척한 투사들의 억센 기상인양 우람차다. 그리하여 이 울림속에서 영광넘친 길을 걷고 준엄한 길을 걸어도 언제나 당중앙을 따라서 한길을 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뿌리를 정서적으로 감득케 한다.



가사 2절의 서정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변함없이 한길을 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감정이다.

여기에서 촉발되는 서정은 근엄하고도 절절하며 심원하고도 뜨겁다.

그러므로 한순간을 살고 두번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드림이 없을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철석같은 의지, 불타는 충성이 대하처럼 굽이치고 용암처럼 뜨겁게 이글거리는것과도 같은 감흥을 준다.

이것이 곧 시대감정, 시대의 서정이다.

여기에는 E.C의 기발아래 짓밟힌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리라 필사의 맹세를 다지던 열혈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뜨거운 호흡이 있고 항일의 붉은 기아래 조국광복의 피타는 맹세를 다지며 결전에 나가던 투사들의 숨결이 있으며 군기앞에 다진 맹세 그대로 멸적의 총창높이 들고 최후 돌격전에 나아가던 인민군전사들의 피끓는 심장의 고동이 있으며 그 호흡, 그 숨결, 그 심장의 고동으로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비껴있다.

그리고 랑만에 넘치고있다.

가사의 3절은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낳은 환희의 감정으로 되고있다.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삶의 기쁨은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충성의 순간순간을 보내는데서 오는 기쁨이며 환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사의 3절에서 혁명의 한길에 바치는 삶을 그렇듯 빛나고 영생하는 삶으로 간주하며 언제나 당의 뜻을 받들고 계속 충성의 꽃을 피우는 사람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고 투쟁의 기쁨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는 우리시대 사람들의 새로운 미학적서적 감정에서 분출된 시대의 서정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가사는 이와 같이 매 절마다에 정서적 고조점을 주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정서적 감정으로 일관시켜나가고있다.

말하자면 1절에서 제시된 우리 인민의 신념의 뿌리에 대한 감정을 2절에 와서 폭을 넓혀 전인민적인 감정으로 승화시켰으며 3절에 가서 신념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레찬으로 폭발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리하여 가사의 전편에 배여있는 서정은 용융한 대하의 흐름처럼 웅심깊게 굽실거리기도 하고 세찬 격랑을 일으켜 광광 울리다가 절벽에 부딪쳐 튀어나며 해빛에 빛나는 물방울처럼 광채를 뿌리기도 한다.

이 서정의 흐름은 미풍의 속삭임이나 잔잔한

호수의 물결, 못새의 지저림에서 환기되는 정서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서정이다.

우리 시대사람들의 정서는 이처럼 주체시대가 안겨준 새로운 미학적감정에 의하여 형성된 혁명적인 정서이다.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정서적감정을 훌륭히 반영하는데서도 실천적모범을 보이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가문학에 시대의 서정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시사를 주고있다.

## 하나의 물방울에 온 하늘이 비끼다

우리 당이 밝혀준 가사창작론은 가사는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사상감정이 뚜렷하고 간결한 표현을 쓰면서도 뜻이 깊게 한데서도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가사가 내세운 사상주제적과제는 매우 크다.

몇줄 안되는 짧은 시속에 당에 대한 우리 시대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다는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물방울에 온 하늘이 비끼는 것과 같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사는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이처럼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을 짧은 형식속에 훌륭하게 노래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가사는 표현이 매우 순탄하면서도 뜻이 깊게 되어있으며 알기 쉽게 되어있다.

우리는 이 가사의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도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며 멀리 전진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게되며 이 승리의 로정은 숭고한 동지애와 의리로 빛나는 로정이며(《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 1절) 우리 혁명위업은 멀고도 험난하며 그 길에서는 절벽강산도 막아설수 있으며(《가야 할 길 몇만리냐》 2절) 그러나 우리는 혁명앞에 다진 엄숙한 맹세를 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성스러운 기발아래 다진 그 맹세》 2절) 충성의 한길을 끝까지 가리라는 깊은 뜻을 새기게 된다.

이처럼 숭고하고도 깊은 뜻을 안겨주면서도 그 표현들이 얼마나 평이하고 리해하기 쉬운가.

표현들뿐아니라 가사의 전반적인 시어들이 매우 험하고 인민성있는것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심원한 뜻을 품고있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가사의 표현수법에서 특징적인것은 형상적 비유가 매우 적중하고 의의깊게 된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적표현속에서도 한 시대가 비끼며 인간정신세계의 전모가 체현되는것이다.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은  
그 향기도 영원하고  
해빛 안고 피어나는 마음  
언제나 그 뜻을 따르네

가사의 이 구절은 실로 많은것을 련상하게 한다.

눈서리를 이겨내는 꽃, 그것은 표상적으로는 백두산의 만병초를 련상케 하며 상징적으로는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눈보라만리 혈로를 헤치며 걸어온 투사들을 그려보게 한다.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그 모습 장하게 피어있는 백두산의 만병초, 그것은 투사들의 혁명절개, 숭고한 녀이다.

눈서리속에서도 언제나 해빛안고 피어나는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념이였고 언제나 그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이다.

참으로 이 한구절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선혁명의 간고한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그 숭고한 혁명적신념을 안고 그 신념, 그 의지대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르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사상정신세계가 깊이 체현되어있다.

가사는 또한 강조, 반복, 대구 등 여러가지 표현수법을 활용함으로써 사상적내용을 형식적으로 힘있게 부각해주고있다.

특히 이 가사에서 특징적인것은 강조의 수법과 대구의 수법이 겹놓이면서 사상정서적내용을 더욱 힘있게 돋구어준것이다.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준엄한 길 걷는다 해도》(1절)

《한순간을 우리 살아도  
두번다시 태어난대도》(2절)

《천만산악 넘어간대도  
세찬 파도 헤쳐간대도》(3절)

이와 같이 매 절의 3단은 대구적인 표현으로 되어있고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토 《도》를 규칙적으로 붙여주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강도와 열도를 더욱 박력있게 표현하고있다.

그리고 가사는 마지막 절구에 가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 신념 붉게 피리라》라고 대구와 반복이 겹치던 표현을 피하고 강조의 수법을 한개 운속에서 련속 씌으로써 억년 드눌지 않을 우리 인민의 당에 대한 신념의 강도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1, 2, 3절에서 축적된 가사의 전반적사상감정은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이 영원토록 붉게 핀다는 서정적고조점에 이르러 가사의 결속과 함께 사상주제적과제가 해결되게 된다.

가사는 또한 반복의 수법을 전반적 서정조직에 맞게 매우 합리적으로 쓰고있다.

가사는 매 절의 마지막 단과 후렴구의 마지막 단에 《당중앙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결속짓고있다.

그러나 이 시구가 매번 새로운 느낌으로, 반복될수록 더욱 힘있게 안겨오는 까닭은 가사의 생리에 맞게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되었기때문이다. 만일 가사의 서정조직에 필수적인 요소로 맞물려들어가지 못했다면 짧은 가사속에 하나의 표현도 아니고 한개의 시구가 네번씩 반복되는 이 수법이 지금처럼 응당한 예술적효과를 낼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당의 탁월하고도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된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가장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높은 시형상으로 훌륭히 해결한 철학이 있는 명가사이다.

우리는 당이 밝혀준 가사창작론을 더욱 철저히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80년대 속도》를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한 더 좋은 가사를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다시 걷는 길

류정옥

## 1

창밖은 벌써 빛을 잃은 석양이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불그레 물든 높고낮은 합성탑너머로 저 멀리 백화점 지붕이 고스란히 안겨온다.

예경은 저도 모르게 그쪽에 자주 눈길을 팔았다. 갑자기 의자밑에서 《철석!》하는 소리가 났다. 무릎위에 놓였던 실험일지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예경은 누가 볼세라 얼른 그것을 집어들며 자세를 바로하고 앞을 바라보았다.

기술준비실 실장인 수옥은 다행히 이쪽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지금 상대하고있는 사람에게 하던 말을 계속했다.

《...정확히 계산하면 동무가 그 과제를 맡은지는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수옥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깔깔하게 들렸다. 그는 지금 실내 기술자들의 기술혁신과제수행정형을 료해하는 중이었다. 조용하면서도 발뻘 틈을 주지 않는 수옥의 말에 기술자들은 애초에 어물어물 변명할 생각을 하지부터 앓는듯싶다.

아까부터 서있는 예경의 앞쪽 사람은 여전히 대답을 못했다.

예경은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후줄근해보이는 그 사람이 측은했고 그전과 달리 깔끔하고 엄격해진 수옥이가 놀랍기도 하였다.

예경은 수옥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위엄있는 눈길때문인지 오늘따라 수옥의 얼굴이 낯선 사람같아보였고 왜서인지 그가 아득한곳으로 멀어져가는듯만싶었다.

예경은 부지중 뭔가 위구심같은것을 느끼며 자기가 대답할 요점들을 실험일지 환기통이에다 부지런히 적었다. 어느덧 자기차례가 가까와오는 것이다.

창문으로 날아든 눈송이같은 버들꽃이 책상 위에서 이리저리 뱅뱅 돌아갔다.

예경은 은연중 마음이 불안해났다.

앞에 사람처럼 어깨가 처질 자기에게 술한 사람의 시선이 쏠릴것 같기도 하고 마음속을 꿰뚫

어보는듯한 수옥의 눈길이 두렵기도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다. 그는 전사람과는 달리 자기의 연구과제정형을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 대답을 듣고있는 수옥의 검은 눈은 아까와는 달리 너그럽고 부드러워졌다.

순간 예경은 자기의 불안이 부질없는 위구심이란걸 느꼈다. 예경을 대하는 수옥은 언제나 저렇게 너그러웠던것이다.

...두 녀자의 인연은 멀리 뒤로 물러가버린 유년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손잡고 유치원에도 다녔으며 화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 배치도 이 화학공장 실험실에 함께 받았었다.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달라 말다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수옥은 예경의 의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곤하였다.

학생시절 수옥은 머리가 좋은 예경을 무척 부러워했으며 그의 방조를 꺼리지 않았다.

예경은 시험때면 수옥을 돕기 위해 악의 없이 짜증도 내면서 밤을 밝히곤했다. 그런때면 예경의 어머니 김석례는 찬물에 띄였던 앵두대접을 내놓아주며 말했었다.

《그거 뭐 쥐뿔만큼이나 더 아는 <선생>이 무척 두 까다롭다.》 수옥은 예경이가 자기 총명을 내흔들어도 모래볼에 물갯듯이 다 받아들이었다.

예경은 그렇듯 허심하고 진지한 수옥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러한 나날들에 그들의 우정은 깊이를 모르게 두터워졌던것이다.

그런데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생활은 두 녀자를 따로따로 갈라놓았다가 룽칠년만인 바로 얼마전에 다시 만나게 하였다. 수옥은 실장으로 온것이 다.

그무렵 기술준비실앞에는 일부 직장들에서 쓰고있는 《○》화학물을 공장에서 나오는 《ㄱ》페설물로 제조할데 대한 연구과제가 제기되었었다. 실장 수옥은 그 분야의 기술준비를 맡아보는 예경에게 그 과제를 주었다.

하나 예경은 선뜻 말아나설 자신심이 없었다. 문헌들에도 그에 대한 약간의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경은 기술실무적으로 파악이 없으며 아직 단독으로 그런 과제를 맡아 해낸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하겠다고 하기는 싫었다.

아무리 친했던 수옥이 앞이지만 자기 자존심을 깎아기가 싫었고 또 갓 실장으로 임명돼온 수옥의 립장을 봐서도 그랬다.

복잡한 생각에 결정을 못하던 그는 뭘 망설일 게 있는가고 대답을 재촉하는 수옥의 어조와 표정을 보고 결심을 내렸다.

그 표정은 《도와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사실상 또 옛정을 보아서라도 기술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성심성의로 도와줄 것이 의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말았었다.

그런데 연구과제는 그 원인을 똑똑히 알수 없는 난관에 걸려 한달가까이 침체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때문에 제먼저 수옥의 방조를 청하지는 못하고 다만 기다릴뿐이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몰려들었다. 바람은 짙은 짙레꽃 향기를 방안 가득 실어왔다.

드디어 예경의 차례가 왔다.

《<Γ>페설물에 의한 <○>화학플 연구는 어느 정도예요?》

예경은 주저없이 일어섰다. 형식상 빼놓을수 없어 자기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수옥이라고 생각되었다.

《아직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요.》

레사롭게 대답하던 예경은 일순간에 마음이 굳어졌다. 뭔가 불만을 품은 수옥의 눈길이 집요하게 자기를 주시하고있었다.

《문제가 걸렸으면 이악하게 과고들어 적극적으로 해결방도를 찾을 대신 되면 하고 안되면 말겠다는 립장인가요?》

그 어조는 아까처럼 짹짹하고 위엄이 풍겼다. 예경은 수옥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가 차마 이렇게 말할줄은 몰랐다. 뭔가 믿음이 일시에 배반당한듯한 불쾌감이 가슴속을 싸늘케 하였다.

예경이로서는 있는 지식과 노력을 다 바치는데 도와줄 대신 술한 사람들앞에서 그렇게 말하는게 어이없었다.

수옥은 마지막사람까지 죄다 료해하고나서 결론처럼 말했다.

《한사람의 일생이란 결코 긴것이 아니예요. 지금 일부 동무들은 이런저런 구실밑에 하루하루 미루고있는데 무뎡하고 안일한 오늘의 하루가 허무하고 후회많은 래일로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어요.》

예경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쪽으로 쏠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아래로

떨구며 입술을 감쳐물었다. 억울하고 분하였다. 수옥이가 이처럼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을 대하듯 맹정하고 몰인정하게 취급할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는 책상우에서 앞뭉게 돌아치는 버들꽃을 손바닥으로 꺾 밀어치웠다.

창문으로 들어온 꿀벌 한마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창유리에 부딪치며 뽕뽕거린다.

수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우리 매 기술자들이 시대가 부여한 자기 몫을 다하자면 끊임없이 배워야하며 탐구해야 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수옥은 조용한 눈길로 방안을 더듬어 보았다. 예경은 그 눈길에 마주칠가봐 머리를 들지 않았다.

《우리 동무들속에는, 더구나 녀동무들속에는 어느 옛날에 받은 화학 준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일생을 살아갈수 있는 무슨 길량식이거나 한것처럼 태평스레 살고있어요.》

(저것도 나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예경은 언젠가도 수옥에게서 저 비슷한 말을 들었었다.

...공장예술소조원이었던 예경의 그 미모는 활짝 핀 배꽃과 같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가 못사람들의 시선속에 노래를 부르며 생활을 즐길 때 공장대학생인 수옥은 늘 책속에 묻혀살았다.

예술소조에 실증을 느낀 예경이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꿈꿀 때 수옥은 권고했다.

《예경아. 너 이제라도 공장대학에 입학하자꾸나. 전문학교나 나온걸 무슨 큰 밑천이나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 준기사자격증을 일생을 살아갈 길량식으로 여기는것은 그릇된 생각이야.》

그때 예경은 수옥의 살뜰한 권고를 대수롭지 않게 웃음으로 받아넘겼지만 오늘은 그럴수 없었다. 이건 권고 정도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예경은 모든것이 비위에 거슬렸다.

얼마전에 것처럼 기쁨속에 다시 만난 수옥이와 의 상봉이 이처럼 기분나쁜 결과를 가져올줄은 몰랐다.

처녀시절 수옥은 예경이보다 이삼년후인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하였다. 결혼과 함께 그는 멀리 지방 소도시로 남편을 따라 가버렸었다.

수옥을 실고 무심하게 떠나가는 렬차를 바라는 예경의 속눈썹은 젖어있었다.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이 생활인듯만싶었다. 20년을 함께 살던 우정도 의리도 아랑곳없이 매정하게 갈라놓는 생활이

몹시도 야속하였고 예경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듯 껍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정든 도시를 떠나 멀리 산간도시로 찾아가는 수옥이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었다.

그렇게 헤어졌던 수옥이가 생활의 흐름을 따라 불쑥 다시 오게 되었다.

수옥은 옛날 그대로 오지 않았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되었으나 어느새 학위논문까지 준비하고있으며 기술준비실 실장으로 임명되어왔다.

생활은 얼마나 너그러운가! 오늘의 즐거움과 행복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정과 기쁨마저도 되돌려주는것이 우리의 생활인듯싶었다.

그날 수옥을 자기 집으로 끌고간 예경은 농마국수집이며 록두지집집으로 분주하게 드나들었고 수옥은 예경이가 좋아하는 색깔인 하늘색바탕에 초롱꽃이 밝게 웃는 매미나래같은 머리수건을 다시 만난 기념으로 주었었다.

예경은 수옥을 실장으로 맞이한 기쁨으로 그 수건을 받았었다.

그날 예경은 몹시도 좋아했다. 옛친구가 놀랍게 성장한것도 기뻐지만 누구보다 서로 흥금을 터놓고 살아갈수 있는 동무가 실장으로 왔기때문에 더 기뻐다...

꿀벌은 여전히 창유리에 부딪치며 뽕뽕거렸다.

그 소리가 몹시도 예경의 신경을 자극했다. 투명한 유리지만 꿀벌에게는 그것이 자연계를 막아선 철벽과도 같다는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예경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꿀벌때문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다. 꿀벌은 요행길을 찾아 총알같이 날아가버렸다.

무언가 커다란 믿음과 우정이 일시에 배반당한듯한 허전함과 가슴 쓰림이었다.

그는 언제나 버릇처럼 머리에 사뿐 치고다니던 수옥이의 우정이 깃든 수건을 저도 모르게 살며시 벗어 꼭 쥐었다. 마치 어디로 빠져나갈가봐 두려워하듯...

예경이는 자기와 수옥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짙은 연기가 서려들며 알릴듯말듯한 얇은 간막을 이루는것만 같았다.

## 2

예경은 퇴근후 도서관에 들러 최근 화학잡지들과 여러가지 참고문헌들을 빌려가지고 집으로 왔다.

저녁상을 치우고난 그는 앞치마에 손을 문대며 책상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화학기술서적 한권을 뽑아들었다. 꼭 닫아둔 유리문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책우엔 먼지가 뽕얇게 앉았다. 그것은 마치 수옥이에게 면박당한 예경의 마음을 조롱하는것만 같았다. 창문결에 있는 책상앞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가 그림책을 빨각빨각 뒤적거리고있었다.

《윤아야, 넌 아래방에 내려가.》

예경은 볼부는 소리로 딸애를 쫓아버리고 책상에 다가앉았다.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술서적을 퍼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옥의 추궁이 자존심을 건드렸던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연구과제를 제손으로 해내야겠다는 반발심이 그를 사로잡은것이다.

한데 정작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자니 아리송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다. 그는 벌써 아득히 멀어진 어제날의 그림자들을 안타깝게 찾아가며 어떤 대목들은 두세번씩 뒤적여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갔다.

이윽고 딸애가 다시 책상머리에 다가와 모서리에 턱을 대고 칭얼거렸다.

《엄마, 나 다른 그림책 또 달라!》

딸애 예경이가 보는 화학잡지를 할끔할끔 바라보았다.

《엄마 보는거 나두 볼래.》

《윤아야, 이건 그림책이 아니야.》

예경은 딸애앞에 잡지를 내보였다.

《엄마 아직도 이 책을 보나? 아까부터보면서.》

《너의 엄마 책보는 식은 다르단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보던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다.

《오늘은 100페이지쯤 읽었다면 래일은 80페이지쯤으로 물러가는 식이거든.》

남편은 시침을 떼고 다시 책장을 번졌다. 남편의 기색을 보아서는 무심히 던진 야유같지만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아마도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는걸 인정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인가싶다.

(그러나 그 모든것이 남편과 자식을 위한 너자의 희생이 아닌가.)

그것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스러웠다.

예경의 귀에는 또 기술자격증이 일생을 살아갈수 있는 길량식이기나 한것처럼 태평스레 산다고 질시하던 수옥의 목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그는 이 모든 피로움을 털어버리려는듯 머리를 마구 흔들고나서 펼쳐놓은 책우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출근길에 오른 예경은 시름에 잠겨 걸었다. 실험은 여전히 같은 결과만이 반복되었다. 맥이 풀리는가 하면 화가 나기도 했다. 실험실녀자들속에서는 비난들이 오고갔다.

《…기술자로서 크거나 작거나 바랄게 없는 너자야. 그저 옷맵시 잘 갖추고 집안이나 알뜰히 거들줄 아는 너자지.》

《실장동무하구 딱친구였다면서…》

예경이 어제 실험실 옆방인 휴게실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들은 말이였다.

(수옥이와 딱친구라는 말은 왜 했을까?…)

예경은 그 말뒤에 숨은 뜻이 짐작되었다. (그건 분명 그와 나 사이에 대조를 이루는 차이점을 두고 나를 조소하는 말일것이다.)

뽕-뽕-별안간 경적이 울렸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자동차가 기운차게 달려오고 있었다. 예경은 자기 발밑의 하얀 건늬길 표식을 보고서야 급히 뒤로 물러서 유도보두에 올라섰다.

《정신을 어데다 파느냐?》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예경은 돌아보았다. 친정 어머니였다.

《일이 잘 안되는게로구나.》

딸의 얼굴을 피곳 쳐다본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어려있었다.

어머니는 공장약재창고에서 일한다. 말이 적고 엄한 어머니였지만 역시 어머니의 목소리는 살뜰하였다. 자식을 키워 제살림을 시켜주었지만 여전히 뒤시중과 근심을 놓지 못하는게 어머니들인가 싶다. 어제든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보니 말끔히 빨은 아이들의 옷가지가 줄에 걸렸고 가시장의 늪그릇들이 알른알른 윤을 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퇴근길에 들려 다 해놓고 가셨던것이다.

《첫술에 배부르겠냐. 헌데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구야 무슨 일을 하겠니.》 어머니는 시름낀 예경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며 고무와 질책을 잊지 않았다.

오늘도 저녁나절을 조급한 마음을 달래며 자료실에 박혀있던 예경은 용수철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됐어!》

방긋 열린 박속같은 이발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행히도 매우 귀중한 자료를 찾아낸것이다. 이 자료는 여직껏 진행해온 연구실험에 결정적작용을 일으키게 될 《B》첨가제에 대한것이였다.

예경은 의아한 눈매로 쳐다보는 옆사람들에게 방긋 웃어보이고는 살그머니 빠져나와 나는듯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예경은 빙초산이며 가성소다냄새가 물씬 풍기는 창고에 들어섰다. 어머니는 출고전표들을 한상 벌려놓고 장부를 정리하는 중이였다.

《어머니!》

환희에 넘친 딸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코등에 걸린 돋보기를 벗어들며 뭔가 기쁨을 예언하듯 빙긋 웃음지었다.

《새 소식이 있는게로구나?》

《문제가 풀렸어요. 어머니.》

《저런, 그럼 됐구나. 거참…》

어머니는 너무도 만족스러워 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어머니, 창고에 <B>약재가 있겠지요?》

《있구말구, 귀한 물건이긴 하지만 필요한데라면 야 아낄게 있나.》

《그럼 됐어요.》

예경은 들어올 때처럼 가볍고 날쌔게 달려나갔다.

예경은 실험실에 돌아와 출고전표를 써가지고 수표를 받기 위해 수옥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옥은 예경이가 진행해온 실험전과정의 문건들을 한책상 벌려놓고 열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어제저녁에 보자고 하기에 주고갔던것이다.

《그건 보나마나해. 여기다 수표나 해줘.》

예경은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있게 전표를 내밀었다. 이제는 방조가 필요없으니 간섭하지 말라고, 사람을 서둘러 속단하며 질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예경이였다. 그는 도전적인 눈매로 수옥을 깔끔하게 내려다보았다.

예경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옥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예경을 대했다. 그러나 전표를 잠시 들여다본 그의 눈길엔 실망이 어렸다.

《우린 이 첨가제를 쓰지 않고 해야 돼.》

《?!》

예경은 부지중 불안을 느끼며 긴장하게 수옥을 주시하였다. 《이건 생산량도 많지 못하고 원가가 많이 먹어. 이걸 쓰면서 <O>화확률을 만든다면 우린 얻자는것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셈이야.》

수옥은 서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막아나섰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니니. 판 방법은 없는데.》

《다른 방도를 찾아내야지뭐.》

여전히 침착하고 드림없는 수옥의 태도에 예경은 화가났다. 전신이 화끈 달아오르고 코등에는 진땀이 빠질빠질 솟았다. 마치 어둠속에서 헤매다

가 햇빛을 찾고 환성을 올리는 사람을 다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것과도 같다고 할가...

부족점이 있기는 하지만 남의 성과와 기쁨을 이렇게 단마디로 일축해버릴수 있단말인가.

《난 이 이상 더 못하겠어. 기어이 딴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구.》

《다른 사람?!... 그렇게 할수도 있을거야...》

수옥은 예경이가 화를 내면 더 누그러들던 옛 성미 그대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네 마음이 편할가?》

《지금보다는 나을거야. <안일>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온갖 모욕을 받는것보다는 나을테지.》

예경은 도도한 기세로 맞섰다.

《넌 어쩌면 그렇게 발끈하기 잘하던 처녀때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니. 그러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렴. 난 그저 네가 가장 리상적인 방법을 꼭 찾아내길 바란다.》

수옥은 실험문건들에 다시 시선을 모았다. 그리고 뭔가 촉매제에 대해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신경에 쫓이 잔뜩 돋은 예경에게는 아무것도 귀바투 들리지 않았다.

지난날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함께 기뻐해주고 귀중히 여겨주어야 할것이다. 사람이 처지가 달라지면 우정도 변하는것일가?...

유리창에 부딪치여 애타게 신음하던 꿀벌의 봉봉소리가 또다시 들리는것만 같았다. 수옥이와 자기사이에 생겨난 좁은 간막이 두터운 장벽으로 덧쌓이는것만 같았다.

예경은 축축히 젖어드는 두눈을 아래로 내려깔며 책 돌아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 3

아침이다. 서늘한 바람이 다정스레 옷자락을 어루만진다. 대여섯살짜리 두 소녀애가 손을 잡고 걷는다. 무용복과 같은 치마자락이 통통한 다리우에서 나풀나풀 춤을 추었다. 그 애들은 예경의 딸 윤아와 수옥의 딸애였다. 그 뒤로 예경이가 혼자 따라갔다. 그는 방금 출근길에서 수옥의 남편이 데리고 오는 그의 딸애를 만나 윤아와 함께 유치원으로 데려가는중이였다.

수옥은 며칠전에 불쑥 출장을 떠났었다. 기술합의를 볼것도 있고 자기론문에 보충할 자료들도 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이웃 기계공장에 있는 그의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하며 아

이들 시중을 들었다.

수옥인 그저께가 돌아올 날인데 오늘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합의를 보는데야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겠는가. 제 논문때문일것이다.

두 소녀애는 뒤엀킨 예경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끝없이 재잘거린다. 예경은 문득 전번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백화점지붕에 자주 눈길이 쏠리던 일이 생각났다. 윤아와 저 수옥의 딸애에게 빨간구두를 한켠레씩 사주고 싶었고 신형 여름옷도 해주려고 생각했던 것이였다.

예경은 두 처녀애를 바라보며 그 어떤 향수와 애수를 동시에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28년전 모든것이 폐허로 되었던 여기에 지금의 이 화학공장복구건설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공장건설에 밤낮을 보내는 어머니들을 따라 예경이와 수옥이도 저렇게 손잡고 유치원으로 가군했었다.

그때도 둘은 무척 다정했던것으로 느껴진다. 울며 싸우다가도 눈물씻고 돌아서면 인차 또다시 친해지던 그 유년시절이 그림기도 하다.

(어느 새 벌써 우리들에게 저런 아이들이 돌씩이나 있다니.)

예경은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한 인간의 생활에서 30년이란 실로 엄청난 시간이다.

(한데 그 시간이 언제 어떻게 다 흘러갔는가?)

예경은 어쩌서인지 자기 생활이 어제오늘에 시작된듯이 짚아보였다.

(무엇때문일가?...)

실험실엔 기술과장이 내려와있었다.

예경은 자기를 쳐다보는 과장의 눈길에 불안을 느꼈다. 《○》풀때문이 아닐가 하는 예감이 왔던 것이다. 예감이란 현실을 끌어오는 지남석과도 같은 것인듯싶다.

기술과장은 거뭇한 턱수염을 습관처럼 매만지며 물었다.

《그래 무슨 방도가 좀 쏘소?》

예경은 인차 입을 열수없었다. 아무 진척도 없다면 과장에게서까지 비난을 면치 못할것만 같았다. 그러나 자기식의 《발견》인 《B》첨가제에 의한 방법이라도 찾았다면 그것으로 면무식은 할 것이였다.

그런가 하면 《B》첨가제를 목살해버리고싶지 않은 생각이 앞서기도 했다. 예경은 이 기회에 과장의 의견을 물어보고싶은 충동을 누르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한번 감빨고나서 죄다 말해버렸다.

예경의 설명을 심중히 듣고난 파장은 한참만에 이런 대답을 하였다.

《부족점은 좀 있지만 성과구만.》

예경이 그의 립장을 알수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생산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장은 예경의 내심을 읽듯이 잠시 바라보다가 역시 애매한 대답을 하였다.

《글쎄, 그거야 원래 연구사자신의 신념여하에 달린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강요할수야 없지 않소.》

힘들게나마 반송낙은 얻은셈이니 더 머뭇거리 필요가 없을것 같았다.

《어쨌든 시제품을 제조하겠어요. 그리구 가장 리상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선 앞으로 더 연구하겠어요.》

예경의 조급한 마음을 헤아려본듯 기술과장은 너그럽게 웃음지었다.

《어쨌든 해보고싶은대로 다 해보오.》

## 4

예경은 몹시 흥분된 심정으로 시제품생산준비를 서둘렀다.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하던 사람들앞에 보란듯이 머리를 들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있었고 자기도 뭔가 해냈다는 기쁨이 앞서기때문이다.

그가 실험공들이 준비해놓은 원료며 보조약제들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하고있을 때였다. 한 실험공이 급히 다가왔다.

예경이가 기술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왔다가라는 전달을 가지고 온것이다.

《하필 이 순간에 일이 생길건 뭐람. 내 얼른 갔다올테니 준비를 마저 끝내줘요.》 예경은 함께 일하는 실험공에게 기술과장의 수표가 있는 《B》첨가제 출고증을 넘겨주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인차 내줄거예요.》

담당직장으로 가는동안 예경은 술한 사람들에 게 인사를 받았다.

《오늘 시제품을 생산한다지요.》

《축하해요.》

《기쁘겠어요.》

언젠가 자기를 비난하던 그 목소리의 임자라고 짐작되는 사람들도 한둘 만났다. 그들도 어딘가 미안해하는것 같았다.

예경은 그들에게도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지나쳤다.

얼마후 제기된 일을 보아주고 다시 시제품생산 현장에 나타난 예경은 그만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시제품생산준비에 둘러졌던 설비들이 죄다 종전대로 다른 제품 생산준비로 넘어가고있었다.

실험공들은 맥을 놓고 앉아들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경은 다급하게 물었다.

《실장동무가 와서 그만두라고 했어요.》

《수옥이가?!》

《예. 방금전에 도착한가봐요.》

실험공은 출고증쪽지를 그대로 내밀었다.

《어머니도 이 첨가제를 내주지 않아요.》

《뭐라구?!》

예경은 대뜸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그것도 수옥의 작간이 분명하였다. 의도적이고 주도세밀한 방해였다. 아무리 원칙을 세운다고 해도 나에게 대하여 이럴수 있단말인가. 너무했다. 억울하고 분하고 패씹스러웠다. 그는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헤맨다는걸 그래 모른단말인가. 순간 예경에게 방금전 축하를 보내던 눈길이며 미안해하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또다시 닥쳐올 비난들, 그들은 마치 기다리기나 했던것처럼 《그러면 그럴테지.》 하고 비웃음을 칠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는 미룰수 없다. 예경은 분명히 마음을 사려먹었다.

(수옥이 네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 나 역시 실장으로서의 네 체면을 지켜줄 필요가 뭐냐.)

그는 실험공들에게 다시 준비를 서둘도록 이르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김석례는 출고증을 내놓는 딸을 엄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수옥의 췌기가 단단히 박혔구나.)

《어머니, 이건 수옥이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라 제 권한에 속한 문제예요.》

《뭐라구?! 누가 네게 그런 권한을 주더냐? 어머니야, 아니면 이 공장이나?》

어머니의 기상은 무서웠다.

예경은 어머니의 눈길을 피하며 불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절보고 뭐라는지 알거나 하세요, 제



체면두 좀 봐야 할게 아니예요?)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는군.》 어머니는 두말없이 출고증을 집어 북 찢더니 휴지통에 밀어넣었다. 예경은 억이 막히고 눈물이 왈칵 솟았다.

그는 목이 메여 부르짖었다.

《어머닌 대체 누구 어머니예요.》

《이 어미도 어미 구실을 잘못했는가부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엔 서글픔이 배어나왔다.

그는 낯색을 고치며 타이르듯 말을 이었다.

《너하구 함께자란 수옥일 보렴, 그 앤 이번 출장길에 네가 연구하는 그 풀에 제일 값높고도 적중한게 저 특수촉매제라는걸 알아내고 그걸 구해오느라고 무진애를 쓴것 같더라...》

《?...》

예경은 창황중에 어머니가 가리키는 구석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직 포장을 풀지 않은 초롱비슷한 낯선 물건이 놓여있었다.

전번날 수옥이가 무슨 촉매제에 대해 말하던것이 떠올랐다.

《갓던 일이 다 잘됐느냐는 물음에 대답을 피하는걸 보니 제 론문에 대한 불일은 보지도 못한것 같더라. 제 론문은 바쁘지 않다면서 <○>풀을 해결할수 있게 된게 제일 큰일이라면서 여간 좋아하지 않더라.》

(그럼 나때문에 출장기일이 늦어졌단말인가?!)

예경은 어머니를 마주 보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어머니의 말마디들은 웅켜진 그의 마음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방금전까지도 수옥이를 원망하고 질시한 자신이 너무도 저속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매를 들었다.

《헌데 넌 뭐냐. 앉은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손쉽게 해보자는게지 나라의 리익이야 어떻게 되든지 제 체면이나 세워보자는게 아니냐.》

예경은 더 어머니앞에 서있을수 없어 급히 문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문턱에서 무춤 벗어섰다. 뜻밖에도 거기엔 수옥이가 서있었다.

피로가 가득한 눈이며 목깃이 검스레해진 흰부라우스가 렬차에서 지친사람 그대로를 말해주었다.

예경은 그를 마주보지 못하고 당황히 눈길을 허둥거렸다.

《예경이, 나 좀 보자.》

수옥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위엄이 있었다.

수옥은 구내와 좀 떨어진 공원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경은 따라와섰다. 그들은 짙레닝쿨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흰나비들이 내려앉은듯이 하얀꽃으로 뒤덮인 네쿨은 구름처럼 몽그러졌다.

수옥이 힘들게 입을 열었다.

《물론 지금 네 처지가 괴로울수는 있어. 하지만 어떻게 공장의 귀한 약재를 제 얼굴과 바꿀수있겠니.그게 그래 진정한 네 체면이겠니. 너에겐 아무것두 없는것같애. 사회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려는 꿈도, 능력도, 헌신성도 다 없어. 다만 서푼짜리 자존심이 있을뿐이야.》

수옥은 제가슴이 아픈듯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 자존심때문에 어머니앞에서까지 행패지. 뭐 <어머닌 누구의 어머니냐>구? 나는 너에게 묻고싶다. <넌 누구의 딸이냐?>고...》

수옥의 목소리는 점차 격해졌다.

머리우에서 흐느적거리는 은백양나무잎들이 나란히 놓인 두 너자의 발등우에서 어롱어롱 그림자를 그렸다.

《어머니는 공장창고에 일생을 바쳐가는 주인이구 너는 그 주인의 딸이란말이다.》

어머니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예경이도 잘 안다. 공장복구건설시기부터 자재창고를 맡아보는 어머니에게는 그 엄격성과 주인다운 자세로 하여 《살림군》이라는 존칭이 붙어온다.

그러한 어머니를 존경하는 예경이었지만 그 모든것이 자기에게만은 레외로 되기를 바랐던것이다.

어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은백양잎새들이 가볍게 살랑대고 새들이 우짖었다.

수옥의 목소리가 다시 울린다.

《난 네가 이럴줄은 몰랐어.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썸한걸 못할게 뭐냐. 너야 원래 머리두 쫄구 총명한 최우등생이 아니었니. 넌 지금 근심걱정없는 오늘의 생활에 기술자의 본분두 사람의 가치도 다 집어던졌어.》

살랑대던 나무잎도, 지저귀던 새들도 별안간 조용해졌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듯이...

《내가 끝까지 너에게 그 연구파제를 맡겨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한것은 너자신을 위 한것이였어. 오늘의 행복에 하루하루를 맹목적으로 살아가려는 너를 건져주고싶었어. 너의 성과가 <80년대속도>창조어로 달리는 우리 화학공업에 조금이라도 빛을 더해준다면 그것이 너의 보람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겠니.》

수옥의 검은 눈엔 말보다 더 절절한 진정이 배어있었다.

예경은 점점 더 머리를 떨어뜨렸다. 수옥을 마조보기가 부끄러웠다.

나는 기술적으로도 아득히 떨어졌지만 정신도 덕적으로도 패한 녀자다. 진정으로 동무를 위해 애쓰는 수옥을 대하는 나의 립장과 감정은 어떠했는가.

가장 유치하고 속되며 저속한 감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인간적면모이고 정신적품모가 아닌가.

수옥은 명상에 잠겨 합성탑들이 우뚝우뚝 솟은 구내 저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가 무슨 큰일이야 하겠니 생각하지만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십년이 지난 래일, 흘러간 일생을 돌이켜보며 덧없이 허송해버린 한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도 새로 무엇이건 성취하려는 열망속에 자기를 불태워야 할 게 아니냐. 후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구내를 걸으면서도 <저 탑속에 엄마의 땀방울도 맥맥히 흐르고 있다>고 주저없이 말할수 있게말이다.》

다시 바람이 일었다. 와스스 나무잎이 설레인다. 은백양잎사이로 떨어지는 우수한 햇빛조각들이 땅우에서, 두너자의 무릎우에서 자유로이 뛰논다.

푸르릉... 푸르릉... 새들이 날고 짙레꽃향기가 그윽히 풍겨왔다.

## 5

수옥이가 구해온 촉매제로 《○》화합물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 하지만 예경은 마음이 가볍지 못했다. 윤아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가는 그는 땅만 보며 길옆으로 걸었다.

아이들의 손들을 잡은 낯익은 혁신자들, 로력영웅들이 다가오고 지나간다. 그들은 끝없이 아이들과 《이야기》하였다.

《야! 엄마 이름.》

윤아만한 처녀애가 길옆의 속보판앞으로 엄마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하, 엄마사진...!》

제집에는 환성을 올렸고 젊은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속보와 딸을 번갈아보며 활짝 웃고있었다.

예경은 어느때없이 이길에서 만나는 그들이 부러웠다. 그러나 그들을 쳐다볼수가 없었다. 조소나 동정의 눈길들이 자기에게로 쏠릴것만 같아

저어되었다.

그는 여전히 발끝만 보며 걸었다.

저 영웅들과 혁신자들이 소성로며 압출기앞에서 뜨거운 마음과 구슬땀을 바칠 때, 과학의 열매로 기계화, 자동화가 펼쳐지고 전진하는 시대와 함께 수많은 수옥이들이 자라날 때 나는 실험실을 생활의 안식처로 여겨왔다. 실험실은 가정생활을 위해서도 언제나 바쁜 생산현장보다 편리했고 지식인집단인만큼 사회적평가와 인식도 괜찮았다.

그는 남편직장이나 아이들의 학교에 전화를 거는때도 기술과 기술준비실 아무개라는 말을 즐겨쓰곤하였다.

예경은 지나온 경험에서 터득된 미립으로 현행 기술준비를 무리없이 선행하는것으로 만족했고 가정의 현대적가구들과 식구들의 고상하고 화려한 류행복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였다....

《엄마!》

별안간 윤아가 달려나왔다.

예경은 유치원마당어귀에 들어섰던것이다. 윤아는 예경의 손에 매달려 고개를 째긋이 젖히고 재잘거렸다.

《야- 좋네.》

《뭘가 좋냐?》

《엄마가 왔으니까.》

예경은 서글픈 미소를 머금고 딸애를 이윽도록 내려다보았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변함없이 반갑게 맞아주는게 딸애구나 하는 애뜻한 감정이 솟았다.

(그런데 난 너한테 《자랑하고》 《이야기할것》이 없구나.)

예경은 문득 새로운 발견에 소스라쳐놀랐다.

30년이나 되는 자기의 생활이 어쩌서 어제나 오늘뿐인것처럼 짧게 생각되었는가를 깨달았던것이다.그것은 마치 하마게 잊어버렸던 생각이 때아닌 때 불쑥 떠오르듯이 별안간에 찾아들었다.

예경의 생활, 그것은 하루하루가 일신의 행복과 안녕으로 이어졌다. 그 《누구》를 위하여, 그 《무엇》을 위하여 가슴을 불태운적도 헌신한적도 없었다.

예경이가 살아온 30여년은 격동적인 사변들과 장엄한 진군으로 엮어진 가장 빛나는 시대였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 살아왔건만 예경의 자취는 그처럼 아리송하니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짚아보이는것이 아닌가.... 슬픈 일이었다.

《엄마, 빨리 가자!》

멍청히 서있는 예경을 딸애가 잡아끌었다.

(그래 가마. 먼후날에라도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게 하는 그 길로 가마!)

언젠가 꿀벌이 애타게 봉봉거리던 수옥의 방이다. 꿀벌은 멀리 꽃밭에서 날고 봉봉소리는 다시 들리지않았다. 마음과 마음을 불안스레 가로막던 투명체의 간벽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예경은 정겹게 수옥을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계시겠대.》

《그건 왜?》

《나때문이지뵤. <내가 너를 잘못 키웠으니 아무래도 네 시중을 더해야겠는가부다, 공부두 하구. 정신을 차려라.> 이러시지 않겠니?》

《그래서?》

《그래서 나두 결심을 했어. 너처럼...》

《아이구 고작?》

수옥은 기쁨을 감추며 비웃는 시늉을 했으나 예경은 개의치 않았다.

《그리구 공장대학에도 입학할가 해.》

《정말!?》

《너무 늦었지.》

《늦지 않았어. 늦게 피는 꽃이 더 희귀하고 아

름다울수도 있지.》

수옥의 눈에선 기쁨이 흘러넘쳤다.

《저- 내가 네게 진 <빛>이 있지, 학생시절에 말이다. 이번에 내가 그걸 물어주겠어. <리자>까지 후히 붙여서말이다.》

수옥은 보기도물게 명랑한 표정을 짓고 소리내여 웃었다.

×

쑥국화가 한창인 가을날이다.

자주색, 노란색, 보라빛의 꽃무더기들이 독특한 향기를 풍기며 설레인다. 다투어 움트는 봄날에도 저마다 꽃피는 여름철에도 한잠에 취해있던 쑥국화가 가을의 향취를 위해서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활짝 폈다. 책가방을 든 예경은 꽃송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볍게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처녀시절처럼 젊어진다고들 했다. 예경은 생기에 빛나는 눈길로 시내 저쪽 백화점지붕을 바라보았다.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화학공업 상품들로 그 지붕아래 매대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였다.

## 가사

### 삼지연의 붓나무

윤경남

조국의 맑은 호수 삼지연못가에  
정답게 설레는 한그루 붓나무야  
항일의 불비 뿜고 수령님 오셨던  
그날을 못잊어 오늘도 설레네

백두의 슬기어린 삼지연못가에  
끝없이 설레는 한그루 붓나무야  
수령님 오시여 기념사진 찍으신  
그날을 못잊어 오늘도 설레네

언제나 아름다운 삼지연못가에  
속삭여 설레는 한그루 붓나무야  
찾아오는 사람들 가슴마다에  
영광의 노래를 안기여주네

아 붓나무 삼지연의 붓나무  
혁명의 성지에 높이 솟아 설레라

### 검덕이여 우리 가는 길은

윤두만

걸어가는 길이건만  
어찌하여 우리 가슴  
피어나는 저 새벽노을처럼  
이리도 불타는것이나

교대시간도 못참아  
앞을 다투어 달려온 뜨거운 숨결들  
사랑의 인차에 실려  
막장으로 마음 앞서 달리는  
이 길

아버이수령님  
수십리 갯도길을 내려오시여  
석수에 젖은 광부들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날의 감격 아직도 젖어있고  
당의 빛발 비쳐온 그날의 영광  
못잊어 전설로 전하는 막장길

아. 이 길우에서 우리 또다시  
또다시 받아안았구나. 검덕이여  
사랑우에 더 큰 사랑  
믿음우에 더 큰 믿음을

전진하는 공업  
대건설전선의 맨 앞장에  
검덕의 로동계급을 다시금 불러주시며  
150만톤 유색금속고지점령의  
돌격선에 내세워준  
력사적인 함흥전원회의!

그 믿음 안았기에  
가슴에 끓는 계급의 충성의 열정  
노을로 피여 하늘은 거리도 불타고  
그 사랑 안았기에  
착암기의 진동에도 드놀지 않던  
광부들의 무죄가슴  
이렇듯 들먹이는것인가

아. 이 땅이 생겨 수억만년  
지심깊이 잠자던 무진장한 보물이  
당의 빛나는 예지의 빛발안고  
우리 세대에 솟아 빛을 뿌리리니

우리 가는 이 길은  
이미 당이 열어준 길  
당의 의지로 숨쉬며 가는 길이기에  
더 깊이  
더 멀리  
마지막 광맥 한줄기까지 다 찾아  
끝없이 가야 할 길이어라

저 북대천 흐름이 마른다 해도  
쇠돌폭포의 흐름을 우리 멈추랴  
저 하늘의 퇴성이 사라진다 해도  
대공발파의 힘찬 메아리 한시인들 멈추랴

수령님 바라심이라면  
당의 부름이라면  
주저도 멈춤도  
한치의 드림도 모르는  
우리의 신념

이 신념 불타며 들끓는  
오늘의 이 하루하루  
우리 당의 력사에 위훈으로 새겨져  
80년대의 조국은 더욱 빛나리니

아, 우리 영원히 이 길을 걸으리  
수령님을 받드는  
천길 지심속 억센 기둥이 되고  
한마음 당을 따르는  
지하의 별이 되여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바쳐가리니

검덕이여  
날에 날마다  
더 깊이  
더 멀리  
우리 가는 길은  
마천령 지심깊이 내려가도

이 길은  
조국의 위력 온 누리에 떨치며  
당이 부르는 주체의 새세계  
세기의 령마루로 높이 오르는  
보람찬 진군길이다

# 나의 기쁨

김병두

돌물이 흐른다

돌물이 흐른다

팔팔 쏟아지며 백광을 뿌리며

류출구에서 돌물이 흐른다

카바이트로 지켜선 날더러

기쁨과 긍지를 느끼라고

주홍빛 돌물이 흘러흘러

쇠남비에 철철 차고넘친다

말해보자 전기로야!

청춘의 한시절을 함께 보낸

너와 나만이 아는

그런말 불같은 말로!

내 가슴에 끓는 피

네 가슴의 불이 되어 끓이고

끓인 저 돌물이

하얀 비날론솜, 모비론솜이 되어

구름처럼 쏟아지고

인민의 기쁨이 되어

이 강산에 꽃물결로 흐르나니

아 돌물이 끓어야

인민생활이 더 활짝 꽃핀다고

우리 수령님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실 때

돌물은 더 끓고

내 마음도 더 끓고

그래서 전기로야

사람들이 새옷을 입고

젊어진 얼굴로 거울앞에서 옷을 때

나는 수천도의 불을 뿜는 네 앞에서

잘 익은 돌물을 보며 웃었고

내 바라는대로

또 한가마 펄펄 끓는 돌물을 쏟아낼 때

꽃신을 신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비껴내리고

모비론 이불을 쓰다듬으며 좋아하는

너인들의 얼굴이 어려오는

기쁨의 돌물 행복의 돌물

아 나날이 밝아지는 거리

웃음꽃 피어나고 기쁨에 넘친 사람들이

조국앞에 언제나 불을 안고 사는

카바이트 전로공을 미처 생각 못해도

수령님과 당중앙의 바라심대로

더 많은 돌물폭포 쏟아내는 이런 순간이

전기로야! 나는 제일 기쁘더라

내가 끓으며

내가 끓으며

온 강산에 넘치는 그 기쁨 그 웃음

내 한품에 다 안고 살기에

## 번영하라 나의 해변도시여

장호건

### 귀향

얼마만이냐  
그리웁던 조국의 해변도시여  
내 먼먼 항해의 나날  
출렁이는 금빛과도 넘어  
눈시울 뜨거이 그려보던곳이여

너는 지금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맞아주는구나  
반겨 달려나오는  
내 안해와 내 어린것들의  
티없이 맑고 따사로운 행복한 미소처럼...

아 사랑하는 나의 해변도시여  
꿈결에도 그리워 안아보던 이 마음  
뜨거이 뜨거이 끌어안는다  
한껏 팔벌려 설레이는  
너의 그 푸른 가로수들을...  
창공에 나래편 낮익은 극장들과  
내 학창시절 꿈이 어린 저 대학정문 기둥을...

거리도 시원히 뻗은 유리선거리  
활개쳐 오가는 사람들 그 누구라없이  
끌어안고 두볼을 비벼주고싶다  
기적소리 높이  
항구내로 들어서서는 저 육중한 기관차조차...

내 아직 어릴적  
맨발로 조개잡이 나갔다가  
껍질에 발이 찢려 울던곳마저  
남긴 추억이 소중한  
그리도 못견디게 그리워했던가

사랑했구나 너와 나는  
떨어져 살수 없는 혈육처럼  
그래서 너는  
머나먼 대륙 한끝을 에돌 때도  
나의 심장속에  
나와 함께 언제나 나란히 있었구나

아 나서자란 푸른 도시, 푸른 거리여

너는 정녕  
멀리 갈수록 더 가까이 안겨오던  
조국의 얼굴  
너없이 는 못살겠더라  
너없이 는 진정 못살겠더라

하기에 내 또다시  
출항의 닻을 올려  
멀고먼 해외만리 그 어디로 가든지  
너는 영원히 내 심장속에 있으리  
나는 영원히 네 품속에 있으리

### 달밝은 정양소의 밤에

달빛이 흘러내린다  
고요히 달빛이 비껴내린다 포근히...

살툰이 이 몸을 어루만지는  
은은한 달빛  
머나먼 항해길에 지쳤겠다고

정겨이 감싸주는 조국의 달빛

오히려 건강하여 돌아왔건만  
첫애기를 품안은 어머니인양  
사랑의 요람  
정양소로 나를 또 불러준 조국

어쩌면 저 달도  
항해사 이 아들을 안아주고싶어선가

내 지구우의 하많은 나라  
다 돌아보았어도  
정녕 그 어느 기슭에서 해구에서  
이처럼 부드럽고 아늑한  
미소어린 달빛을 받아본적 있었던가

달아  
내 누이처럼 다정히 웃는  
조국의 둥근달아  
너의 손길  
내 천리 먼곳에 간들 잊을소나

만리 타국에 간들 잊을소나

내 지금 너의 살뜰하고 부드러움에  
이처럼 목메여하면서도  
네 빛이 정녕 조국의 사랑으로 된  
그 뜨거움 다 헤아리기는 쉽게 앓구나

그래도 하나만은  
내 걱정애 넘쳐 웨치노니  
조국은 달빛도  
은혜론 어버이사랑이여라

아 그 달빛이 흘러내린다 이 가슴에...  
그 달빛이 비껴내린다 이 강산에...

## 행복의 섬

인사를 받아다오 꽃피는 와우도여  
내 지금  
처녀처럼 수집어진 안해와 나란히  
제 아이들 앞세우고  
너를 찾아왔다

반갑다  
벼랑가에 솟아  
우리를 부르는 정각이여  
방금 물속에서 머리 내민듯  
눈부시게 말쑥한  
아담한 휴양소여 국수집이여

그저 좋아라  
흰모래 부드러운 수영장으로 내달는  
철없는 어린것들을 바라보며  
안해와 나  
배놀이터 뽀트에 올라  
노를 저으며 마주웃나니

버들가지 휘늘어진 낚시터를 에돌아  
물위에 실려  
물위에 비낀 꽃구름에 실려  
우리는 지금  
그 어디로 흘러가는가  
  
노를 젓는 내앞에

마주앉은 안해는 모를수도 있으리  
예가 바로 내 어린시절  
해종일 감탕속을 헤매며  
주머니가 불룩하도록  
갈계들을 잡아넣던곳인줄...

샘솟는 기쁨  
홍조어린 두볼에 미소를 함뱉 담고  
안해가 떠보는 저 푸른 물도  
지난 세월엔  
썰물에 밀물에 무료로 부대끼던  
버림받은 서해의 슬픔이더니

그날은 언제였던가  
꽃같이 웃음지으며  
기쁨에 설레는 작은 가슴  
발을 돈우며 돈우며  
저기 와우봉으로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던 그날은...

누를길 없는 환희에 싸여  
파도도 끝없이 설레이던 그날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요  
썰물 때에는 반도라  
이 아니 절승인가고  
어버이수령님  
친히 정하여주신 인민의 유원지

그 사랑 그 해빛아래  
 꽃피여 설레이는 새해의 명승  
 찾아오는 사람들 그칠새 없는  
 행복의 섬  
 락원의 섬  
 기쁨의 섬이어

내 지금  
 복받은 가족과 함께  
 네 품에 기쁨을 즐기는가  
 아 한없이 은혜론 수령님 품에  
 너도 우리도  
 웃으며 설레이며 행복의 눈물을 짓는구나

## 또다시 출항

또다시 출항  
 작별의 배고동 길게 울리며  
 인사를 보낸다  
 싱싱한 힘 가득차 넘치는  
 사랑하는 나의 해변도시여

잘 있으라  
 나에게  
 희망과 공지와 열정을 더하여준  
 거리여 대학이여 청춘들의 속삭임이여  
 손풍금소리 경쾌히 울려 퍼지던  
 유보도와 공원이여 너도 잘 있으라

잠시후면 네 기슭을 떠나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발을 날리며  
 인디아양을 항행할 저 《순천》호도  
 내렸던 큰 닻을 들어올린다  
 다투듯 자행부선들이 내닫는  
 저기 2호부두에서도  
 대형기중기들이 마지막 짐을 싣는다

어서 떠나라고  
 사령실우의 국제기류신포탑은  
 즐거운 패청을 알리는데  
 그래도 떠나기 아쉬워  
 외국선원들은 갑판우에서 손만 흔든다  
 빠나마 상선 《루나》호에서도  
 회람 선박 《메갈루크》호에서도...

아 세계가 들어오고  
 세계가 떠나가는듯  
 대양의 갈래많은 배길들이  
 여기로 다 모여오고  
 여기서 친선과 단결의 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안고가거니

영광의 도시여  
 기쁨과 희망과 환희로 빛나는  
 조국의 모습이어  
 내 몸바쳐 너를 빛내일줄 모른다면  
 어찌 내 안해와 어린것들이 미소짓는  
 내 품으로 머리들고 들어설수 있으랴

잘 있으라 잘 있으라  
 누리에 빛나는  
 위대한 조국  
 향도의 해빛아래  
 끝없이 번영하는 수도관문도시여

몸은 비록 네 기슭을 떠나가도  
 마음은 내 품에 고이 두고 가나니  
 내 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빛발 찬연히 안겨주고  
 돌아오리라  
 어머니품에 안기는 어린애처럼  
 돌아와 네 품에 온몸을 맡기리라



## 가꾸는 마음

김명희

지웅섭은 작업반실의 사무탁에 마주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한참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의 향기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불빛이 내비치는 창문너머로부터 끝없이 뻗어간 포전에서는 어병진 어린애를 입고 모여선 어머니들마냥 팔뚝같은 이삭들을 허리에 엮은 탐스러운 강냉이그루들이 빼곡이 들어서서 와스스 설렁대고있었다.

어스레한 달빛이 내려앉은 부드러운 대지에서 수선거리는 그 강냉이들은 지금 그에게 땅에 대한 어떤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도 속살거리는듯싶었다.

40을 갓 넘은 지웅섭에게는 《땅은 속이지 못한다. 땅은 가장 공명정대한 말없는 심판관이다.》, 《부지런한 농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이러루한 농사철리의 좌우명들이 수없이 많다. 그것은 흙에 절은 그의 생활이 가져다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재부이다. 하여 저렇게 무성한 강냉이밭을 바라보느라니 지웅섭은 생활속에서 찾은 그런 진리들이 백년 옳은것이라고 믿어졌다.

그는 문득 옆벽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신문을 오려붙인 속보판이 걸려있었는데 그 신문에도 엄창숙의 성미처럼 활달하고 기백이 넘치는 필치로 《땅은 땀을 들인것만큼 대가를 치러준다!》라고 쓴 기사의 내용이 실려있다. 붉은 연필로 테두리까지 쳐놓은 그 신문기사는 반년전 이 작업반청년분조에 지원나온 엄창숙이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것이었다.

지웅섭은 움쭉 일어나서 돋보기를 끼며 벽 밑에 다다갔다. 부단한 활동력을 가진 생명체마냥 조그마한 까만 글자들이 자랑스럽게 뛰노는 신문기사의 한 귀퉁이에서 랑볼이 오동통한 처녀가 자기를 향하여 방긋이 웃고있었다. 엄창숙은 금시 신문속에서 뛰어나와 그 생글거리는 특징적인 얼굴로 웅섭에게 《반장동지, 오늘저녁엔 무슨 일을 할가요?》 하고 묻는듯싶었다.

지웅섭자신이 정성스레 오려붙인 이 신문기사는 벌써 보름째나 여기에 걸려있는데 웅섭은 이젠 그 기사의 내용을 뜯금으로도 외울 정도였다.

확실히 그 신문은 비단 엄창숙에게만이 아니라 청년분조와 온 작업반의 자랑이며 작업반을 책임진 자기의 자랑이었다. 기실 자기네 작업반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이렇게 신문반면이 차고넘치도록 대서특필로 소개된적이 언제 있었던가!

지웅섭은 정겨운 눈에 창숙을 그려보며 마음속

으로 그의 둥그스름한 등어깨를 몇번이고 다독여 주었다.

《참말 호박이 넝쿨채로 굴러들었다니까!... 더 두말고 이런 사로청원이 한개 분조에 세명씩만 왔어도 이 지웅섭이 해마다 장훈을 부르겠는데.》

하고 웅얼거리던 웅섭은 문득 창숙의 부모들은 지금 얼마나 기뻐하랴 싶어 창문밖 멀리를 실눈으로 내다보았다. 우리 딸이 신문에 났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나르며 다닐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졌다. 그러자 지웅섭은 건설장에 나가있는 아들의 생각이 슬그머니 떠올라 지금껏 밝아졌던 얼굴에 그들이 스치었다. 돌격대일에 성실치 못하다고 언젠가 그곳 사로청조직으로부터 청원장비 비슷한 편지가 날아오게 한 아들이었다. 하나 지웅섭은 인차 그들을 지워버리며 그런 편지를 날린 일꾼이 옆에 있더라도 한듯 이렇게 말했다.

《그게 덩치는 크다 해도 이제 겨우 열여섯해났소... 지내보게나. 강철같은 돌격대규률에 쪼들고 사회물정에 눈을 뜨면 도섭스레 부모가 간참하지 않아도 스스로 창숙이처럼 훌륭한 인간이 될거네.》

웅섭은 그전날 말썽부리는 어린 아들녀석의 버릇을 고쳐주라고 옆에서 안해가 바가지를 긁을때마다 《가만 팽개쳐두라구. 그게 이제 사람질하는 걸 보우. 아이뎌 그렇게 어디나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재구도 더러 쳐야 사람이 되는 법이요. 대도 군세여지구.》하고 일축해버리곤했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사실상 그는 작업반의 어느 포전에 간혹 조그마한 흠이 생기면 마치 제 얼굴의 어떤 흠집이라도 드러난것 같아 필필 뛰어돌아갔지만 자식들의 일로 해서는 얼굴한번 붉혀본 적이 없었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웅섭은 상념에서 깨었다. 그는 실무적인 어조로 《예, 들어오시오.》하고 문쪽을 바라보았다.

재질이 무른것같으면서도 질기고 가벼운 피나무문이 무겁게 열리더니 배낭을 진 늙은이가 장대한 체구를 구부정하고 방안에 들어섰다. 그는 모자를 벗어두고 기름한 얼굴에 관꼴이 불거진 위엄차보이는 그 표상과는 달리 약간 떨리는듯한 음성으로 공손히 물었다.

《저, 반장동무십니까?》

웅섭은 반사적으로 돋보기를 벗어두고 몸을 돌이키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끈이 두어깨를 깊숙이 파고든 배낭을 벗어서 문옆의

긴의자우에 내려놓고 들어오던 때와는 다른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봉천란팡에서 왔수다. 엄학진이라구. 저...》

《그렇습니까?! 오시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웅섭은 그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자자리가 난 반백의 머리칼밑으로는 비지땀이 흘러내려 순수하고 검스레한 얼굴을 화락하니 적시였다. 웅섭은 《먼길을 오셨군요!》 하고 덧붙이며 의자를 들어다 권했다. 엄학진은 의자를 잡고 그제야 방안을 휘 살피었다. 벽에 붙은 경쟁도표며 작물병생육상태에 관한 걸그림, 기술도해들을 더듬던 그는 웅일인지 붉은 테두리를 친 신문기사를 보자 보지 말았어야 할것을 본때처럼 인차 외면해버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허리춤에서 수건을 뽑아쥐고 얼굴과 목덜미를 닦았다. 지웅섭은 그가 땀을 씻는 사이 깍지낀 두손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지원로력은 아닐텐데. 아직 가을건이전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무엇때문에 왔는가?)

그의 거동에서 이런 의문을 읽었던지 엄학진은 수건을 접어쥐고 마치 건드리기 두려운 어떤 물건에 손을 대기라도 하듯 주저하며 말했다.

《저, 여기에 엄창숙이라구 와있지요.》

그러자 지웅섭은 엄학진이라던 그 성씨와 봉천팡산이라던 말이 얼핏 떠올라 호기심을 띠고 물었다.

《그러면 혹시 엄창숙동무와 어떻게 되시는?...》

엄학진은 면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바루 그 애 애빔니다. 어린걸 보내놓고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지웅섭은 소란스럽게 의자소리를 내며 움쭉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시금 엄학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기였다.

《이거 참 반갑습니다. 그런줄 모르고 전... 정말 먼길에 수고 많았겠습니다!》

엄학진은 사뭇 미안쩍은 어조로 사과하듯 말했다.

《그 철없는게 반장동무에게 걱정인들 얼마나 끼치겠습니까. 먹은 나이는 인젠 스물둘이여도 아직은 영 썬판을 모릅니다. 막내라구 웅석반이로만 키워와서...》

《천만에요 .령감님은 참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그야말로 창숙인 진짜배기 농촌지원잡니다.》

하고 웅섭은 팡포를 줌 놓으며 으쓱으쓱 걸어가서 벽에 붙은 신문기사를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이걸 보십시오! 창숙이가 도일보에 났습니다!》

그는 도일보라는 말에 각별히 힘을 넣었다. 그의 손길을 따라 눈길을 돌리던 엄학진은 불그레해지는 얼굴을 들고 웅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 그랬더구만... 그제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다구. 반장동무랑 옆에서들 걱정해준 덕이겠지요!》

지웅섭은 그 말이 내심 싫지 않으면서도 점잖게 대답했다.

《웁걸요. 다 본인에게 달려있는겁니다. 옆에서들 아무리 부추겨주어도 본바탕이 기장자루같은 건 어쩔수 없습니다.》

엄학진은 그 말이 수궁되어서인지 아니면 너무도 한심해서인지 허허 웃기만하였다. 지웅섭은 그 웃음을 마치 생활의 법칙과도 같은 자기말에 대한 탄복으로 만족스럽게 해석하면서 그에게 어서 기쁜 순간을 마련해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탁자 한끝에 놓인 모자를 닦고 집어다 젊은이들처럼 운두를 높여서 머리우에 건뜻하게 얹었다.

《인젠 우리 보배를 만나보셔야지요. 짐작컨데 따님이 대견해서 칭찬하러 오신것 같은데!》

엄학진은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지웅섭을 주시했다. 지웅섭의 말이 귀에 잘 담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어이없이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허허, 할 일이 없어 별다른 일을 가지구 칭찬하러나 다니겠수? 신문을 보고 온건 사실입니다만.》

《?...》

지웅섭은 자못 놀랐다. 엄학진의 말을 일별해보면 신문기사를 보고 기뻐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원인으로 왔다는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보니 방안에 들어서던 때로부터 그의 모든 언행과 표정이 지웅섭이 생각한바와는 확실히 다르고 아리송했다.

기실 지웅섭은 신문기사이야기를 꺼내면 엄학진이 무척 반가와할줄로 알았던것이다.

지웅섭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다시금 돋보기를 끼고 벽에 마주서서 글줄을 더듬었다.

...농사물계를 익히기 위한 엄창숙동무의 숨은 노력... 농촌에 파견된뒤 2개월만에 트랙트운전 기술을 소유... 누구도 몰래 보름동안 밤을 패며 포전에 실어나른 두엄을 까뒤집어서 봄씨불임을 다그치고... 매일 자기 계획을 2배이상 넘쳐수행하는 청년분조의 모범...

아무리 훑어보아도 만년필로 밑줄을 쳐놓은 글줄들은 어느 하나도 웅섭의 눈에 거슬리는것이 없었다. 거슬리기는커녕 그 매 글자들이 엄창숙의 눈망울처럼 또글또글한것이 볼수록 정겹기만 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글줄들에서 늙은이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그로 하여금 이렇듯 먼길을 찾아오게 하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그 의도를 알수 없었다.

엄학진은 그를 흘끔 돌아보더니 호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며 뜨직이 말했다.

《허허. 뭘 그리 뿔어지게 보슈? 난 그저 그걸 읽어보구 가가 뭘 좀 잘못 생각하는게 있는것같아서 왔는데... 애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것 같기두 하구요.》

그 말에 지웅섭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대범하게 웃으며 의자에 몸을 제끼고 앉았다.

《그렇다면 걱정을 놓으시오. 그런 딸을 내놓고 뭐가 안심잖아 그러십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웅섭은 언젠가 범같은 아버지라던 창숙의 말이 불쑥 떠올라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음. 이 령감이 원두막단속을 와가지구 강낭밭 김을 매는척하는군.)

지웅섭은 창숙이의 사람됨됨이 하도 착실하고 탐나더라니 그를 지원기간이 끝나뒤에도 그냥 작업반에 붙들어둘 욕심으로 은근히 속심을 한번 비쳐본바 있었다.

《청년분조장이 사람은 진국이야. 인물 잘나구 똑똑하구. 일잘하기로도 농장안에서 첫손에 꼽히지. 내 작업반장 수십년에 술한 청년들을 데리고 일해왔지만 그런 청년은 처음 보았다니까!... 래 후년쯤은 한창 좋은 때인데 어떡한다?...》

창숙이의 하숙집사이 문턱에 걸터앉아서 한 지웅섭의 그 말에 만만치 않은 하숙집로친네가 면박을 주었다.

《헤이구, 령체도 좋수다. 우리 셋째가 이태후에는 제대된다우!》

청년분조장이든, 하숙집셋째든 지웅섭에게는 마찬가지였지만 창숙에게 진작부터 영원히 이 작업반사람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똑똑히 주기 위하여 그는 짐짓 양보를 안했다.

《저, 저, 저것 바라. <웅>소리두 방해된다구 되는 호박에 손가락질은?...》

하숙집은 소가 밟아도 오그라지지 않을 배심으로 그냥 내뒀다.

《예, 두고봅세다나. 뉘집 부엌칸에 녁쿨채로 굴러드는 호박인가를!》

얼굴이 파리처럼 익어서 설것이를 하고 있던 창숙은 부끄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여 못들은척 하고있다가 그들의 싱갱이질이 문밖으로 새어나갈가봐 한마디 했다.

《펜히 실없는 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범같은 우리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어요.》라고 하였으니 엄학진이 그 소문을 듣고 왔을수 있으리라고 지웅섭은 생각했다.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그 소문이 날개우에 날개를 돌쳐가지고 엄학진의 귀에 가닿았을지도 모를일이였다. 하여 그는 엄학진이 엉경귀같은 눈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찔러보는것 같아 탄전을 부리며 의자에서 불쑥 일어섰다.

《시장하시겠는데 우리 집에 갑시다!》

엄학진은 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뒤따라 일어서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가가 있는 하숙집은 어렌지요? 맘먹구 온일이니 만나보구서 어떻게 해야지요.》

《아하. 제가 그만... 수개월간 떨어져있던 딸부러 만나보시는게 일이 옳지요.》

하고 지웅섭은 본능적으로 뒤더수기에 손을 가져가며 긴의자애로 갔다. 그리고는 배낭을 집어 들고 에이쿠하며 한쪽 어깨에 지었다. 그 어깨가 쳐들리면서 몸은 반대편으로 기웃해졌다. 배낭의 무게가 엄학진이 품고 온 용건의 중대성을 암시해주는것 같았다.

설것이를 하고 있던 하숙집로친네는 조석으로 허물없이 드나드는 반장이 뜻밖에도 배낭을 지고 들어서자 그걸 받으려고 물기어린 손을 툭툭 털었다. 그리고는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걸음을 옮기다가 반장의 뒤를 따라들어서는 낯선 로인을 흘끔 보고 뜨아히 멎어섰다.

지웅섭은 배낭을 부엌드렁에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혼연히 물었다.

《창숙인 어디 갔소?》

하숙집은 천연스럽게 대꾸했다.

《글쎄요. 저녁술갈을 놓기바쁘게 어디론가 나가더군요.》

《아니 주인댁이 저녁먹구 나간 사람이 어데 갔는지도 모른단말이요?》

《내가 그 일을 어찌 알겠소? 밤마다 그렇게 나갔다간 썰넉에야 돌아오군 하는걸... 반장님이 부쩍 오금에 바람을 불어넣더니 아마 일이 뜻대로 되는것 같수다.》

하숙집은 심사가 여간만 토라지지 않았다. 지웅섭은 창숙이가 빙마다 나간다는 사실과 하숙집의 비틀린 심사에 선뜻 짚이는것이 있어서 눈을 찔 흘리며 이새로 바람을 쉴 들이그었다. 창숙의 아버지가 바로 뒤에 와섰는데 범굴에 돌던지듯 무슨 말을 그렇게 망탕하느냐는 질책이였다. 영문을 알길없는 하숙집은 그 질책에 약이 올라 툭 내쏘았다.

《예, 인젠 배부르겠수다. 채 자라지도 않은 애 호박을 따게 뻤으니... 그래두 범같다는 령감이 호박녕쿨뒤에 지켜앉았다는건 명심하는게 좋겠수다.》

(차, 이렇게 눈치가 안는답 잡아먹기라구야. 그 범이 바로 여기에 뛰어들었단말이요.)

하고 속으로 나무라며 지웅섭은 사뭇 눈이 찜지게 하숙집을 흘겨보았다. 그리고는 진작 엄학진을 소개하지 못한걸 후회하며 이제라도 이 로친네에게 귀뜸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다.

《령감님, 이집이 바로 따님의 하숙집이올시다... 그 참 내가 호박지지개를 좋아한다구 저 근로녀성이 허허...》

하숙집은 금시 눈을 홑뜨며 허를 쑥 내보냈다. 따님이라니? 그러면?... 아이쿠! 이걸 어쩔다. 그러나 너스레가 보통이 아닌 그는 그썸한 일에 주눅이들 성미가 아니었다. 그는 창황중에도 엄학진의 눈에 무뎠던 시어머니감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까지를 하며 입심을 부렸다.

《아유! 창숙이 아버지신걸 모르구... 우리 반장님이야 호박지지개나 좋아했지 인사법절이사 안다구요... 어서 올라가세요. 집은 루추하지만 창숙인 이 집에 정이 폭 든대요.》

하숙집은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지 않은 응섭반장을 탓하기도 하고 창숙인 이 집에 정이 폭 들어한다고 엄학진에게 암시의 공을 던지고선 그 반응을 응시하기도 하면서 정지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먼지하나없이 알른알른한 장판바닥에 괜히 물걸레질을 한다, 엄살을 넣어서 예구에구하며 배낭을 들여간다 하고 부산을 떨었다.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은것같은 그와 반장사이에 끼여든 엄학진은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엉터리속에 구렁이를 담넌기듯 넘기려는 《애호박의 비밀》은 곧 현실로 꿰어맨 자루에서처럼 엄학진의 눈에 실밥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검색채지 못한척 했다. 지웅섭은 청년분조장의 얼굴을 그려보며 마치 큰일이라도 해 놓은듯이 나오지도 않은 배를 쑥 내밀고 허리를 꼭 길었다.

(밤마다라 음, 그 녀석이 이제야 대장부구실을 하나보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만약 엄학진이 검색을 쟤다면 난처해할것을 고려하여 왕청같은 발이랑을 허비였다.

《허허, 창숙이가 신문에랑 나더니 더구나 극성을 부립니다그러! 또 어데 일감이 있어서 나갔나본데 내가 나가서 제격 데려오리다. 어힘!》

그는 날개라도 돋친듯 곧바로 청년분조장네 집으로 향했다. 그 집에 가야 두사람의 행처를 쉽게 알수 있을것 같았다.

(이 직심한것들아, ...범이 왔다. 범이!)

하지만 청년분조장은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응섭은 열어놓은 창문으로 그를 민망스럽게 들여다보며 창숙이가 어데 있느냐고 불이 부어서 물었다. 분조장은 숟가락을 든채 엉거주춤 일어섰다.

《하숙집에 있을텐데요.》

《얘기 사람두, 대장분줄 알았더니 세상 줄장부로군.》

《아니 왜 그래요?》

《자넨 그럼 밤마다 그 애와 함께 다니지 않았단말인가? ...일하러말일세.》

하고 응섭은 사뭇 꼴을 냈다. 그러면서도 젊은

이들의 비밀을 너무 공개적으로 건드리는것 같아 일하러... 라는 군말을 덧붙이는걸 잊지 않았다. 눈이 휘둥그레진 청년은 반장이 무엇때문에 화를 내는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어서 창가에 다가서서 이미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지웅섭은 무작정 아무데나 갈수 없어 마을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창숙이가 가있음직한곳을 몇군데 추리해보았다. 아무데도 쪼이는데가 없었다. 그러다가 불쑥 낮에 일하던 포전에 가서 일하고 있지않을가 하는, 비로소 온전한 생각을 하였다. 전례에 비추어 십상 그럴듯싶었다. 그 생각은 곧 그를 나지막한 뒤향으로 이끌어가었다.

장대마루로부터 건너편 산중턱까지 휘우듬히 뻗어간 살찐 포전에는 희미한 달빛아래 키를 넘는 밀들이 이삭고개를 무겁게 드리우고 숲을 이루었다. 하루밤새에 단추 한칸높이로 자라오르는 것이 하도 기특하고 대견해서 지나가다가도 발이랑에 들어서서 밀포기정수리를 부여잡고 키대보기를 하군하던 응섭의 그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탐스러운 밀이삭들은 이 밤 그에게 풍작은 녀려 말라고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오나. 믿으마! 이제 이 지반장이 너희들 허리에 띠개를 돌려줄테다! 석줄로. 비바람에 끄떡없게 말이다! 흐흐흐...)

지웅섭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좀 더 높은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약간만 텅거도 현줄처럼 우렁찬 공명을 불러일으킬것 같이 고요가 깃든 희끄무레한 밀밭우에 대고 배심을 주어 소리질렀다.

《창숙이-》

건너편 산발이 아름다운 음향으로 흉내를 냈다.

그러자 뒤편 집오래에서 개들이 일제히 입을 열어 산촌고유의 밤정서를 불러왔다. 응섭은 자못 놀랐다. 자기의 거센 목소리에 애기잠을 자는 밀이삭들이 놀래여 거칠어지고 영그는데 피해라도 입지 않을가 싶어서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손나팔을 대고 한결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창수기이-아-버-지가 오셨소요-!》

여전히 메아리, 밤의 숨결인양 풀벌레우는 소리만이 먼발치에서 간단없이 들려왔다.

《허, 이 보배덩어리가 대관절 어디로 갔담?》

응섭은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피다가 원컨으로 얼마쯤 거리를 둔 피나무골에서 뜻밖의 불빛을 발견하였다.

《아, 창숙이가 저기서!》

하고 그는 탄성을 올렸다. 피뚝 쪼이는 점이 있었다. 불은 틀림없이 창숙이가 피워올린 우등불일 것이었다.이제와 생각해보니 얼마전에 그와의 사이에서 피나무골 부식토를 녀두에 둔 이야기가

한두마디 오간적이 있었다. 하여 그는 엄창숙이를 한갓 이성세계에 잠겨 밤산보나 하고 있을 처녀로 치부한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느꼈다. 어쩌면 저런 사람을 두고 그런 억측을 할수 있단말인가. 내가 그런 억측을 하고 있을걸 창숙이나 그의 아버지가 안다면 얼마나 불쾌해할것인가.

범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공교롭게도 엄학진이 인기척을 내며 뒤에 다가왔다. 지웅섭은 흠칫 놀라며 획 돌아섰다. 아마도 하숙집로친네가 퍼그나 앉아배길수 없을 지경으로 간지러운 친절을 부린 모양이라고 그는 피득 생각했다.

《어때 안나타났수?》

《예, 이거... 그참 왜 좀 쉬시잖구?...》

지웅섭은 허드레소리를 하며 몸돌바를 몰라했다. 그는 엄학진이 《보라구, 저런 애를 두고 당신네 어쩌면 그런 억측을 할수 있소?》 하고 당장 따귀라도 후려칠것 같이만 생각되었다. 그러나 엄학진은 웅섭의 그런 가슴앓이를 아는듯 모르는듯 소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쉬려구 바쁜 걸음을 했겠소?》

지웅섭은 그의 소탈한 표정이 더 두려웠다. 차라리 빼개놓고 노여운 소리라도 해주었으면 변명할 말도 있을것 같거니와 마음도 더 편할것만 같았다.

지웅섭은 안절부절하다가 문득 좋은 수가 생각났다. 하숙집부엌에서 《창숙이 신문에 나더니 더구나 극성부린다》고 어정쩡하게 사태를 수습한것이 이제와선 자기를 정당화할수 있는 좋은 밑천이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쇠돌가루네가 나는 엄학진의 곁에 바짝 붙어서서 팔을 끼고 가리켰다. 《저-길 좀 보시우다!》

엄학진은 밤눈이 어두운지 웅섭의 손짓방향을 이윽히 살핀 뒤에야 무심히 반문했다.

《무슨 불인지요?》

《창숙이가 저기서 부식틀 생산하구있을겁니다.

내가 그러잖습디까? 또 어데 일감이 있어서 나간 모양이라구! 정말 신문에 소개된 사실하고는 조금도 틀림이 없수다!》

하고 웅섭은 엄학진이 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겹해 신문까지 상기시켰다. 엄학진은 어딘가 달갑지 않은 기색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내가 오기를 썩 잘했군!》 그리고는 무슨 근심이 그리도 큰지 산갈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웅섭은 돌연 그의 팔을 놓았다. 부질없는 소문을 듣고 딸을 단속하러온것이 아니였구나 하는 안도감에 이어 저렇게 애면글면하는 사람을 두고 오기를 썩 잘했다는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의혹이 가물뒤의 장마격으로 새로이 머리를 쳐들었던것이다. 신문지상에서까지 인정해주는 저 아름다운 소행을 이 늙은이는 왜 가재미눈으로만 보는

것인가? 혹시 딸이 밤일까지 한대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러는게 아닐가. 필시 그래서일수 있다. 세상에는 자식들을 눈먼 사랑으로 어루만지기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야단인데. 귀한 자식 때로 키우렸다는데 이 늙은이는 훌륭한 딸을 괜히 어떤 인간으로 만들자고 이러는것인가?

웅섭은 엄학진에게 조언을 주어야 했으나 역효과를 나타낼가봐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다. 잠시 궁리를 짜내던 끝에 그는 늙은이의 마음을 어지간히 늦추어주고 슬그머니 탕개를 조여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늙은이의 마음을 움직여놓을수 있을것이였다. 하여 그는 짐짓 눈을 습벽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령감님. 노여워마십시오. 이 밤중에 어린 처녀를 홀로 산속에 내놓고 행적도 모르고 있는 내게 잘못이 큼니다. 아버지된 마음에서 저걸 보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바꾸어놓고 나라도 그러겠는데...》

엄학진은 갑자기 찬물이라도 끼얹힌듯 소스라치며 성급히 말했다.

《이보우, 반장동무, 재가 밤일을 하는게 배아파서 그러는줄 아오? 제발 그렇게 생각질 마오.》

(허, 능청스럽군.)

웅섭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마음을 늦춰주려던 노릇이 오히려 역효과를 빚어내고 말았으니 어느 매듭에 바줄을 걸고 탕개를 틀어야 할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던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마을에 내려가 쉬라며 등을 떠밀다가 마침내는 함께 피나무골로 향하고 말았다. 누구도 마을에 내려가는걸 원치 않았기때문이였다.

나무숲이 짙 우거진 고개길은 으스스 달빛도 스며들지 않아서 발이 그들의 눈을 대신케 했다. 발로 길을 더듬어찾으며 지웅섭이 앞에서 길안내를 하였다.

길이 어느정도 발에 익숙해졌을 때 뒤따르던 엄학진이 의미심장하게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지웅섭의 말이 가슴에서 내리지 않는 모양이였다.

《반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하시니 내 한가지 이야기할게 있소.》

지웅섭은 야릇한 불안을 느끼며 어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엄학진은 절대 자기 자랑으로는 듣지 말라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젊은이들식으로 말하면 생활에서 찾은 교훈이라고 할지 그런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저애가 중학 교배였지요.》

온나라가 당중앙이 호소한 《70일전투》에서 시대를 장식하는 위훈을 창조한 그때 봉천광산승

리경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여 밭과공 입학진이기도 혁신자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서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함박눈처럼 꽃보라가 뿌려지는 경박으로 뿔뿔하게 나설수 있었다. 무지개발 같은 오색테프가 몸에 휘감기고 환영곡이 장중히 울리는가운데로 입학진은 못사람의 어깨 위에 떠받들리어 문화회관앞까지 갔다. 새힘이 온몸에 용솟음치고 두둥실 구름을 타고 하늘에라도 날아오르는듯 마음이 부풀었다.그렇것이 그가 생산한 쇠돌이 아버지수령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권위를 높이 받들어올리는 주추돌이 되었음에랴! 그것은 나라의 맡아들인 광부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행복이며 자랑이었다.

환영모임이 끝난뒤 입학진은 꽃목걸이를 그냥 목에 건채 집으로 향했다. 몸에 내려앉은 꽃보라의 그작은 반점하나라도 휘날려 떨어질세라 물동이를 인 첫날새각시처럼 조심조심 걸어갔다.

로친네와 딸과 이웃에 위훈을 자랑하고싶었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싶어서였다. 그런데 어찌된일인지 집에 이르니 창숙이가 책상우에 엎드려 쿨썩쿨썩 울고있었다. 늘그막 정이 더 각별해져서 령감이 퇴근할때면 신뒤축을 꺾어신고 달려나와 간데라며 빈 밥판이든 멜가방이며를 받아들여가곤 하던 로친네마저 찬장쪽에 앵돌아져 앉아서 알은체를 안했다. 허나 이순간 입학진은 모든 것에 관대해지고만싶었다.

《허, 경사를 이렇게 맞는 법도 있나? 춤을 춰도 성차지 않을 오늘에!... 여보 로친네, 거 북통이 없으면 물담은 모랭이에 다 바가지를 얹어놓고 치던 옛장단이라도 한바탕 짚어주오. 내가 춤을 출테니!》

습관에 없던 령감의 너스레에 터칠듯 불이 부었던 로친네는 흡연 몸을 돌이키며 빈정댔다.

《예, 성수가 나겠수다. 딸에서건 잘도 키워놓았으니...》

입학진은 얼떠름해졌다.

《그건 도대체 무슨 흥두꺼여?》

《저때때문에 학급이 최우등학급으로 되질 못했다우. 오죽 분했으면 체네선생도 와서 눈물을 짜다 갖겠나요?》

《아니 뭐라구?》

입학진은 눈앞이 아찔했다. 불시에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다 새어버린듯 맥이 탁 풀렸다. 목에 건것이 꽃다발이 아니라 별경계 단 쇠테갈아서 황급히 책상우에 벗어놓고 의자에 털썩 들어앉았다. 그렇게도 조심스러운 걸음을 걷게 하던 갖가지 색깔을 띤 꽃보라의 반점들이 마가울 단풍잎처럼 그를 배척하고 장판바닥에 흩어졌다.

가정교육을 비롯하여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받아온 꽃목걸이이며 꽃보라

였다. 만약 꽃목걸이를 목에 건 그가 목마를 타고 꽃보라속을 뚱뚱 떠가던 그때 처녀담임선생이 띄여보았더라면 뭐라고 하였겠는가.

《70일전투》는 비단 광산만이 아니라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큰걸음을 내디디기 위한 총돌격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만 한가지 쇠돌만을 생각하고 아이의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를 않았다. 가랑 그 전투가 원주와 맞선 실전이었다면 창숙이가 서있는 전선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야말로 창숙이가 그 전투집단에 끼친 손실은 아버지일개인의 그 어떤 큰 위훈으로도 보상할수 없을것이다... 입학진은 그날부터 밤마다 피곤할때면 학교에 들리곤했다. 교원들과 짜고들어서 아이의 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은 다했다.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창숙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점최우등을 양보한적이 없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 일하던 때에도 최우등학급을 지연케 했던 지난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집단적혁신에 한몫 단단히 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것 같다면서 입학진은 못내 근심속에 말을 뱉었다.

《아무래도 애비의 손길이 떠져서 그런가보웨다.》

지웅섭은 그의 말이 너무도 심각하게 들리어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이 늙은이가 무엇때문에 일잘하는 딸을 두고 괜히 이렇게 마른 가슴을 앓으면서 심각해지는지 알수 없었다.

두사람사이로 회고 푸르스름한 반디불이 서서히 지나갔다. 웅섭은 자기가 보고 느낀 견해대로 솔직히 말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창숙인 여기 와서도 여전히 10점최우등입니다! 신문에 난것으로 말하면 골자나 겨우 추린것에 불과한데 뭘 자꾸 그러십니까?》

《반장동무. 불민한 이 애빌 위안하느라구 너무 그러질 마오.》

《골자에 불과하다는데 두요!》

《허, 이것참. 내가 신문글이 왜소해서 그러는줄 아시우? 내 말을 마저 들어보구 그러오. 자고로 영웅호걸의 뒤에는 현숙한 어머니가 있고 시라소니자식뒤에는 불민한 애비가 있는법이요. 옷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질 않소?... 내 왜 자신을 불민하다고 하느냐 하면 전에는 일만 일이라고 아이를 멀리 했었구 이즈막엔 멀리 떨어져있대서 관여치 않았으니 불민할밖에요.》

지웅섭은 이 늙은이가 자기를 빗대놓고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닐가도싶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창숙이아버지의 말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하여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이 늙은이가 도대체 무슨 일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원새

끼만 꼬는것일가 하는 불만에 자기 견해와 상반되는 불만이 겹쳐서 가볍게 힐책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많은 사람은 그들만 따라다니다가 여생 불장을 다 보겠수다레.》

엄학진은 너그럽게 그 말을 받았다.

《허허, 그러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새가 없다질 않소.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는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다 산지사방에 널려있지요. 그런걸 채취공업위원회지도원인 둘째는 만경대구역에서 리당비서로서 일하는 딸이에게 맡기고 전진경 진료소의 셋째는 가까이있으니까 내가 가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여 머리에 녹솔지 않도록 제때에 닦아주곤하지요.》

지웅섭은 더 말하지 않았다. 사유와 활동력을 가진 인간은 모판에서 밭으로 옮겨 간 곡식과는 달리 일단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라는 비옥한 토양에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자기의 견해로 설복시키기엔 이 로인의 사고력이 자식에 대한 눈먼사랑의 울타리안에 너무도 견고하게 포로되어 있다고 느껴졌기때문이었다. 그것을 설득시켜 울타리안에서 해방하자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할것이었다.

인제는 늘름늘름 춤을 추며 타오르는 우등불이 나무들사이로 매우 뚜렷하게 보였다. 검푸른 하늘은 머리위에 좁다랗게 트이었다. 끈끈하고 쌀쌀한 누기가 적어도 세겜월에 한번씩은 울룩불룩한 돌부리 아니면 길을 열기설기 건너간 나무뿌리를 걸어가곤 하는 그들의 땀발이 선 얼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어데선가 지독할 지경으로 풍겨오는 더덕과 깨풀들의 달착지근하고 구수한 냄새가 아직 저녁전인지 웅섭의 구미를 지지리도 유혹했다. 그는 초면인 이 늙은이가 아니라면 손더듬을 해서라도 일찌기 소시적부터 여기로 드나들 때면 의례히 그러군하던 습관대로 더덕뿌리를 잡아 뽑아서 입안에 넣고 어석어석 씹어먹고만 싶었다. 의중계 마주선 령줄기가 얼마쯤 가지런히 흘러나가다가 갑자기 좌우로 활짝 갈라지고 그곳에 자리잡은 피나무굴마을사람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무시로 드나들며 가구와 농쟁기감으로 피나무들을 찍어간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변태과정을 걷고있는 그 등걸들에서는 숲속의 누기를 받아 푸른 린팡이 서물서물했다. 협곡에 구성진 메아리를 일으키며 숲속의 제왕인양 부엉이가 거만하게 울었다. 아무리 그래도 밤의 서정을 돋구는데는 내 노래이상 이 없다는듯 길옆에 하늘을 찌르고 선 분비나무 상고대에서 접동새가 소쩍소쩍 뿜내는듯한 목청으로 우짖었다. 그에 화답하여 이름모를 산새가 《비비빗쫑쫑르르》 울었고 길 왼편에서 성미급한 꿀물이 팔팔팔 노래불렀다. 간신히 길을 더듬어 들어오는 두 사람에게 길안내라도 하는듯 요게고

게요, 요게고게요... 친절을 담아 지저귀는 새도 있었다. 그야말로 깊이를 알수없는 검은 장막이 질게 드리운 태고연한 골짜기는 이밤 온통 새들의 세상인듯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숲속의 가수들을 놀래우고 그것들이 읊조리는 음량을 한 찰나에 모조리 삼켜버리며 처녀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랑랑히 들려왔다.

피끓어라 청춘아...

지웅섭은 저도 모르게 몽클해지는 마음을 안고 머리를 쳐들어 우등불쪽을 눈여겨보았다. 산기슭 두리의 잡관목들을 현지탈곡장처럼 행하게 처던진 그 한복판에 집채같은 부식토더미가 길다랗게 쌓여있고 그 더미로부터 얼마쯤 떨어진곳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우등불이 무수한 불씨들을 세차게 뿜어올리며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그리고 그 부식토더미 한끝 산락에서는 걸쭉하게 곡괭이질을 하는 처녀의 모습이 불빛을 받아 불그레하게 안겨왔다. 처녀는 괭이날을 머리위에 번쩍이며 몇해전에 장만해놓은 티비가 썩어서 시루떡처럼 부푼 부식층을 콕콕 찍어제길 때마다 노래를 한마디씩 불러넘기곤했다.

...불타라 심장아

우리들은 청년들...

형언키 어려운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부르는 노래갈기도 타고 힘겨움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부르는, 사기를 떠미는 노래갈기도 하였다.

지웅섭은 뜨거워지는 마음에 저도 몰래 벗어나려 한 걸음을 차마 불마당으로 선뜻 옮겨놓을수 없었다. 나어린 처녀가 혼자 저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걸 여직껏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과 탄복에 가슴이 뻘근했다.

언젠가 밭길을 매면서 웅섭은 땅이 왜 이렇게 굳으냐는 창숙의 물음에 땅의 수요대로 부식질을 보충해주지 못해 그런다고 무심히 대꾸했었다.

창숙은 그때 청년들을 발동시켜서 부식토를 생산해다 두툼히 깔아주면 될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었다. 지웅섭은 어처구니 없어 허허 웃다가 혼시조로 말했다.

《청년들을 부식토에 돌리구 김매긴 누가 하나?

이거보라구 창숙이. 농사일이란 이달에 생산못하면 다음달에 봉창을 해도 되는 광산일과는 달라. 철을 놓치면 다니까!...》

그랬더니 창숙은 저혼자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벌려놓은것이였다. 지웅섭은 엄학진이 곁에 오기를 기다려 귀속말을 하였다.

《령감님, 저걸 보십시오! 신문기자가 옳게 보았지요?!》

엄학진은 인젠 그런말에 싫증난다는듯 대꾸를 않고 눈앞을 가리운 나무가지를 제끼며 혼연히 소리쳤다.

《거 창숙이냐?》

순간 노래소리가 푹 멎고 창숙은 몸을 퍽 돌렸다. 세워짚은 팽이자루를 바루 끌어당기며 몸을 도사리었다.

지웅섭은 서두르는 엄학진이가 못마땅하여 눈을 흘기고 창숙이를 향하여 소리쳤다.

《창숙이, 놀래지말라구. 아버지가 오셨소! 난 반장이구.》

《…………》

두사람은 행하게 트인 불마당에 성큼성큼 나섰다.

《어마나, 아버지가?!》

창숙은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고 말았다. 지웅섭이들이 우등불가에 얼마간 접근했을때에야 그는 무섭고도 긴장된 고비를 넘긴 안도감으로 《아버지!》 하고 마구 달려와서 엄학진의 품에 껍 안기였다. 그리고는 머리를 뒤로 제끼고 청동조각상처럼 번들거리는 주름투성이의 검붉은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에 어떻게?》

아버지는 딸이 무척 기특한 모양이었다. 둥그스름한 등어깨를 정겹게 다독여주며 애무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딸의 응석은 뭐든지 다 받아주겠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무섭지 않더냐?》

창숙은 어리광섞인 실토를 하였다.

《예, 죄썸, 그래 어떻게 오셨나요?》

《네가 보균어서 왔지. 신문에랑 났더구나!》

《그걸 다 읽으셨어요?!… 어머니가 보구실네.》

그렇게도 어른스럽고 점잖고 얌전하게만 보이던 처녀에게 그런 천진스러운 기질이 숨어있었다는 것이 웅섭은 희한했다.

《그래?…집에 가균어서 이렇게 눈에 가랑비가 뻗혔겠지?》

엄학진은 몽툰한 두엄지손가락으로 딸의 눈굽을 슬쩍 훔쳐주었다.

《아니예요. 아버지. 이건 가랑비가 아니고 이슬비예요!》

창숙은 가고싶지 않다는 뜻을 어망중 이슬비로 표시한것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것 같아 구슬গুল리듯 웃었다. 뜻밖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은 그를 울면서도 웃게 만든것이였다.

지웅섭은 그들의 상봉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부식토더미에로 스적스적 걸어가며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엄하게만 생각되던 엄학진의 가슴속에서 저렇듯 변화가 무쌍하게 잔정이 흘러나올줄은 몰랐다. 범접하기 두렵던 엄학진에게서는 엄격성이 사라지자 너그러운 아버지roman

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평범한 아버지로 웅섭에게는 생각되였다. 그러자 웅섭은 엄학진이 온 목적도 방금 그가 말한대로 그저 신문을 찾게 되었으며 따라서 한갓 딸을 아끼려는 세습적인 사고력으로부터 출발하여 괜히 제발로 걸어가는 딸의 발뒤꿈치를 잡아당기는 결과라도 벗어놓기 않을가 두려웠다.

지웅섭은 창숙이의 수고로 쌓여진 부식토더미가 당장 흩어지길라도 하는듯 두손으로 꼭꼭 눌러주는데 팔목까지 콧콧 묻히었다. 한동안 돌아가며 그렇게 눌러주다가 떡가루같이 부근부근한것을 한웅큼 움켜쥐고 일어서는 그의 눈엔 물기가 번뜩이였다. 작업반장 그 자신이 기발을 들고 농장원들의 앞장에서서 겨울마다 이곳으로 부식토를 생산하러 수없이 왔었다. 암반같이 탄탄하게 얼어붙은 부식층을 곡괭이끝으로 쪼아내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린색한 겨울은 그들에게 들인 로력에 비하여 아주 적은 량밖에 대가를 치르여주지 않았었다. 하여 포전들은 화학비료가 아니라면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해갔다. 부식토는 원래 생산하기 좋은 여름철에 이렇게 과무쳐두었다가 겨울철에 슬렁슬렁 실어내면 좋을것이였으나 계절에 쫓기고 로력사정에 포로되어 꼼짝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창숙이는 혼자서 밤사이에만도 이렇게 많은 부식토를 생산하지 않았는가. 웅섭은 창숙이처럼 시간을 짜내고 로력을 짜고들면 얼마든지 부식토생산을 할수 있다는 확신에 눈물이 나도록 기뻐던것이 다.

이윽고 세사람은 우등불을 가운데 두고 마주앉았다. 그들의 등뒤에서는 우습강스럽게 길고 거대한 그림자들이 우등불이 하자는대로 너울거리며 멀어져갈수록 확대되어 먼발치에 아찔하게 솟은 분비나무들과 키다툼을 하고있었다. 숲속으로부터 습한 밤대기가 시큼텃텃한 송진내와 풀냄새를 싣고와서 그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시여주었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우로는 광산마을에 사는 늙은 내외의 단출한 생활과 그에 환희를 부어주며 딸의 6개월간의 생활이 화려한 꽃보자기처럼 한동안 흥겹게 넘나들었다.

그런뒤 엄학진은 웃음을 머금고 부식토는 이렇게 생산해서 팔하러느냐고 딸에게 던지시 물었다.

창숙이의 계획은 여간만 통이 크지 않았다. 이 시대에는 적어도 수십톤의 부식토가 깔려있는데 그걸 짬짬이 파무쳐두었다가 작업반포전들에 10센치쯤 깔아준다면 1년안에 땅을 비옥하게 할수 있으며 해마다 풍작을 마련할수 있다는것이다.

…



엄학진은 웬일인지 딸의 말에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알릴듯말듯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는 신문에 실린 내용이 네가 한일과 틀림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창숙은 시무룩해지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었다. 그는 더 큰 격동적인 사실로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한것이 죄스러웠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 해놓은 일이 성차지 않아서 묻는것으로 해석했던것이다. 불우에 손을 드리우고있는 지응섭이 역시 창숙이처럼 알아듣고 거무스름한 퇴박이마에 주름살을 깊이 지었다.

《이거보우다 령감님, 딸이 산을 옮기려드는데도 뭐가 성차잖아 그러시우? 육십두 바다를 통채로 들어마시겠수다.》

창숙은 그냥 머리를 들지 않았으나 반장에게로 쏠리는 감사의 마음만은 그 얼굴에서 숨기지 못했다.반장이 자기를 두둔해준대서가 아니라 이 고장이 자기의 숨은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는 반장이 감사했다.

필요하면 바다라도 들어마시게 접어들줄 알아야 한다고 응섭에게 롱말을 건네며 엄학진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딸을 돌아보았다.

《그래 넌 신문을 보구 아무것도 생각되는게 없더냐?》

(또 신문이? ... 차 이 령감이 정말...)

지응섭은 화김에 삭정이들을 무릎에 대고 우둑 우둑 분질러서 불우에 엎어주었다. 창숙은 갑작스레 더 많이 솟아오르는 불씨들에 눈길을 박은채 머리만 약간 쳐들고 결연히 말했다.

《아버지, 년말에는 꼭 반면짜리가 아니라 옹근 한면짜리 신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붙는 불에 키질이였을뿐이었다. 엄학진의 두눈엔 금시 푸른 섬광이 번쩍했다.

《네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있구나. 너 혼자서 잔뜩 신문에 나선 뭘해?... 그래야 기쁠것 같으나? 내 언젠가 말하지 않더냐. 자기 혼자만을 위해, 혼자만의 명예만을 위해 일해선 안된다구.》

창숙은 아버지의 말에 머리를 더 깊숙이 숙였다. 할말이 없는 모양이었다.

지응섭은 가슴에서 무엇인가 꿈틀했다. 일을 더 많이 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딸의 결심을 어쩌면 이 령감은 그렇게밖에 인정못하는가. 피백하기라구야. 그는 아무리 주인된 립장이라 해도 좀 단단히 가르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내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 겠수다. 령감님에겐 그제 어쩌면 창숙이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것으로만 생각되니까?》

엄학진은 짐짓 짜증을 내며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반장은 좀 잠자쿠 있소. 내 버르고 온 말인데

암만해도 마저 해야겠수다.》

하고는 창숙을 건너다보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독불장군이라구 너 혼자서 분조농사를 다 할테냐? 넌 농촌을 지원한다는 그 의미조차 푹푹히 아는것같잖아. 난 어제 당의 배려를 받아 이렇게 휴양소로 떠났단다. 그런데 차칸에서 바로 그 신문과 네 사진을 보지 않았겠니... 이 말을 너에게 꼭 하고싶어서 여기에 들렸다.》

말참네를 하던 지응섭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는 무엇보다도 창숙이가 밤을 패며 혼자서 아글타글 애쓰는데 주인인 자기가 강건너 볼보듯하고 있는 사실에 마음이 켕기였다. 엄학진은 물론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겠으나 응섭의 귀에는 꼭 자기를 녀두에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었다.

엄학진은 불꼬챙이에 담배를 붙여물고 두불이 마주 불을 지경으로 깊숙이 연기를 빨았다가 후-내분뒤 다시금 말을 이었다.

《분조를 일떠세우고 작업반을 일떠세워야지. 순전히 로력적방조만해서야 무슨 큰 도움이 되겠니?... 너처럼 일하면 간혹 네 이름은 날지 모르나 나라에는 큰 리익을 주지 못한다!》

우등불은 뿌지직뿌지직 소리를 내며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주위가 한결 밝아졌다.

당중앙의 의도대로 분조를 일떠세우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것, 그것은 창숙이 집을 떠나던 날 굳이 명심하라고 아버지가 모를 박아서 강조하던 당부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창숙은 아직 여기에 온지 몇달되지도 않았거니와 부식로생산에 청년들을 동원시키려다가 반장한테 거절당한것과 같은 그러루한 사실들로 하여 집단을 취세우는 면에서는 미처 어찌할바를 모르고 지내던차였다. 다만 손쉬운 방법으로 제몫 하나를 말갈데 소갈데로 다 내맡기다가 때마침 나타난 아버지의 불같은 추궁을 받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윽고 그는 의젓이 머리를 쳐들었다. 숙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는 상냥스런 그의 두눈에는 소나기 지난 뒤의 대기처럼 청신한 기운이 차고 넘치었다.

《아버지, 마음을 놓으세요. 이제부터 꼭 명심하겠어요!》

엄학진은 대견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오냐, 꼭 그래라! 난 네가 소개된 한면짜리 신문보다 분조전체가 난 반면짜리 신문에서 네 이름을 읽게 되는게 더 기쁘겠다!》

지응섭은 불우에 드리운 손그림자가 얼굴을 가리워주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그러나 손그림자는 붉어진 얼굴빛은 가리워줄수는 있어도 불덩어리로 지지는듯이 뜨거운 마음은 식혀줄수

없었다. 창숙이가 이렇게 홀로 나서게 된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내가 그의 창발적인 의견을 밀박아버렸던것이다.··· 돌이켜보건대 창숙이의 소행은 절대로 과오일수 없다. 과오가 아니라 응당히 평가를 받아야 할 아름다운 소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학진은 못내 안심치 않아서 귀중한 휴양시간을 지체하여 먼길을 에돌아 찾아왔으며 딸이 약간의 채심을 못한것때문에 가차없이 꾸짖고 애정을 담아 더 높은 궤도에 올려세워주지 않는가! 하지만 응섭은 포전에 옮겨심은 곡식은 비바람한점 허투루 맞힐세라 애지중지 가꾸었어도 사회에 진출한 아들에게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던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식들이 태어나면 탁아소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힐걱정, 공부시킬 걱정이 없이 국가가 돈한푼 받지않고 키워준다. 이 얼마나 크나큰 배려이며 고마운 혜택인가. 실로 지응섭이 잔뼈를 굵히던 그 세상에서는 상상할수조차 없었던 제도에서 그의 자식들이 자라나고있는데 그 자신은 배려에 만성화되어 아버지로서의 후대앞에 지닌 공민적의무마저 망각하고 살았으니 가슴이 저리지 않을수 없었다.바로 이러한 그릇된 견해로 하여 창숙이에 대해서도 그를 훌륭한 일꾼으로만 생각했지 후대를 돌본다는 마음에서 키우지는 않았던것이다.··· 가슴을 허비는듯한 후회와 자책을 한마디 말하고싶었으나 이처럼 소탈하게 말거나 주저없이 그였건만 지금만은 입이 꼭 막히여 병어리 뺨가슴 앓듯이 안절부절 못하고 앉아있었다.

어느덧 엄창숙은 움쭉 자리를 일더니 쿵쿵 뛰는것 같은 활달한 걸음새로 숲속에 들어갔다. 삭정이를 주으러 가는것이였다.

어디선가 여럿의 말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다.

나무숲을 헤치는 소리,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급기야 확대되더니 미구에 아까 응섭이들이 들어서던 그곳으로 뺨이며 삽을 멘 청년들이 사태처럼 우르르 쏟아져나왔다. 그 맨 앞장에는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분조장이 섰다. 그는 때마침 숲속에서 삭정이를 한아름 안고 나서는 창숙이와 맞다들렸다. 그러자 성급한 그는 기다란 팔을 짹 벌리고 삭정이를 덥석 그러안았다.

《창숙동무. 이거 면목이 없소. 이런줄도 모르고 나는 집에 앉아서 글씨··· 육먹어 싸지요!》

청년분조장은 창숙이가 무슨 일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있는것때문에 반장이 화를 냈으려니만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언젠가 하숙집 사이문턱에 걸터앉아서 지응섭 반장이 하던 말을 불쑥 상기하게된 창숙은 얼굴이 활짝 붉어져서 삭정이단을 놓았으면 좋을지 놓지말았으면 좋을지 모르고 찢찢했다. 그는 가카스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와 반장은 물론 청년분조장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삭정이단에서 슬며시 물리서며 음성을 높여 말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요. 그러면 혼자 온 내가 낮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는 낮이 붉어지는것을 이렇게 무마시켰다.

순간 지응섭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하니 고여올라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가 터무니없이 창문으로 들이던진 말때문에 청년들이 마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여기까지 찾아왔을수도 있을것이였지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다. 다만 창숙이의 아름다운 소행이 자석처럼 그들을 끌어당겼으리라 생각되면서 그들이 더없이 고마웠고 미더웠다.

×

엄학진은 첫닭울음소리에 마을을 떠났다. 창숙이의 참고서적들이 들어있던 훌쭉한 배낭을 걸머진 그는 큰 짐을 벗어놓은 때처럼 홀가분한 걸음새로 성큼성큼 걷다가 느닷없이 길우에 멈춰섰다.

《반장동무, 어서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시오. 나야 아무래도 갈 사람인데.》

지응섭은 좀처럼 돌아서려하지 않았다.

《저기 굵인돌이까지만 더 감시다. 왜 그런지 자꾸만 견고싶어 그러니다!》

창숙은 다문 몇분이라도 반장에게 휴식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의도가 헤아려져 수를 썼다.

《반장동지, 이젠 들어가시자요. 전 풀려서 꼼짝 못하겠어요!》

드디어 두사람은 벗어나고 허우대 큰 한사람만이 길 한끝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갔다. 엄학진은 80리를 걸어가서 아침차로 휴양소로 가야 했다.

응섭이와 창숙이는 엄학진이 굵인돌이로 사라진뒤에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들의 량옆에서는 길을 풍덩 묻어버린 밀밭이 새벽바람에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 심장에 높뛰는 초침소리

리응룡

낮에 밤을 이어 잠들줄 모르는 역구내에 들어서면 의례히 사람들은 이말부터 귀에 익히게 된다.

《정시도착! 정시출발!》

항용 이 말을 외울때마다 우리모두는 온 나라 철도수송전사들을 한품에 안아 무사고혁신의 한길로 이끌어주고있는 당중앙의 따사로운 품을 생각하게 되고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뜨거운 걱정애 가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당이며 어대니당인것입니다.》

나는 어느날 취재길에서 오래전에 출판물을 통해 소개한적이 있는 면목있는 기관사를 만났다.

그날 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고들어온 그 기관사를 또다시 만나게 된 나는 더없이 기뻐다.

《기관사동무, 오늘도 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고 정시에 도착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나의 인사말에 기관사는 왜서인지 심중해진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오늘 짐을 더 끌고왔지만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한 일군을 통해 20여년간을 한건의 사고도 없이 매해 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름있는 기관사라는것을 이미전부터 알고있는 나로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출수 없었다.

내 얼굴표정에서 무엇을 읽었던지 그는 자책에 젖은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40초라는 시간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37초지요.》

나는 놀람을 금치못했다.

40초의 지연, 이런 정도야 허용되는 오차가 아닌가.

시간적개념에서 공정하게 본다면 출발한 시간과 도착한 시간사이의 이러한 차이를 두고 정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어마어마하게 짐을 실은 끝이 안보이는 차량들과 40초…

그는 말을 이었다.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배려에 보답하는 길에서는 이 시간도 큰 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더욱 깊어만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을 생각하면 해놓은 일이 적

게만 생각됩니다. 게다가 1초도 어김없이 달려야 할 렬차를 이렇게 늦추었으니!…»

진정에서 우러나온 말이였다.

그는 문득 품속깊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던 부드러운 붉은 천에 여러겹 정성스레 싼것을 꺼내는것이였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리는 《철도》시계였다.

나는 두손으로 정중히 받아들였다.

주인의 따스한 체온만이 아닌 이름할수 없는 숭고한 감정이 손을 통해 느껴지는 순간 나의 가슴은 전류에 닿은듯 찌르르 해왔다.

사랑의 《철도》시계!

무사고정시로 달리며 자기의 충성심을 가늠해 보군하는 시계,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어려운 때나 이 시계를 두손에 받쳐들고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는가를 총화해보군했을 기관사.

변함없는 시계의 초침소리를 귀가에 대고 들을 때마다 당의 뜨거운 손길이 가슴에 후더웁게 안겨와 그 믿음과 사랑속에 사는 더없는 궁지와 영예를 되새기며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바쳐가리라 굳게 마음다졌을 그가 아니였겠는가.

참으로 우리 철도일군모두에게 베푸는 당중앙의 사랑은 천만년을 두고 노래해도 끝이 없을것이다…

그는 사랑의 시계를 가슴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 시계를 가슴에 품고 렬차를 몰아가느라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솟습니다. 그저 짐을 더 많이 끌고 달리고 싶은게 우리 기관사들의 하나같은 심정이지요.

이 시계의 초침처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달리고 달려서 당의 그 믿음, 그 사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그의 소박한 말이 어찌 그 혼자의 심장의 웨침이라하랴.

당의 따사로운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수송전사들의 가슴속에는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이 불타고있으니 조국의 철도는 언제나 무사고정시이다.

《정시도착! 정시출발!》

사랑의 《철도》시계를 가슴에 품고 사회주의대  
건설전투장으로 달리는 철도수송전사들의 1분1초  
는 룡성변영하는 조국에 더 높은 탑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되는것이며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  
탁하고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더욱더 빛내여가는  
시간으로 이어지는것이다.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한생을 당과 혁명에 충  
성다하는것은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충성심은 삶  
의 매 순간순간을 더없이 값높고 더없이 숭고한  
열정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충성심, 그러한 헌신성  
인것이다.

실로 오늘날 발현되고 있는 그러한 충성심은

바야흐로 당이 제시한 《80년대속도》창조에 튼튼  
히 피여지고있는것이라.

한분한초를 쪼개가며 거기에 부어지는 당에 대  
한 충성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돌이켜보  
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시대 인간의 모습을 나눈  
그 기관사의 티없는 량심에서 보았다.

이렇듯 당중앙의 령도밑에 《5.18무사고정시전  
인초과운동》의 불길 높이 조국의 동맥우에 충성  
의 기적소리 힘차게 울리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철도수송전사들.

아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라 강  
철의 궤도우를 변함없이 힘차게 달리는 우리 철  
도수송전사들의 심장마다에는 언제나 쉽없이 높  
뛰는 사람의 시계, 《철도》시계의 초침소리가 기  
운차게 울리고있다.

## 용해장의 새벽

로승모

쇠물이 끓어  
이 가슴 이리도 뜨거운것이나  
이 가슴 뜨거워  
쇠를 더더욱 끓는것이나

류출구를 터치면  
무쇠지붕 저 너머  
쇠물노을은 중천에 타고  
용해장엔 장엄한 려명이 비껴오는듯

오 새벽은 멀었어도  
우리 펼치는 쇠물노을에  
흰히 하늘이 열리고  
머나먼 주럭지구  
집집의 문여는 소리 들려오는가

사람들의 가슴속깊이에  
언제나 식지 않는 열도를 안겨주며  
모든 일터 모든 거리마다에  
이 하루를 더 길게 이어주거니

우리 마음처럼 끓는 노을빛이여!  
네가 피어나는 하늘아래  
모든것은 눈부시게 빛을 내며  
모든것은 드높이 머리를 드는구나

그렇다

꿈많은 직포공들은  
비단필마다 이 노을빛  
그대로 문양으로 새기리  
건설의 수리개들은  
날마다 키돋움하는  
언제우에 이 노을빛 높이 있어보리  
  
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빨리  
래일은 오늘보다 더 앞서  
불태우는 이 쇠물노을이  
그대로 평양 밤하늘가에 펼쳐질수 없을가!

아직도 불빛밖을  
당중앙창문가에 소리없이 날아가  
천만떨기 꽃으로 피어나며  
포근히 포근히 안겨질수 없을가!

우리 마음 언제나 충성으로 불타  
쇠물이 저렇게 끓고 끓으며  
《80년대속도》로 태어나는  
이 새벽 잠을 깬 강산도 들먹이누나!

온 누리를 가득 채우며  
오늘은 더 진하게 노을이 탄다  
새들이여, 어서 무리지어 날아오르라  
파도는 눈부시게 기슭을 치라!

# 물농사 바다농사

최진용

울농사 대풍이라고  
포기포기 알뜰한 정성 스미었다고  
사락사락 어깨 스치는 강냉이숲속으로  
노래하며 걸어가는 농산반의 룡이야

바다를 보렴  
바다위에 떼통들이 줄줄이 떠있는 태장  
파도만이 출렁이겠니  
물밑엔 길길이 자란 다시마가  
너울너울 바다농사도 대풍이란다

물농사 바다농사 다를바 없어  
네가 포전길로 트랙터로 돌아갈 땐  
나는야 바다길로 기계배 통통  
네가 포전을 만들고 이랑이랑 짜여갈 때  
나는야 파도우에 태장줄 줄줄이 늘이고

바람이 불어도 한바람  
번개치고 우뢰울어도 한날한시에  
네가 눈비를 뚫고 애기모 키워냈듯이  
나도야 풍랑을 넘어 모숨줄 건져낸 보람  
하나의 정성이 물과 바다에 흘러  
물농사 바다농사 어거리풍년이로구나

가사

##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가자

장윤길

찬란한 향도의 해발넘친 강산에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당의 부름 받아안은 충성의 전사들아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자

쇠물을 끓이며 돌과구 열어가고  
막장마다 밭파소리 지심을 흔든다

너와 나 여기서 꿈을 나눴지  
노을이 물드는 수평선 끝까지  
고요하게 설레이는 바다가 좋아서  
드넓은 바다가 푸르른 초원만 갈아서  
이 바다가 농사짓는 땅인가 싶어서...

너는야 일구는 새땅에 그 희망을 가꾸고  
나는야 파도를 넘어넘어 바다밭을 일구고  
너는 물에 정들고 나는 바다에 정들어  
산을 보면 키를 넘는 강냉이숲이 늠실  
바다를 보면 길을 넘는 다시마가 흐느적

네가 별빛을 이고 포전길 오고간 자옥  
네가 달빛을 안고 노저어 오고간 배길  
한치 땅을 아끼는 너의 그 마음이  
바다길 십리에 스미고 스며  
바다가 물이란다 태장이 우리네 포전이란다

포기포기 가꾸는 물의 념원도 하나  
모숨줄 오리오리 가꾸는 바다의 소원도 하나

물농사 난알풍년으로  
바다농사 미역풍년으로  
아버이 수령님께 하나의 기쁨을 삼가 드리자!

자력갱생기치높이 우리 힘 밀치며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자  
력사에 밝아온 영광의 년대우에  
다시한번 기적을 새기여나가자  
천리마로 달려온 내 조국 빛내며  
《80년대속도》를 창조해나가자

# 한그루 소나무

김정호

용케도 건넌구나  
포탄에 뿌리 드러난  
고지의 한그루 소나무  
열어넌 제나이보다 어린것을  
전사는 가슴에 끌어안았다

봄의 축축한 흙이  
그의 손에 닿았다  
청청한 아지 펼치라고  
야전용 밥통을 기울인다

봄비인가, 한방울 또 한방울  
가슴속 따뜻한 피줄을  
잔뿌리 깊이 잇대어주듯  
한방울 또 한방울...

떠올랐다  
새가 우짖고 꽃망울질 때  
고향의 뒤동산에 올라  
나무모를 심던  
추억의 그 봄날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실한 가지에 새둥지를 매달며  
푸른 잎새 사이로 바라보던  
조국의 하늘은 얼마나 맑았던가

불구름 비껴오던 그 아침  
어머니 흰 옷자락을  
멀리 바라보던  
고향의 소나무언덕

어릴적 티없이 맑던  
그 가슴에 깃든 봄을 짓밟으려

원쑤놈들의 팡크가 기여왔다  
밝은 미소 흐르던  
그 얼굴에 비낀 서리발  
불타는 눈동자여

전사  
앞에는  
살려보낼수 없는 미제승냥이  
뒤에는  
놈들의 온 땅덩어리와도 바꿀수 없는  
고지의 한그루 소나무

목숨 바친다 해도  
한줌 흙이 되어  
한그루 소나무  
조국의 고지를 지키리라 그 맹세

전사는 일어섰다  
불비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산악이 되어

전사는 일어섰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약동하는 봄과  
행복의 열매 무르익을  
그 땅을 가슴에 안고

아, 만세소리 흔드는 고지  
한그루 소나무는  
무성한 천만 잎새 설렁이는듯  
그의 머리우 푸른 하늘엔  
록음이 우거지고있었다

# 땅밑에 남기는 자국 더 많아서...

한기운

아침 해빛에  
함뼉 머금은 이슬을 털며  
출근길에 반겨웃는 꽃을  
내 땅우에만 얹어놓고  
지심깊은 막장으로 가는가

교대를 마치고  
갱밖에 나설 때  
내 땅우에 받들어올린것은  
저탄장에 끝없이 쌓이는  
석탄만이던가

막장에 들어가도  
난장에 나서도  
탄부의 걸음으로  
조국을 받들어가는  
나는 지하전선의 척후병!

아 《80년대속도》로  
더 세찬 번개를 일으키는  
화력타빈들을 생각해도  
더 세찬 열풍을 터치는  
해탄로의 불흐름을 보아도

층높은 아파트  
난방 훈훈한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  
청고운 노래소리 들어도...

땅우에 흐르는  
그 모든 숨결을 안고  
조국이 가는 첫자리엔  
언제나 탄부들 먼저 서있고

이 땅의 미래  
더 아름다와질 그날도  
막장길에 먼저 이어지며

창조의 새 진군길마다  
탄부들의 걸음 부르거니

걸고 또 걸어도  
땅우에서는 다 느낄수 없어  
천길막장 걸어가는 탄벽에서  
조국의 숨결 다 듣고 사는것이  
우리 탄부가 아닌가

보고 또 보아도  
땅우에서는 다 볼수 없어  
막장에 폭포치는 탄의 흐름에서  
조국의 아름다움을 다 보고 사는것이  
우리 탄부가 아닌가

그렇다  
땅우에서 하는 일처럼  
탄부들의 걸음 눈에 띄지 않아도  
숨은 영웅들의 그 삶으로  
지하전선의 《80년대속도》를 창조해가거니

아, 그 어느 체철지구로 달리는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 들어도  
그 어느 산촌마을  
작은 공장 기대소리 들어도...

한가슴에 탄을 먼저 안으며  
석수흐르는 천길막장에서  
땅우에 굽이쳐 흐르는  
《80년대속도》의 불길 다 안고산다

청춘의 꿈을 탄발에 꽃피우며  
땅우에 옮기는 걸음보다  
땅밑에 남기는 자국 더 많아서...  
탄은 나의 삶  
내 한생 바쳐가는 충성이어서

## 높은 곳

김송인

두사람이 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며칠전에 완공된 대형압축기실 3층옥상한가운데 나란히 서서 건설장을 굽어보고있었다. 우뚝우뚝 치솟은 은빛 탑들과 크고작은 탱크들, 그 사이사이로 거미줄처럼 가로세로 뻗은 대관들과 갓 일떠선 건물골조들, 여기저기서 우르릉거리며 용을 쓰는 굴착기, 불도젤... 최석준은 동서남북으로 끝모르게 펼쳐진 그 거창한 전경에 온 넋을 빼앗긴듯 입을 꼭 다물고 가슴만 들먹이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그는 옆에 선 기업소로동자문화회관관장에게 격동된 어조로 말했다.

《넉달도 못되는 동안에 건설장이 이렇게 달라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 여기서 사는 우리도 때때로 파연 이게 우리가 해놓은 일인가 하고 놀라곤 합니다.》

중년의 쾌활하게 생긴 회관관장의 얼굴에는 긍지가 어려있었다. 최석준은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손으로 앞가슴에 드리운 사진기를 열심히 만지작거렸다. 몹시 흥분하였을 때의 버릇이다.

정녕 이 얼마나 장엄거창한 광경인가.

펼쳐진 그대로가 하나의 조화된 예술적화폭이 아닌가! 최석준은 문득 이번해야말로 만사람의 찬탄을 자아낼 훌륭한 사진을 뽑아내고야 말리라는 야심에 온몸이 긴장해지느것을 느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생활을 시작한지도 어언 3년, 그동안 많은 기사를 써내고 사진도 여러장 찍어내놓았지만 남다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여선지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제작이 없다. 그때문에 남몰래 고심해온 최석준이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장 찍어보지 않겠습니까. 저쪽 해불굴쪽쪽으로 전경이 팬치 않은것 같은데요.》

《글쎄... 그런데 난 지금 어쩐지 이 훌륭한 대상에 서둘러 손을 대고싶지 않군요.》

최석준은 명상에 잠기듯 두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이윽하여 그는 다소 들떴는가 싶은 흥분된 어

조로 말을 이었다.

《난 이번에 며칠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한장 잘 만들어보고싶는데... 이를테면 드넓은 건설장 전경이 한눈에 안겨오게 하면서도 <80년대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거센 숨결이 뜨겁게 느껴지도록 말입니다.》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자들도 무척 기뻐할겁니다.》

《허허, 욕망은 큰데 기대에 보답할는지...》

그들은 우선 적합한 촬영위치부터 찾아보기로 하였다. 옥상에서 내려와 금시 4호구역으로 떠나려는데 공교롭게도 관장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최석준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미안해하는 관장의 손을 시원스레 잡아흔들며 통조로 말했다.

《처음 와보는곳도 아닌데 안내를 못받으면 뭐랍니다. 혼자서 마음이 내키는대로 훨훨 다녀보지요.》

...최석준은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5천립방원형 탱크에서 내리고있었다. 관장과 헤어지던 몇시간 전과는 달리 컴컴하게 그늘이진 그의 얼굴은 퍼그나 지쳐보였다. 맞춤형 촬영위치를 고르기가 이처럼 힘들고 까다로울줄은 미처 몰랐었다.

맨처음 올랐던 합성탑우는 전망은 좋았으나 반대쪽으로 우람차게 렬을 지어선 뿔탱크들을 놓치게 되어 아쉬운대로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골랐던 이번 원형탱크는 올라서보니 낮은 감이 들어 초점을 맞춰볼 생각도 못했다. 흠무지우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은 그의 마음은 저즈기 초조해지고 불안해졌다.

어쩐지 자신이 지나치게 욕망만을 앞세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있는듯한 위구심조차 들었다.

땡땡땡- 갑자기 들려오는 종소리에 최석준은 고개를 쳐들었다. 5천립방원형탱크 너머 하늘중천에서 탑식기중기의 기다란 팔이 자지러지게 울리는 신호종소리와 함께 빙그르 반원을 그리며 돌



아가고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최석준의 머리속에는 섬광같이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주먹을 부르쥐고 반공중으로 아스랑게 쳐들린 기증기팔을 걸탐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 바로 저기다! 저 우에서라면...

최석준은 온몸의 피가 일시에 머리로 쏠리는 듯한 세찬 흥분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기증기쪽으로 반달음을 놓았다.

《수고하십니다.》

최석준은 기증기갈구리에다 한아름이 싹히 될 철판을 걸고있는 로동자에게로 다가갔다. 일에 열중한 그는 《네》하고 건성 대답했다. 그가 허리를 펴는 순간 최석준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니, 박봉기반장동무 아닙니까!》

《아하, 기자동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설비조립작업반장 박봉기는 최석준의 손을 반갑게 잡았다.

《우리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찾아왔구만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5천립방탱크를 조립할 때였으니까 녀달만이지요.》

《그렇게밖에 안되었던가 참.》

박봉기는 우려진 얼굴에 민망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최석준은 건설장에서 명망이 높은 《설비반장》의 그 순박한 모습에 감동되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문득 녀달전 일이 떠올랐다. 그날 최석준은 적어도 한주일은 걸려야 하리라던 5천립방탱크조립을 새로운 작업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단 이틀동안에 끝낸 박봉기를 방금 일떠세운 그 탱크 밑에서 만났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박봉기는 그렇듯 큰 일을 한 사람답지 않게 무척 웅색해하면서 《...글쎄 무어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우린 그저 맡겨진 혁명파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결심에...》하고는 말끝도 맺지 못하고 지금처럼 얼굴이 벌겍게되어 민망한 기색이 되는것이였다.

《기자동지, 안녕하십니까-》

머리우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방금 올라간 철판

을 가로타고 앉은 청년이 용접면을 든 손을 흔들고있었다.

《용삼동무로구만 잘 있었소-》

최석준은 마주 손을 흔들었다. 역시 전번에 와서 만났던 박봉기작업반의 나어린 특수용접봉이다. 최석준은 이래저래 이들을 만난것이 기뻐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사진촬영에 기증기를 리용하려는 계획이 쉽게 풀릴수 있겠기때문이었다.

최석준은 지체없이 자기의 속심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박봉기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손을 내젓는것이였다.

《아니 안됩니다. 거기가 어디라구요.》

《뭘 그럼니까 그쯤한델 가지구...》

《그쯤이라니 50미터가 넘습니다. 더구나 손가락하나 의지할데도 없지요.》

박봉기의 얼굴은 자못 심각해졌다.

《에이, 너무 이리저 마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물러설줄 압니까.》

최석준은 대수롭지 않다는듯 그의 어깨를 툭쳤다.

《글쎄 거기만은 안됩니다. 정말입니다.》

박봉기는 더 들을위가 없다는듯 막무가내로 고개를 흔들었다. 최석준은 아연해졌다. 이다지도 리해성이 없고 딱딱한 사람이였던가 싶다. 하기는 모처럼 해보는청이라 의례히 수락하리라고만 믿고 생나무를 꺾듯 너무 성급히 군것 같기도 했다. 그때 최석준은 짐짓 누그러워지며 이번에는 반론조로 말했다.

《반장동무도 참 오늘은 별로 소심해졌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고 대담하게 한번 거사를 해봅시다래, 허허.》

《허허. 이런 딱한 일이라구야, 나부터 자신이 없는 일을 어떻게 기자동무더러 해보라구 하겠습니까.내 말을 정 믿지 못하겠으면 연공들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하늘의 수리개라는 연공들도 저런데라면 아마 고개를 흔들겁니다.》

《물론 위험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야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동무도 고집이 보통 아니군요...》

박봉기는 여간 안타깝지 않다는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소원이 정 그렇다면 토론은 해보겠습니다만

털어놓고 말해서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기도 하지만 설사 있다고해도 난 그런 무모한 일에 선뜻 나서고싶지 않습니다. 저 우에 올라섰다고 생각만 해도 난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최석준은 입을 꼭 다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그의 권유가 진정임을 깨달은것이다. 사실 뽕철한 리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일에 아무런 경험도 숙련도 없는 자기와 같은 인간이 의탁할 가름대하나 없는 50미터공중으로 오른다는것은 생각만해도 가슴떨리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최석준은 하는수없이 다른 자리를 찾아보기로 하고 박봉기와 헤어졌다. 다 잡았던 새를 놓친듯한 아쉬운 마음으로...

이날 저물녘이었다. 해종일 건설장의 우렁구렁한 모래자갈땅을 돌아다니느라 지친대로 지친 최석준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숙소로 향했다. 형언할수 없는 실망감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아직 가보지 못한곳이 몇군데 더 있지만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지워버릴수 없는것이 기증기에 대한 미련이었다. 아무래도 래일 박봉기를 만나 다시 부탁해보는것이 좋을것같다. 정 소원이라면 토론을 해보자고 하였으니 문제는 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는것이 아닌가.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둠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최석준은 생각에서 깨어나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밀차가 구덩이에 빠져서...》

최석준이 다가가자 밀차주인은 굵석 절부터하였다.

혼자서 무척 애플 먹은 모양이다.

《가만 이게 누구요. 용삼동무가 아니요?》

밀차채를 잡으며 최석준이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기자동지구만요. 그런걸 난 또...》

용삼은 반색을 하며 그의 손을 마구 잡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यो. 난다긴다 하는 용접공이 밀차운전수가 되다니.》

《그렇만한 일이 있었지요. 좌우지간 밀차부터 꺼내놓구... 아직 한탕 더해야겠는데 야단났습니다.》

《이건 어디다 쓸것들인데?》

최석준은 팔소매를 거두며 밀차뒤에 가섰다. 밀차우에는 철판이며 환강, 산형강 따위들이 실려있었다.

《자 당깁시다. 영차- 영차- 나간다.》

용삼은 밀차채를 배에 걸고 선소리를 먹이며 용을 쓰고 최석준은 두다리를 뻗치고 온몸으로 댈다밀었다. 한치한치 자국을 떼던 밀차는 마침내 구덩이를 빠져나갔다.

《허참 지르는 길이 도는 길이라더니 한10분 당 겨볼가구 여기로 꺾어들었다가 녀살이 떨어졌는데요.》

용삼은 모자를 벗어 땀난 이마를 문지르며 부채질을 하였다.

《기자동지를 못만났더라면...》

《됐소, 됐소. 자 이젠 말해보우.》

최석준은 얼마쯤 가다가 아까 못들은 대답을 재촉했다.

《뭘... 말입니까?》

《이것 봐라. 이 친구가...》

최석준은 짐짓 대답을 피하려드는 용삼의 그 어정쩡한 태도에 더 부쩍 호기심이 동했다.

《밤에 갑자기 이것들을 갖다가 무얼하자는가 말이요.》

용삼은 몹시 난처하다는듯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다가 크게 마음을 쓴다는듯 《에라, 모르겠다. 신세두 졌는데》 하고 씩 웃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제인데 비밀을 절대 지켜주셔야 합니다.》

《거야 물론.》

최석준은 일부러 엄숙히 다짐했다.

《우리 설비조립작업반에서 가스분해로를 지상 확대조립하여 통채로 일떠세우는 새로운 방법을 창안했다는 소식은 들었겠지요...》

용삼은 방금 절대비밀이라고 엄포를 놓던 품과는 달리 말꼬지를 떼자마자 흥분하여 큰소리로 엮어 대기 시작했다.

최석준은 그의 천진한 행동거지가 재미있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확대조립한 로봇체를 기초틀우에 들어 옮겨놓자고보니 탑식기증기의 팔기장이 뒤메터가량 짧단말입니다. 원래 능력이 좀 더 큰기증

기로 바꿔놓자던 기중기였으니깐요. 그러나 이제 당장 바꾸고어쨌고 할새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기중기동체를 원래의 위치에서 필요한만큼 옮겨놓기로 하였는데 그러자니 시일이 적어도 닷새는 걸려야 한단말입니다. 우리의 전투목표는 래일 하루동안에 분해로설치를 끝내자는것인데 말입니다. 론의들이 분분했지요. 하지만 뭘력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우리 박봉기 반장이 대담한 발기를 들고나왔지요. 기중기를 옮기지 않고 모자라는 기장만큼 팔을 이어주자는겁니다.》

《이어주다니?!》

최석준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습니다. 원래 팔에다가 작은 팔을 새로 만들어 붙여준단말입니다.》

《거 참, 기발한 착상인데.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붙여준다?》

《웁습니다.바로 그래서 물의가 일어났지요. 안전기술과장을 비롯하여 적지않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있답니다.》

《그래서?》

《일곱시부터 기사장실에서 협의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쯤은 아마 무슨 결판이 나도 났겠지요.》

《결판이라... 그러니까 동무들에게는 협의회결론쯤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거겠소.》

최석준은 걸음을 멈추며 그 어떤 진실을 알아내려는듯 용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니 왜 협의회가 아무런 의의도 없겠습니까.》

《팔을 만들 소재를 벌써 이렇게 끌어가고있으니 말이요.》

《협의회가 끝나기를 그저 팔짱을 끼고 앉아 기다릴수야 없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겠으니깐요.》

우린 박봉기반장동무랑 이번 대상을 말으면서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어 <80년대속도>창조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답니다.》

《장하오!》

최석준은 용삼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고 달리는 생각마오. 동무생각엔 의지할데도 없는 그 높은곳에 올라가

작업을 꽤 해낼것 같소?》

《하구말구요.》

《반장동무가 동의할가?》

《그의 발기인데두요. 헤헤, 기자동지는 우리 반장동지를 아직 잘 모르는것같구만요. 전에 신문에랑 내주긴 했지만.》

《그런것 같기두 해...》

최석준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가슴을 찢린듯한 감을 느꼈다. 확실히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저기가 어데라구요. 생각만해도 눈앞이 아찔해집니다.》라고 하던 박봉기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그것은 다만 위험한 일을 제기하는 자기를 만류하려는 의도에서 꾸며낸 말이었다고 하기에는 그때의 그의 얼굴표정이 너무도 진지하고 진실하였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되어 단 몇시간후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무모》한 발기를 내놓을수 있단말인가. 자기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에는 별로 경험도 기능도 없는 그가...

갈림길에서 용삼이와 헤어진 최석준은 곧장 기사장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다우쳤다. 흙타구니를 헛짚기도 하고 돌맹이를 걷어 차기도 했으나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무언가 가슴을 조이는듯한 가벼운 불안과 흥분이 전신을 휩싸는듯 했다. 갑자기 눈부신 불빛이 탐조등처럼 눈앞으로 확 비쳐온다. 굵직한 배관을 운전실 지붕위로 포신처럼 내뿜친 자동차들이 먼지바람을 들썩우며 지나간다 안정을 모르는 건설장의 밤이다. 대낮같이 밝은 작업장마다에서 굴착기, 불도젤들이 우르렁거리고 멀리 가까이 용접의 섬광이 빙긋거리는곳마다에서 화려한 불보라가 축포처럼 줄줄이 쏟아져내린다. 최석준은 거의 신비로움에 가까운 황홀경에 잠겨 앞가슴에 드리운 사진기를 만지작거렸다. 건설장의 밤은 밤대로 그 얼마나 독특한 풍경과 정서를 자아내는가. 만약 들끓는 아름다운 이 밤에 박봉기의 대담한 발기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대로 실현된다면 기자로서의 자신은 행복하게도 조국의 건설력사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위훈으로 기록될 기적의 첫목격자로 될것이다.

최석준이 기사장실앞에 이르자 마치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던듯 출입문이 활짝 열리면서 방안

에 꼭 들어찼던 담배연기와 사람들이 일시에 우밀려나왔다.

(벌써 끝났는가.)

최석준은 아쉬운 마음으로 한옆에 비켜섰다. 이윽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박봉기가 사람들 틈에 끼워나왔다. 최석준은 그의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기자동무도 참가했습니까?... 보셨겠지만 우리 일은 언제나 이렇게 분주하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나 한듯 기증기현장쪽으로 향했다.

《전 방금 왔습니다. 일은 뜻대로 되었겠지요.》

《된셈이지요. 원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것같아 술쩍 해치울 작정을 했었는데 우연히 현장에 나온 안전기술과장한테 걸렸단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오늘 협의회에서 기사장동무가 우리가 제기한 안을 그렇게 견결히 지지해줄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참, 온밤 땀을 뻘 생각을 하면...》

박봉기는 흥분하여 목청을 돋구었다.

최석준이 역시 그의 일이 성사된것이 무척 기뻐했다. 최석준은 담배갑을 꺼내어 한대 권하며 능청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땀을 뻘 사람은 여기도 있답니다.》

《땀을 빼다니요?》

박봉기는 담배불을 붙이다말고 두눈을 둥그렇게 떴다. 최석준은 짐짓 노한듯이 정색해서 말했다.

《말이 난김에 썩썩한 소리를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난 반장동무가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업어넘길줄은 몰랐습니다.》

《업어넘기다니요... 아하, 이거 정말 일이 그렇게된셈이군요. 본의는 아니였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봉기는 송구한 표정으로 귀밀을 썩썩 굽다가 불시에 최석준의 어깨를 탁 쳤다.

《좋습니다. 즉시 시정하지요. 누가 뭐라고 하던기자동무를 이번 전투에 꼭 참가시키는데으로 말입니다. 만족하지요.》

《아니오...》

최석준은 말도 말라는듯 손을 내저으며 룡조로 말했다.

《...난 그런 무모한 일에 선뜻 나설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하하-》

《허허-》

두사람은 통쾌하게 웃었다. 이윽고 웃음을 거둔 박봉기는 생각깊은 시선으로 건설장의 야경을 더듬었다.

《기자동무, 털어놓고 말해서 오늘일이 좀 우습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달리될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크건작건 당에서 주는 혁명과업이라면 하늘끝에라도 깊은 바다속으로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그런 립장과 자세를 삶의 철칙으로 삼고 사는 로동계급입니다.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흥정하고 뒤걸음질을 하느라하면... 허허, 이젠 내가 무슨 선동연설을 하는것같이 되었는데 아무튼 내가 오늘 기자동무를 말리자구 일부터 겁을 내는척하지 않았다는것만은 믿어주시오.》

최석준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 자리에 우뚝섰다. 박봉기, 그는 얼마나 높은곳에 서있는가! 혁명의 요구라면 50미터가 아니라 500미터높이에도 서슴없이 오르는 담력과 용기를 지닌 로동계급의 심장에 받들려 우리 당이, 우리 조국이 것처럼 강력한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신은 오늘까지 로동계급의 그 웅심깊은 세계를 너무도 몰랐다. 그것을 모르고 쓰는 글, 모르고 찍는 사진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줄수 있었겠는가. 《왜 그러고 섰습니까. 내가 그만 주체님께 너무 회떠운 소리를 한게 아닙니까.》

몇걸음 앞섰던 박봉기는 당황히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렇리 있습니까. 나는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입니다.》

최석준은 오래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불덩어리가 일순간에 떨어져나간듯 온몸이 개운해졌다. 두사람은 기증기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

며칠후 중앙의 한 신문에는 대화확공장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박력있게 소개한 글과 함께 거창하게 일떠서는 건설장의 웅장한 모습을 훌륭히 보여주는 사진이 실려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 인민의 락원 대성산

김원중

하늘도 한결 맑고 높아진 가을날이다.  
풍요한 계절이라 그 어느곳에 가도 좋지만 단  
풍잎 붉게 타는 대성산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으  
리라.

나는 두 아이의 손목에 이끌려 지하철도역으로  
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대성산을 찾아가는 사람  
들로 꽉 찼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목에 이끌려 좋아라고 떠  
드는 아이들과 빨간 리본을 단 소년단원들, 손에  
손에 책을 든 대학생들...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  
의 물결이 꽃바다를 이루었다.

얼굴마다 밝은 웃음을 띠우고 희망에 넘쳐있는  
사람들, 그속의 누구를 봐도 다 낯익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에게 건네가 먼저 말  
을 떼면 곧 친숙한 사이로 될수 있을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전동차를 탄 나는 혹시 아는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한 친구를 발견하였  
다.

《아니, 이게 누군가. 최동무!》

최동무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오래간만이군.》

우리는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는 사이 최동무의 옆으로 열살쯤 나보이는  
아들애의 손을 잡은 한 중년녀인이 다가섰다. 그  
도 역시 낯익었다. 최동무의 안해이라고 생각하니  
대뜸 그의 이름까지 떠올랐다. 그는 박금선동무였  
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원래 최동무와 나는 같은 대학동창생이다. 그는  
력사학부에서 서로 학부는 달랐지만 바로 20여년  
전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대성  
산유원지를 건설할 때 작업장에서 서로 통성을  
하고 사귄 동무였다.

박금선동무는 생물학부의 유명한 최우등생이여  
서 그후에 알게 되었다.

그러고보니 오늘 우리의 대성산유람은 참으로  
의의있게 될것 같았다.

유쾌한 상봉속에 우리 일행은 어느덧 지하철도  
《락원》역에 닿았다.

### 1. 깊은 생각에 잠겨

대성산유원지입구의 넓은 포장도로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사람들의 물결은 그대로 꽃물결이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걱정이 휘몰아쳤다.

나의 눈앞에는 대학졸업기념사진첩의 첫장에  
모셔진 한장의 사진이 우렁이 안겨왔다.

그 사진은 잊을수 없는 1958년 4월 5일! 어버  
이수령님께서 대성산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주신 기념사진이다.

나도 최동무도 금선동무도 다같이 어버이수령  
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  
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비내리는 곳은 날씨  
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40리 유  
보도길을 땀아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그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여기 대성산에 인  
민의 대문화유원지를 꾸릴 구상을 하시고 전후  
어려운 나라형편에서도 유원지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으며 건설사업을 하나  
하나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교시하시였다.

**대성산은 고적들이 많은 유서깊은 곳인데 여기  
에다 현대적공원설비를 갖추어 놓으면 휴식도 하  
고 또 많은것을 배울수 있는 훌륭한 장소로 될수  
있습니다.**

대성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나라를 사랑하  
는 마음을 키우는 교양장소로, 과학지식을 배우는  
배움터로 꾸리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  
상과 높이신 뜻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 어  
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대성산이 한눈에 굽어보  
이는 곳에 오래동안 서계시면서 저 주작봉앞기슭  
에는 동물원을 건설하고 소문봉앞기슭에는 식물  
원을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대성산에 있는 력사유  
적들도 모조리 발굴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  
다.

그 순간 1500여년의 유구한 세월속에 옛날 고  
구려의 강대성과 찬란한 문화유적들을 간직한채  
빛을 잃고 있던 대성산의 산봉우리들과 수풀도  
반기여 일시에 일어서며 설레이는듯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나라일이 그토록 바

뿐신 가운데서도 거들 현지도를 해주시었으며 강령적인 교시들을 많이 주시었다.

그리하여 오랜세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 버림받아오던 대성산, 일제의 식민지력탈로서른여섯해동안 파헤쳐지고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빼앗겼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불타버리고 나무에 무쇠과편박에 박혀져 있지 않던 대성산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아래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어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성산을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자금과 로력을 아끼시지 않으시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중앙동물원과 중앙식물원을 꾸려주시었으며 산성남문을 중심으로 8만평방메터의 부지에 현대적인 유희장을 건설해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장수각을 비롯한 수많은 고적들을 복구건설해주시었으며 미천호와 동천호 등 큰 산중 호수들을 건설하여 뽀트장으로, 빙상장으로 쓰게 하여주시었다.

유원지의 수많은 식당들과 매대들, 수영장과 민속놀이터들 그리고 대성산 어느 봉우리, 어느 골짜기 할것없이 이름없는 한그루의 나무와 한포기의 풀, 시내가의 자그마한 조약돌 하나에도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은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유서깊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던때가 어제같은데 그때로부터 벌써 2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에 대성산은 또 얼마나 변하고 또 변하고 달라졌는가.

열려진 아름다운 추억의 문은 마음속에서 좀처럼 닫겨지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말없이 서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하는것은 구태여 묻지 않아도 서로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들이 아무말없이 왜 그토록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던지 우리의 손목을 잡아끄는 나의 두 딸이나 최동무의 아들은 아마도 다는 모를것이다.

우리 일행은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천천히 유람도로에 나섰다.

우리는 곧 유희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주작봉기슭으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 2. 영광의 한자리에서

흘러가던 바람도 이 앞에서 머리속이는가.

여기 주작봉마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불멸의 기념비-혁명렬사릉이 자리잡고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안고 삼가 옷깃 여미며 렬사릉의 화장석계단을 오르고있었다.

우리와 함께 계단을 오르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과 함께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인민의 락원우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목이 메어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 ..

아 준엄한 나날에 투사로 키워주시고도

아버이수령님 그대들 못잊어

사회주의락원우에 영생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 주셨나니

대를 이어 길이 전하라.

대성산 사랑의 룡이여!

... ..

렬사릉 종합사적비 비문을 읽는 나의 가슴은 불같이 뜨거워올랐다.

송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시고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 큰 규모의 혁명렬사릉을 세우시여 항일혁명투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주시었다.

몸소 렬사릉터전을 잡아주시고도 준엄한 항일의 나날에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한 전사들의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반신상을 다듬는 현장에까지 나가시여 옛모습 그대로 세워주신 아버지 그 사랑앞에서 우리는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정녕 한 전사의 희생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밀림의 한밤을 지새우시며 추도사를 쓰시면서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던 그 뜨겁고도 고결한 사랑으로 오늘은 오래전에 결을 떠난 사랑하는 전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여기 대성산 높은 언덕에 세워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진정 이 사랑이 있으므로 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한몸 바쳐싸운 혁명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수많은 혁명투사들이 백두의 기나긴 밀림의 밤에 우등불가에서 그려보던 오늘, 인민의 락원에서 우리와 함께 다같이 한자리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여기에 혁명렬사릉을 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 어찌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잊을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는 주작봉마루에서 한눈에 안겨오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웅장화려한 면모를 굽어보았다.

가까이에서는 유원지의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

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그대로 노래처럼 들려오고 무성한 숲속에서 우짖는 새들의 지저귐소리, 숲이 설레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구수한 난알냄새와 꽃향기, 무르익은 과일냄새를 모으고 모아 여기로 실어왔다.

나는 생각하였다.

바로 저기 유희장에서 나는 웃음소리속에 여기 숨엄히 서있는 그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비껴 울리는듯, 저기 유보도를 거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속에 그들의 발걸음도 합쳐있는듯.

그렇다.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세워진 행복의 유원지 한자리에서 하나로 고통치는 맥박과 후더운 숨결을 안고 다 같이 함께 살고있는것만 같았다.

나는 혁명투사들의 반신상앞에서 나도 그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영원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될것을 심장의 붉은피로 굳게굳게 맹세하였다.

### 3. 금수강산을 다 돌아본듯

우리 일행이 중앙식물원 입구에 다달았을 때 나는 최동무에게 나직이 말하였다.

《여보게! 이제부터 강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한다?》

《강산 무슨 강사... 눈으로 보면 되지.》

최동무는 룡조로 눈을 찡긋했다.

《자네야 늘 식물학강의를 받았을테니 일없겠지 만 난...》

아이들과 함께 우리옆에서 걷던 금선동무가 가볍게 웃었다.

우리는 어느덧 식물원구내에 들어섰다.

식물원은 얼핏 보기에 그대로 하나의 큰 공원을 련상시켰다.

바람결에 설렁이는 잎새들은 빨갭게 물들어 열정적으로 반겨주었다.

우리는 스스로 강사가 된 금선동무가 안내하는 대로 먼저 식물전시관부터 들렀다.

큰 온실형식으로 꾸러진 전시관에 들어선 나는 한가운데에 활짝 핀 **김일성** 화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췄다.

곧추 선 대줄기위에 금시 물기를 머금은듯 심심한 자주빛 꽃송이들, 시원하게 쪽쪽 퍼진 잎새들은 남방식물의 독특한 정서를 자아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소중히 심어지고 가꾸어온 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영광의 꽃-**김일성**화는 우리 수령님을 높이 흠모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활짝 피었다.

나는 머지 않아 이 꽃이 지구를 덮을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얼마후 전시관을 나선 우리는 중앙식물원안내도 앞에 멈춰섰다.

온통 나무숲에 가리워 식물원의 규모에 대하여 전혀 알수 없었던차인지라 나는 안내도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백정보의 드넓은 터전을 몸소 잡아주신 식물원에는 식물분류원과 수목원, 화초원과 약초원, 경계식물자원구 과수품종원, 나무모발과 원림풍치구 등이 잘 꾸려져있었다.

참으로 중앙식물원은 그 규모와 형식, 그리고 풍부한 내용에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식물원으로 풍치아름다운 대공원으로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있었다.

우리는 흐뭇한 마음을 안고 꽃향기 넘쳐나고 온갖 열매 무르익은 구내길을 걸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보시고도 인민을 생각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나는 설레이는 수삼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수삼나무로 말하면 지구우에서 종적을 감추었는데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나무를 맥의 정원에서 손수 가꾸시여 오늘은 온 나라에 숲을 이루게 하신 나무이다.

하기에 수삼나무숲은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며 끝없이 설레이고있는것 이리라.

우리 일행은 향기그윽한 화초원과 장미원도 기쁨나무숲과 과일나무숲도 돌아본 다음 약초원에 들어섰다.

나는 여기서 류달리 마음을 끄는 열매를 보았다. 나는 곧 금선동무에게 다급히 물었다.

《이 열매 이름이 뭐가요?》

《하늘타리 열매이지요... 하늘수박이라고도 불러요.》

이윽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하늘타리 열매에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평안남도의 농촌경리 사업을 며칠째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고계셨습니다. 순간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을 걸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겹쌓인 피로를 푸시려는듯 차의 의자에 조용히 기대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수령님께서는 순간마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색을 멈추시지 않으셨지요.

창밖을 내다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갑자기 차를 멈추시도록 하시였습니다.

아,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가시

덤불이 뒤엎킨 산비탈로 오르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말라버린 넝쿨에서 주먹만큼씩한 두개의 산열매를 따드시었지요. 그 후 이 열매를 우리 식물원에 보내주시면서 평양에서는 보기도문 열매인데 인민생활에 유용하게 쓸수있으니 더 연구하여 널리 퍼뜨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있는 하늘타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길가의 이름없는 한그루 나무도, 등판에 엮킨 하나의 가시덩굴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에 스스로 머리가 숙어졌다.

나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사람들이여, 야산이나 등판에 소문도 없이 피었다가 속절없이 사라지던 이 야생초-하늘타리가 어찌하여 오늘 여기 식물원에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잊지 마시라.

식물연구집단은 그 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식물의 생리적특성을 전면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뿌리와 열매씨는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크다는것이 알려지게 되었던것이다.

이런 뜻깊은 사연이 어찌 하늘타리 하나에만 깃들어있으랴.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목란과 향오동, 항일혁명투쟁의 그날을 회고하시며 몸소 보여주신 원추리, 그리고 인민들이 식생활에 쓰이도록 가르치심을 주신 기름밤나무...

중앙식물원을 나서며 나는 온 나라-금수산의 모든 산과 들을 다니며 온갖 나무와 꽃과 열매들을 다 본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 4. 새들이 날아든다

한낮의 해도 어느덧 기울기 시작하여 서늘한 바람이 정답게 옷자락을 스칠무렵.

우리 일행은 중앙동물원입구에 서있었다.

동물원앞의 분수가에는 세찬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으며 서로 교차되는 통에 자그마한 무지개가 섰다.

조각품인 봉어의 입에서 뿜어대는 물줄기를 보고 아이들은 좋아라고 손뼉을 쳤다.

숲이 우거진속에 동물의 집들이 가리워있어 동물원은 더없이 아름다와보였다.

대뜸 생각키우는것이 바로 대성산의 수려한 풍치와 어울리게 동물원이 자리잡고있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토록 좋은 자리를 벌써 오래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동물원터전으로 내놓으시였던것이다.

우리는 먼저 물고기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최동무에게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턴 동물학강의가 시작되는데 최동무가 감사노릇을 안해보겠나?》

《나야 대성산전설을 강의하라면 했지... 동물학은...》

《린접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럼 동물학의 린접과학이 뭐가?》

나는 말없이 금선동무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생물학부 졸업생이 또 말아야겠수다.》

금선동무는 내말을 받으며 아는것이 없지만 그러겠노라고 하였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물고기집을 돌아보았다.

금선동무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살고있는 물고기 종류는 700종을 훨씬 넘는데 그 가운데서 민물고기만 하여도 16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물고기집에서 본 수십가지의 물고기가운데서도 제일 인상깊이 남는것은 기념어이다.

잔잔한 물결을 헤가르며 은빛나는 큰 몸뚱이를 공중으로 솟구군하는 기념어가 세상에 알려진것은 오래지 않다.

이 물고기의 이름을 기념어라고 부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8년 여름 수풍호에서 처음으로 손수 잡으신것이므로 이것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한마리의 이름모를 희귀한 물고기를 보시고도 후대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우리 일행은 종합대학선물관에서 본 기념어를 감회도 깊이 여기서 또다시 보게 된 기쁨을 안고 물고기집을 나섰다. 우리는 개구리집과 뱀집을 거쳐 여러가지 짐승들이 사는곳으로 갔다. 그네를 타는 성성이와 물장난을 하는 코끼리도 보며 원숭이산과 곰산을 거쳐 우리는 범집, 사자집, 노루와 사슴이 뛰노는 풀밭집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짐승류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나라 짐승이고 성성이와 코끼리, 하마 등 열대지방에서 사는 큰 짐승들은 여러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삼가 올린것들이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계인민들로부터 얼마나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계시는가를 알수있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깊이 간직하였다.

온갖 꽃 만발한 꽃밭에 에워싸인 런못가에는 원앙새와 물오리떼가 조용히 헤엄치고 숲속에서는 꿩들이 푸드득거려 그 어떤 울타리를 둘러친 동물원이라는 인상은 전혀없이 동물들만 사는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온것 같았다.

더우기 여러가지 새들이 살고있는 새집들을 돌



아보면서 우리는 독특한 산촌정서를 느낄수 있었다.

아름다운 새들은 저마다 고운 목청으로 오늘의 이 행복을 노래하는듯, 그리고 이처럼 좋은 보금자리로 자기 동무들을 목청껏 부르는듯싶었다. 우리가 앵무새집앞에 서있는동안 한때의 새무리가 새집주위에 날아들었다. 그러니 어느것이 동물원에 등록된 새이고 어느것이 이곳 새동산이 좋아 놀러온 새인지 분간하기 힘들었다.

금선동무가 이 광경을 보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기 동물원이 하도 좋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리의 꿩이 날아들고 철을 따라 오고가던 철새들도 여기에 내린답니다. 정말 그러고보면 대성산 동물원은 인공동물원이라기보다 자연동물원이라 고도 할수 있지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정녕 새들도 예가 좋아 날아가다가도 깃을 치며내리고 예가 좋아 노래부르거늘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어찌 그칠새 있으랴.

## 5. 이끼푸른 성벽에 올라

소문봉에 오른 우리는 427년부터 6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160여년동안 고구려의 수도로 있는 대성산일대를 새롭게 굽어보았다.

광활한 평토와 강대한 국력을 자랑하던 고구려! 그의 옛관도를 바라보느라니 고구려의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소문봉으로부터 남문을 향해 뻗어내려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방어선인 대성산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를 대충 알수 있었다.

높이가 274미터인 을지봉을 주봉으로 하고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소문봉 등 6개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대성산은 평양부근에서 제일 높고 험한 산일뿐아니라 2개의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산성을 쌓는데는 가장 적합하였던것이다. 나는 력사전문가인 최동무에게서 얻어들을 소리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을 뱉다.

《모르는 소견에도 여기서보니 지형상산성을 쌓을만한곳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떤가?》

《산성을 쌓기엔 정말 좋은 지형이지. 이런 유리한 지형조건을 고구려사람들이 왜 타산하지 않았겠나.》

《좀 자세히 설명해주게.》

《고구려사람들이 이런 지형에 성을 쌓은것은 우선 성안의 군사들이 성밖에 있는 적들의 상태를 잘알고 전투를 할수 있기때문이네. 다른 한 측면은 적들이 성을 공격할때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를 방어하는 군사들에겐 유리했기때문이네.》

최동무는 손을 들어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말했

다.

《저기 북쪽으로는 자모산줄기와 련결되어있고 남쪽은 대동강, 서쪽은 함장강, 동쪽은 장수천을 끼고있으니 대성산처럼 이렇게 방어에 유리한곳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거네. 그런데다가 대성산골짜기에는 수십만명의 군사에게 필요한 물을 얻을수 있는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있었으니까...》

최동무는 대성산성의 규모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는 산성의 둘레만해도 7076메터나되며 우리 나라에 전해지고있는 800여개의 산성가운데서 손꼽히는 큰 산성이라고 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했는가 하는것은 이 산성뿐아니라 저기 터전이 내려다보이는 안학궁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쪽을 내려다보았다.

최동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안학궁터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던시기 고구려의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네. 안학궁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은 그 면적이 38만평방메터나 되며 궁전두리에는 한면의 길이가 622메터되게 네모형으로 성벽을 쌓았고 성벽밖에는 4면으로 해자를 둘러쌌다는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수 있을거네.》

그는 해자란 성밖으로 쪽 돌아가면서 깊이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워 적이 성벽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 시설이라는것도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궁터를 잡는데서도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뒤로 가면서 점차 높아지게 하였다는것과 그들이 건축물의 중심을 깊이 느끼게한것도 건축물의 웅장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으로써 이것은 고구려왕궁건축에서만 볼수 있는 우수한 특징이라는데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나는 최동무의 말을 들으면서 당시 고구려의 건축술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던가를 새롭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소문봉꼭대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안학궁터가 바둑판같이 한눈에 안겨왔다.

수십개의 건물자리, 여러개의 성문자리들과 가로세로 난 길들, 못자리, 해자리들이 그대로 완연히 드러났는데 건물자리들에는 수천개나 될 주춧돌자리들까지 뚜렷이 보였다.

그리고보면 마치 안학궁터는 무슨 웅장한 건물의 기초공사장같기도 하였다.

궁터의 웅장은 저절로 이 땅위에 드러나있는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로동당시대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만만 발굴될수 있었다.

실로 안학궁터에 대한 발굴사업은 천년동안 흩어 묻혀있던 하나의 크나큰 도시를 발굴하는 방대한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고구려의 궁성을 발굴하는 사업을 위하여 여기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하여 주시었다.

정말 오늘 안학궁터가 자기의 옛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을 거쳐 무심히 볼수 없었다.

우리는 곧 유람도로를 따라 걸었다. 남문을 거쳐 얼마쯤 가니 산골짜기에 큰 호수가 보였다. 이 호수가 바로 미천호였다. 여기 아름다운 산중 호수에서는 사람들이 배놀이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우리는 잠시 호수가를 거닐었다.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는듯한 미천호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아홉마리의 룡이 살고있었다는 전설이 깃든 구룡못을 거쳐 장수봉을 향해 올라갔다.

장수봉꼭대기에는 높이 지은 정각이 추녀를 들고 날아갈듯이 서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수각이다.

장수각은 고구려시대의 건축미를 그대로 살려 전후시기에 복구해놓은것이다.

해빛을 받아 번쩍이는 지붕우의 기와장들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속에 마치 신비로운 《자봉와》가 있는듯이 생각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땀을 들이면서 최동무에게서 장수각에 깃든 달매와 범달이에 대한 전설을 아주 흥미있게 들었다.

우리는 전설의 세계에 잠긴채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곳 대성산에 있는 하나의 작은 못에도, 하나의 정각에도 이렇듯 전설이 깃들어있는데 온 대성산과 이 일대를 천지개벽시킨 로동당시대에 생긴 수많은 이야기들이야 이것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훌륭한 전설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후대들은 이 이야기들을 대대손손 길이길이 전하게 될것이라고-

## 6. 웃음많은 산

우리가 유희장엘 간다고 하니 우선 아이들이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하긴 아침부터 유희장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아이들이다.

유희장입구에 들어서던 우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대역들의 웃음어린 얼굴들을 보았다.

저만치 앞서가던 아이들이 쏘르르 달려왔다. 그 리고는 저마끔 웨쳤다.

《아버지! 공중렬차!...》

《비행기타자!》

《말타자》

우리앞에 처음으로 맛들린것은 대관람차였다. 푸른 하늘을 이고 수차처럼 돌아가는 대관람차!

관람차를 탄 우리의 눈앞에는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수도의 전경이 황홀하게 안겨왔다.

우리는 상쾌한 기분으로 공중렬차를 탔다.

잠시후 우리 일행은 관성단차가 있는쪽으로 갔다. 그리로 가던 나는 그만 《앗!》 하고 깜짝 놀란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머리우에서 단차가 쏜살같이 내려쫓히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잠시 멍한채 서있었지만 거기에 타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웃고있었다. 나는 넋을 잃고 단차들이 돌아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곧 단차를 탔다. 단차는 하늘높이 올라갔다가는 밑으로 내리쫓히고 다시 솟구쳐올랐다. 그 순간 나는 숨도 바로 못쉬고 눈을 딱 감았다. 그랬더니 옆에 탔던 한 처녀가 나직이 말했다.

《숨을 크게 쉬시구 마음을 꼭 놓으십시오.》

《동문...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만.》

《우린 늘 높은데서 팔을 휘젓고 다니는걸요 뭐.》

《그럼 건설장의 기증기운전공?!...》

처녀는 웃으며 《예》하고 나직히 대답하였다.

단차가 다시 휘익하고 돌아갔다.

하늘과 땅이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는것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좋아라고 손뼉을 쳤다.

최동무도 기분이 상쾌하여 웃고있었다.

그러는 최동무를 바라보던 금선동무가 나보고 귀뜸을 했다.

《우리 문철이 아버지 원래 잘 웃지 않는 똑한 성민데... 오늘은...》

나는 자신도 웃고있다는것을 증명하려는듯 크게 웃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공중유희에 익숙해지려고 일행을 탐비행기쪽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어느덧 떴어선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 땅등어리가 빙빙 돌아갔다.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내며 사선으로 기울어질 땐 좀 어지러운것 같았지만 곧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젠 아무리 공중에서 빨리 돌아가도 일없을것 같았다.

탐비행기에서 내린 우리는 청량음료점으로 갔다. 거기서 시원한것을 마신 다음 요란한 웃음이 터져나오는 꽃그릇회전대앞으로 다가갔다. 꽃그릇에 앉은 사람들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우리는 어느덧 그 웃음소리에 이끌리어 꽃그릇에 올라앉았다. 나도 몸을 흔들며 웃기 시작했다. 꽃그릇이 돌 때마다 나도 돌고 유원지도 돌았다. 그랬지만 이젠 어지럼증을 하나도 느낄수 없었다.

우리는 실컷 웃고나서 그 자리를 떴다.

최동무네 아이가 아버지를 붙어잡고 줄라댔다.  
《아버지! 나 말할래!》

《그래그래.》

아이들은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회전말유희장으로 달려갔다.

회전말은 아이들만 탔다. 말이 돌아갈 때마다 그들은 캐득캐득 웃었다.

우리는 우주비행선과 물결회전대, 회전비행기도 탔으며 회전그네도 탔다. 모두가 신바람나는것들이었다.

우리는 오늘 이만하면 유희시설들을 다 타본셈이니 마지막으로 관성렬차만 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최동무가 무엇을 보았는지 주춤 멈춰섰다.

《저건 또 뭐가... 그렇지 물미끄럼대...저것까지 구경해야지.》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는데 금선동무가 한마디했다.

《아니, 오늘 당신이 웬일이세요. 아이들보다 더...》

우리가 물미끄럼대앞에 갔을 때 수차는 빙빙돌면서 수로에 물을 퍼올리고있었다.

우리는 배를탔다. 배가 미끄러져 곤두박치면서 물갈기를 일굴 땀 정말 기분이 상쾌했다.

내가 금선동무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걸 못타보고 그냥 갔더라면...》

우리모두는 웃었다.

관성렬차만 타보면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전기자동차를 타자고 줄라댔기때문이다. 하마트면 그것도 빼놓을변하였다.

우리는 다같이 전기자동차를 탔다.

자동차가 사방에 부딪칠 때마다 웃음이 절로났다.

최동무는 너무도 유쾌해서 크게 웃었다. 그들은 금선동무가 남보기 민망한듯 《그만 좀 웃으시라요.》하고 룡조로 말했다. 그러자 최동무는 《내가 어디 웃어?! 허허...》하며 또 웃어댔다.

내가 한마디 했다.

《이런 날 실컷 웃어야지 언제 웃겠습니까!》

나는 행복에 넘쳐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펴 도는것을 느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관성렬차를 탔다.

렬차는 굽이굽이 촌살같이 돌아갔다.

이것은 유희가운데서도 극치라고 말할수 있었

다.

참으로 오늘 유원지에서 받은 인상은 일생 잊혀지지 않을것 같았다.

우리가 천천히 유희장입구를 나서는데 뒤에서 젊은 부부가 유쾌히 웃으며 주고받는 말이 들렸다.

《거참, 신바람이 나는구만.》

《그것보세요, 안오겠다고 고집쓰시더니...》

《그땐 몰라서 그랬구... 얼마나 좋소. 힘이 부쩍 부쩍나는게... 래일은 일감을 두배세배 해제길것만 같소.》

그렇다! 그들의 말처럼 나도 새힘이 부쩍부쩍 솟는것만 같다.

유원지에 넘치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는 나의 눈앞에는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전후 그 바쁘신 나날에 찬비를 맞으시며 여기 대성산에 나오셨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떠올랐다.

정녕 오늘의 대성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쌓으신 업적과 베푸신 은혜가 모두 인민의 행복으로 꽃피어 이 땅위에 새롭게 솟아난 인민의 락원이며 온 나라의 기쁨이 다 모여오는 웃음많은 산이다.

×

사람들이여

여기대성산에서 유원지의 하루를 보내며 마음껏 즐길때 혼하디혼한 한줌의 흙과 조약돌하나, 나무 한그루와 풀 한포기, 저 하늘에 나는 새 한마리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그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 뜨겁게 깃들어있거니 아, 대성산! 대성산!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인민의 락원으로 높이 솟아오른 산이여.

그 넓은 한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고이 간직하고있는 산이여.

이 나라의 모든 꽃향기와 온갖 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혁명의 수도에 안겨주는 산이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산이여.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주체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높이 솟아있으라.

오오, 대성산! 대성산이여!

## 나서 자란곳

강귀미

새벽이었다.

사위는 아직 어둡컴컴하였다. 별들은 꿈속에서 속삭이듯 반짝이고있었다.

아빠트들과 올망졸망한 건물들의 지붕이 뿌옇한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조개사시오. 조개사시오-》

《두부사시오. 두부요-》

밤새 바다가에서 잡은 조개를 한짐지고 소리치는 조개장사며 자전거집판우에 두부통을 올려놓고 요란하게 종소리를 울리는 두부장사는 골목마다에서 사람들의 단잠을 깨웠다.

고베시 다루미구는 삶을 위해 새벽부터 허우적거리며 붐비었다.

《크로바다방》

《전당포-야마모토》

다닥다닥 나붙은 간판들이 희미한 룬팍속에 각양각색의 얼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땅 아무 거리에 가나 볼수 있는 새벽전경이었다.

다루미역쪽에서 시모노세끼행 열차가 새벽공기를 가르듯 기적소리를 길게 울리며 떠나갔다.

방금 그 새벽차에서 내린 얼마 안되는 손님들속에 몸매 날씬한 처녀가 있었다. 트렁크를 곁에 놓고 한참 주위를 살펴보던 그 처녀는 거리쪽으로 곧바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질서한 거리, 양풍과 왜풍 속에서도 민족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키려는듯 몸매에 어울리게 입은 치마저고리와 길게 땡아늘린 외태머리, 반듯한 이마에 리지적인 두눈... 아무 모로 보나 조선 처녀의 체취가 풍기는 모습이었다.

그의 두눈은 이 거리의 풍경에는 아랑곳없이 어떤 이름할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윽히 빛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그는 바로 간토표원양성소를 졸업하고 이곳 조선중고급학교에 배치받아오는 리순분이었다.

첫 교단에 올라서게 되는 기쁨, 어떤 아이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가, 과연 그 아이들을 훌륭히 키울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하여 가슴은 마냥 설레이기도 하고 근심이 앞서기도 했다. 길거리 맞은편 《아사히신봉판매지점》 간판이 나붙은 2층집에서 옆구리에 낀 신문통구리에 팔이 채돌아가지 않아서인지 그것을 유술복피로 동여 어깨에 메고 나온 한 소년을 보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나 걸음을 멈추었다. 소년이 멘 떠는 목과 어

개사이에 배겨 부자연스러워보였다. 소년은 목을 겨우 빼들고 아직 밝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모자를 다시 한번 고쳐내리쓰더니 고개를 푹숙이고 걸어갔다. 또 다른 소년들이 그 건물밖으로 와르르 나와 저마다 갈길을 재촉해갔다.

소년을 보니 문득 가나가와를 떠날 때 신문을 배달하던 남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졌다.

(저 애들의 깊은 잠을 깨워야 했던 어머니와 누나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가.)

그 언젠가 어머니가 (신문배달은 새벽 3시에 나가야 했었다.)똥아서 굳잠이 든 동생을 차마 깨울수가 없어 그냥 재웠다가 늦게야 일어난 동생이 왜 깨우지 않았는가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던 눈물겨웁던 일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이국땅은 배움과 삶을 위해 아이들의 어린 마음까지 앗아냈다.

순분이가 새빨간 우편통이 우뚝 서있는 길모퉁이를 돌아서던 찰나였다. 갑작스레 웬 소년이 휩달려오는 감각이 느껴졌다. 순분이는 황급히 몸을 비끼려했으나 그만 그 소년과 부딪쳤다. 《앗!》 그는 손에서 트렁크를 떨어뜨렸다. 순간 트렁크우로 신문이 와그르 흩어져 덮였다.

순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상대방은 웬 신문배달소년이었다.

열서너살 되였음직한 다부지게 생긴 소년인데 모자를 지나치게 푹 눌러써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수 없었다.

순분이가 얼른 흩어진 신문들을 주어모아 소년에게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새 소년은 그것을 잡아채다싶이 앗아안고 돌아서서 아주 익숙한 동작으로 눈깜박할새에 달아나버리었다.

말 한마디 건널 사이 없었다.

희미한 외등에 비친 소년의 뒤모습에서 검은 옷에 신문통구리를 멘 유술복피만이 두드러지게 보이였다. 그것은 순분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굴을 감추려고 한 그 소년으로 하여 마음이 야릇해진 순분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트렁크를 들려고 허리를 굽혔다. 땅바닥에서 외등불빛에 무엇인가 반짝하였다. 그는 트렁크를 들다말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 학교도표!...)

별이 가운데 있고 세계의 펜촉과 마치로 이루

어진 조선학교 모표였다.

소년의 모자에는 붙어있지 않았던 그 모표는 그가 신문을 주을때 옷주머니에서 떨어 뜨린것이 분명했다.

(그 애가 왜 모표를 떼서 주머니에 넣었을까? 조선소년임을 부끄러워 숨기려고 했을까...?)

모표를 켜 순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소년은 틀림없이 조선소년일것이다!)

순분이는 소년이 사라진 쪽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개학날이 되었다.

순분이가 교탁앞에 나서자 어린시선들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러더니 이내 교실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새로 온 선생을 두고 소곤거리는 녀학생들, 팔꿈치로 옆에 앉은 동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을 꾹쥌거리는 남학생들, 처녀선생을 두고 모두 호기심을 가지는 기색들이었다.

출석을 부르는 순분이에게는 처음 대하는 학생들이었건만 어디선가 꼭 만난것같은 한결같이 정다운 모습들이었다.

이윽고 순분이는 흑판에 흰백묵으로 큼직한 두글자를 새겼다.

《고향》

작문제목이었다.

고향이란 누구에게나 가슴속깊이에 간직되고있는 소중한 개념이었다.

제나라, 제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가고싶고 사무치게 가슴에 파고드는 절절한 개념이었다.

순분이 역시 이국땅에서 나서 고향을 모르코자랐지만 늙으신 할머니의 무릎우에 앉아 늘 들은 고향, 동구앞에는 시내물이 흐르고 뜨락엔 가을마다 주먹만한 열매가 주렁지는 한그루의 키높은 감나무가 서있는 경상남도 진주땅의 추녀낮은 초가집이 언제부턴지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었다.

그 어디에서 살아도 항상 고향을 잊지 말고 조선의 딸로 살자는 바로 그것이 생활의 신조와 같이 된 순분이였다. 그러기에 학생들에게도 그런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싶어 첫수업 작문제목을 《고향》으로 택했던것이다.

학생들은 저마다 작문을 짓기 시작했다.

교실안은 물뿌린듯 조용하고 다만 사각사각 펜촉달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순분이는 학생들의 사색을 깨뜨릴세라 발소리를 죽여가며 책상사이로 돌아다녔다. 순분이는 윤기가 흐르는 단발머리가 연신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녀학생의 뒤에서 멈춰섰다. 그 녀학생의 세라복어깨너머로 학습장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집 고향은 제주도의 바다가마을이랍니다.

나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과 같이 고향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그전에 거기에서 해녀로 일했답니다. 바다속에 들어가 미역도 따고 해삼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날이면 할아버지가 밤까지 해놓고 할머니를 기다렸답니다....》

여기까지 읽은 순분이는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그런것을 가가스로 참으며 그 아래를 더듬어보았다.

《...그 말을 듣고 우리 형제들이 하하하 웃으니까 할머니는 노여워하시며 지금도 미국놈들에게 짓밟힌 제주도에서 해녀질을 하고있을 이모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아픈 고향이야기였다.

순분이는 옷을번한 자신을 나무라며 이번에는 그 녀학생의 앞에 앉은 교수머리 박삼록이란 남학생의 학습장을 넘겨다보았다.

《...나는 사슴이 많은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전 나는 고향을 두고 인남이와 다름질을 하였습시다.

인남이는 고향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그 뜻이 나서자란곳이라고 써여져있다고 하면서 나의 고향이 나라현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자 인남이는 계속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그런지 인남이가 미워져서 남의 나라가 고향이 될수 없다고 우겨대던 끝에 그만 그를 한대 때려버렸습니다...》

동심이 비낀 글이지만 순분이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이 학생, 저 학생의 작문들을 보았는데 다 이러루한 내용들이였다.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졌다. 순분이의 눈길은 아이들의 머리우에서 허둥거리였다.

한참후에 맨뒤 창문옆에 앉은 학생에게 눈길이 땀었다. 손에는 연필을 쥐였고 책상우에는 학습장이 펼쳐져있는데 한자도 쓴 흔적이 없었다. 그저 창너머 푸른 하늘만 멍하니 내다보고있었다.

술진 눈섭에 당돌하게 생긴 눈, 고집스럽게 꼭 다문 입,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소년이였다.

순분이는 그 학생옆에 살그머니 가서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다.

《학생은 왜 안씀니까?》

《.....》

머리를 다소곳이 숙일뿐 대답이 없었다.

《왜 말이 없어요?》

뜻밖에도 그 학생은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울먹울먹하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저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뭐예요?》

(고향이 없다니?!)

《나서자란곳이 없단말이요?》

순분이는 열결에 이렇게 물었다.

《……》

글짓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길이 한꺼번에 그 학생에게 쏠렸다. 어떤 학생은 키득키득 웃기도 하였다.

순분이는 당황했다.

김철규라는 그 학생은 종시 작문을 내지 않았다.

순분이는 어쩐지 첫수업이 마음에 걸렸다.

《철규학생, 방과후에 교원실에 오시오.》

순분이는 이 말을 남기고 교실에서 나가버렸다. 방과후 순분이는 교원실에 앉아 철규를 기다렸다. 철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이 초조해진 순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급반 2학년 1반》이라는 표쪽이 나붙은 교실은 텅 비어있었다. 철규의 가방도 없었다. 그는 집으로 가버린것이 아닌가.

(철규란 대체 어떤 소년일까?)

순분이는 더 앉아있을수 없었다. 저녁 어스름이 깃들자 순분이는 철규네 집을 찾아 교문을 나섰다. 순분이에게는 첫가정방문이었다.

철규네 집은 다루미강 다리밑에 있었다.

온갖 오물을 내다버리는 강기슭에 다리를 지붕 삼아 지운 판자집이었다. 일본구역소에 명세도 오르지 않아 세금도 청구하지 않는 집이었다.

순분이는 류달리 불안해지는 마음을 안고 조심히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다.

《거 누구시오?》

방안이 침침해서 안을 분간할수 없었으나 대답 소리가 나는것으로 보아 누가 있는것이 분명했다. 자세히 보니 구들이자 부엌인 단간방에 한 녀인이 자리에 누웠다가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철규학생 담임선생입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철규 어머니입니다.》

뜻밖에 귀한 손님을 맞아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어머니는 손더듬으로 석유등잔불을 켰다.

방에 들어가앉은 순분이는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너울거리는 불빛에 눈에 띄우는것이란 찌그러진 밥상 하나에 거뭇거뭇한 옷장, 앉은뱅이책상뿐이었다.

철규 어머니는 이런 가난한 살림을 보이는것이 웅색해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나는 이렇게 밤낮 앓고... 철규 하나 의지하고 사는 살림이다보니...》

《아니 그럼 철규에겐 아버지가?!...》

《선생님, 그래요. 철규는... 그랜 아버지를 잃었답니다.》

녀인은 띠엮띠엮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초면이라는것도 까맣게 잊은듯...

...철규 어머니가 고향인 경상남도의 어느 시골

집에 시집을 간 다음날, 낮을 익히지도 못한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차마 물어볼수도 없고 해서 혼자숙을 앓고있는데 사흘째되는날 아침 시어머니가 딱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은 머슴을 사는 몸이어서 어차피 잔치한 다음날에 떠나갔다는것이였다. 억이 막혀 그는 뒤산에 올라가 혼자서 가슴을 쳤다.

남편은 3년만에야 돌아왔다.

그는 기뻐다. 자리에 누웠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젠 부부가 오금을 부지런히 놀리면 입에 풀칠은 물론 남이 부러워하게 살아가리라.)

기쁨도 컸지만 희망은 더 컸다. 그러나 남편은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담배만 풀석풀석 태웠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왜서 그렇게 상심하셔요?》

그는 기쁨과 의문이 함께 어린 고운 눈길을 남편에게 보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우린 이곳을 떠나야겠소.》

《아니 떠나다니요?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예?...》

남편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후 그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향을 등지고 현해탄을 건넜다.

살길을 찾아 일본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던 그들은 탄광에서 두 아들을 잃고 여기 다루미강의 다리밑에 자리를 옮겨앉았다. 그들에게 셋째 아들이 생겼다. 철규였다.

그런데 그리도 기쁨에 넘쳐 출생등록을 하러 갔던 남편이 맥없이 집에 들어섰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는 다우쳐 물었다.

《철규에겐 출생지가 없구려.》

남편은 피로운듯 돌아섰다.

그날 주소도 번지도 없는 다리밑에서 태어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가슴을 태우던 남편은 이국땅에서 자랄 아들에게 떳떳한 주소가 있는 집이라도 하나 물려주고싶다고 하면서 별이가 좋다는 바다에 나가 배사람이 되고말았다.

《어느날 파도가 사나운 바다에 나간 철규 아버지는 종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

눈물이 글썽해서 이야기하던 어머니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웃고름에 손을 가져갔다.

순분이도 눈물이 나와 철규의 책상쪽으로 돌아앉았다. 책상우에 놓인 자그마한 책꽂이에는 몇권의 교과서와 학습장들이 꽂혀있었다.

적삼소매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르고난 다음 순분이는 책꽂이에서 손에 짙이는데로 책들을 뽑아보기 시작했다.

한 학습장을 뽑아든 그는 갈피를 몇장 번지었다. 일기장이었다. 1년전부터 드문드문 쓴듯 날자를 뛰어넘은것이 많았다.

아마 누구에게도 말못할 사연만을 적은것 같았다.

6월 5일 화요일

오늘 나는 바다가에 나갔다. 크고작은 파도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와다가는 또 뒤로 물러가곤했다. 끝없이 설레이는 바다를 바라보고있노라니 갑자기 아버지생각이 났다.

내가 소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날 선생님이 나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알아오라고 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만 하염없이 바라볼뿐 나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는것 같지 않았다. 나는 재차 다그쳐물었다.

《아버지. 우리 고향은 어디나요?》

《…………》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알아서 무슨 소용이나는듯 말없이 나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내가 다시금 묻자 버럭 성을 내었다.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웬일인지 아버지는 눈에 눈물이 글썽하게 피어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를 잊을수 없다.

아버지는 왜 고향이 없다고 했을까?

일기장을 든 순분이는 심장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작문을 쓰지 못한 철규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읽은것이였다.

순분이는 그이상 더 일기장을 번지지 못했다. 또 무슨 사연이 적혀있겠는지 두려웠다.

잠시후 순분이는 요즘 써놓은 마지막장을 덮으려다 뜻밖의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다.

처음 이곳에 오던 날 새벽, 길모퉁이에서 부딪쳐 야릇한 인상을 준 그 소년이 바로 철규였던것이다.

순분이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딱 감았다.

《선생님, 저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철규의 울먹울먹한 목소리가 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파연 철규의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이라는 제목밑에 한자의 글도 새겨넣을수 없었던 철규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순분이는 가슴이 저리였다. 애들에게 고향을 잊지 않도록 귀중한 녀을 키워주자던 노릇이 오히려 철규의 마음속의 가장 아픈곳을 다쳐놓은것이 아닌가? 철규의 가슴속 상처를 무엇으로 아물거줄수 있단말인가? 무엇으로?...

피로움에 모대기며 천천히 어머니쪽으로 눈길을 옮기던 순분이는 맞은편 구석벽에 눈에 익은

유술복띠가 걸려있는것을 보았다.

새벽마다 저 유술복띠를 어깨에 걸치고 바람부는 길로 나설 때 그의 어린 마음이 어땠으랴.

순분이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더 아팠다.

그리고 철규앞에서 고향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허물어지는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이야기속에서 들은 고향도 순분이의 마음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속엔 온통 먹장구름만 뒤덮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묻혀버렸다.

(철규의 아버지는 왜 고향이 없다고 했을까? 고향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향... 고향이란 나서자란곳만이 아니란말인가?

삶의 길을 잃은 땅... 철규 아버지는 삶의 권리를 잃은땅으로 나서자란곳을 고향이라고 부를수 없었던것이 아닐가?)

순분이가 철규의 집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못별들이 반짝이였다.

이국땅 다리밑에 보금자리를 펴고 가난속에 헤매이는 철규에게 언제면 행복이 찾아들까.

순분이는 호- 한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국의 밤하늘은 별빛마저 싸늘해보였다. 바로 이때 별찌 하나가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숨가쁘게 들어왔은 다루미강쪽으로 긴 포물선을 그으며 떨어졌다.

순간 순분이는 저도 모르게 철규일가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예로부터 별찌가 떨어질 때 마음속으로 소원을 외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지만 사실 순분이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어쩐지 그렇게 됐으면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베개를 인형아기라면서 업고 놀던 그 소녀시절, 순분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었다.

어머니가 콩치 한접시를 놓고 좀 늦게 해달라느니 못하겠다느니 하면서 고기장사와 흥정을 하고 있는동안 어린 순분이는 옷상점앞에 홀린듯 서있었다.

진렬장안에 방실 웃고있는 자그마한 인형이 입은 옷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것이다.

하르르한 연분홍색천에 레스장식이 가슴에 달린 원피스였다.

(나도 저 옷을 한번만이라도 입어봤으면...)

순분이의 마음은 건잡을수 없었다. 뒤에서 어머니가 찾는것도 못들었다. 어깨에 손이 닿았을 때에야 정신이 든 그는 어머니의 낮색을 살피며 줄라보았다.

어머니가 가격표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흐리였다.

《순분아, 당장은 돈이 모자란다. 이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것을 팔아 사주마.》

그 다음날부터 순분이는 그 옷이 팔리거나 없었나 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옷상점으로 가보곤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새끼를 빨리 낳으라고 자기의 밤을 절반씩 몰래 내다주기도 하면서 하루가 백날맛잡이로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외가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던 순분이는 밤하늘에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는것이 하도 신기해서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별찌가 떨어지는것을 보았다.

순분이는 별찌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돼지가 새끼를 빨리 많이 낳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순분이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돼지는 새끼를 한마리밖에 더 낳아주지 않았다.

순분이는 영영 실망하고말았다. 상점에도 가지 않았다. 그때부터 순분이는 《별찌이야기》를 믿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다 자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별찌를 보고 마음속으로나마 빌다니, 순분이는 허구픈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이었다. 순분이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얼굴이 빨갱게 상혈되고 땀으로 흠뻑 젖은 철규가 들어섰다.

순분은 아무 말없이 제자리에 가라는 뜻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흑판에 흰 백묵으로 《백두산》이라고 또박또박 쓰고난 순분이는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눈길이 자꾸 철규한테로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처음 순분이의 눈길과 마주친 철규는 인차 눈을 내리깔았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순분이와 눈길이 마주칠가봐 눈을 올려뜨지 않았다. 순분이는 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를 보는것만 같았다.

어쩐지 자기에게 처음부터 무언으로 대하는 철규와 마주앉고 싶었다. 오늘만은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속마음들을 다 해쳐놓을듯만싶었다. 그래서 순분이는 공부가 끝난후 그를 데리고 학교뒤 포플라나무아래에 있는 나무의자로 갔다.

철규는 입을 꼭 다물고 멀리 석양이 비낀 하늘가를 바라볼뿐이었다. 순분이는 안타까웠다.

《이것이 철규것이지요?》

더는 침묵을 지킬수 없어 순분이는 철규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모표를 그의 앞에 내놓았다.

철규는 좀 난처해하는 기색으로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볼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여전히 눈을 내리깐 상태였다.

《철규학생, 신문배달이 힘들지 않아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얼굴을 번쩍 든 철규는 쏘아붙이듯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신문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철규의 얼굴이 파리빛으로 되었다.

순분이는 아연해졌다.

《아니?!...》

더 말이 안나갔다. 선생이 얼굴이 붉어져 한동안 말을 못하고 앉아 있자 철규는

《선생님 저는 가보겠습니다.》하고 말하더니 꾸벅 절하고는 책 돌아서 어깨가 축 처져 아래로 걸어내려갔다.

《아니, 철규학생, 철규!...》

순분이는 몇발자국 따라가다가 굳어져버렸다. 자박자박...

멀어져가는 철규의 발자국소리마저 사라지자 순분의 귀에는 바람소리와 함께 포플라나무잎 설레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철규학생, 학생은 왜서 신문배달하는 일을 숨기는가요?)

순분이는 야속하였다. 어제밤 별찌를 보고 철규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울고싶었다.

(교장선생님, 저는, 저는 가슴이 아파서 그 애들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다!)

친아버지처럼 대해주는 교장선생에게만이라도 찾아가 아픈 마음을 터놓고 싶었으나 자신을 그런 철부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수 없어, 난...》

순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혹시 철규는 내가 나이 지숙한 교원이었더라면...)

그는 앞으로 길게 드리운 애꽃은 외태머리만 만지작거렸다.

정녕 철규는 순분이를 왜 그렇게 대하는지 날이가고 달이 바뀌여도 철규의 마음은 철문처럼 닫혀있었다. 그는 어른이 다 된것 같았다.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비끼었다. 웃음은 아예 잃어버린듯 했다.

그럴수록 순분이의 마음도 무거워갔다.

그의 마음처럼 흐린 하늘에서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고있었다.

비가 내리는지 파아란 하늘이 열리는지 그런 의식도 없는듯 순분이는 비를 맞으며 학교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얼마쯤 갔을 때 커다란 우산이 그의 몸을 씌워주었다. 그는 무춤 멈춰서며 올려다보았다. 교장선생이었다.

《비를 맞아서야 되겠소.》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걷는것이 더 좋습니다.》



《순분선생, 그러다가 감기라두 걸리면 어쩔려구... 무슨 일이 있었소?》

순분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기의 피로운 마음을 꿰뚫어보는것 같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얼굴이 상한것 같소.》

《.....》

머뭇거리며 얼마쯤 더 걸던 순분이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교장선생님, 한가지 물어도 좋습니까?》

《된데?》

《저... 학생이 교원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때 교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장선생은 심중해졌다.

《흠 그레 무슨 마음을 안준단말이요?》

《철규학생이 전...》

순분이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철규말이요?》

이렇게 말하고나서 교장은 그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걸어갔다.

순분이도 말없이 따라걸었다.

《순분선생은 그 애를 섬섬하게 여길겁니다. 그러나 그 애의 세계에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나 무라지 못할거요.》

《?!》

순분이는 의아해서 교장을 쳐다보았다.

교장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워물고 몇 모금 후- 내쉬었다.

《순분선생, 철규의 눈에서 눈물을 본적이 있소? 그 아이는 속으로 울어도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이지요.》

나는 철규의 아버지와 한때 부두에서 같이 일했었소. 그 애의 아버지가 그랬소.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얼마전 새벽이였소. 나는 마당을 쓸다가 신문배달 소년이 다가오길래 일손을 놓고 그 소년을 바라본적이 있었소. 교육자여서 그런지 그런 아이들을 본다는것은 여간만 피로운 일이 아니였소. 그 소년이 학생모를 썼는데 모표가 없어서 일본학생인줄 알고 그냥 지나보내려고 하는데 가까이 지나가는걸 보니 철규가 아니겠소. 철규도 나를 알아보고는 흠칫 놀라더군. 기가 막혀서 철규를 불러세우려는데 평시에 그리도 인사성이 밝던 철규가 인사는 커녕 나를 외면해버리는것이 아니겠소.

나는 배반이라도 당한것 같은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심정이였소.

그가 가버린후에도 모표를 떼가지고 다니는것만은 마음속에서 도무지 내려가지 않더구만. 생각이 복잡해진 나는 문득 철규의 어깨를 내리누른 신문통구리가 뇌리를 쳤소. 혹시 그는 자기가 왜

놈들에게 수모받는것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소. 나는 금시에 가슴이 죄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소.

그렇소. 바로 철규는 조선학생이 왜놈들에게 천대받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것이요. 강한 민족성이라할가, 나는 뜨거운것을 온몸으로 느꼈소. 그후부터 나는 그를 만날가봐 마당을 쓸러나가지 않았소. 철규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싶어서말이요. 순분선생, 선생을 속이는 철규를 우리 용서해주시다.》

교장선생의 음성은 떨리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있었다.

순분이는 비내리는 이 길을 혼자서 온종일 그냥 걷고만싶었다.

순분이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철규, 철규학생, 나를 용서해요.)

그들은 진탕물에 아래도리가 젖는줄도 모르고 걸었다.

달이 감에따라 순분이의 몸에도 백목가루냄새가 배였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속으로 우는 방법도 배웠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밤이 펴 깊었는데 순분이는 철규집이 있는 다루미강쪽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방금 교장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조선동포자녀들을 위해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접한것이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철규네 집앞에 이른 순분이는 뜨거워만지는 마음이 앞서 무턱대고 문고리를 잡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망설이였다. 방안에 불이 꺼져있었던것이다.

순분이는 철규의 곤한 잠을 차마 깨울수 없어 문고리를 잡고 매만짓거리다가 종시 놓고야말았다.

(차라리 래일 알려주자.)

그는 돌아서서 얼마쯤 걸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못한 아쉬움이 한껏 부푼 가슴에 자꾸 젖어들라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았다.

철규네 집이 한눈에 안겨왔다. 달은 밝건만 다리밑에 들어앉은 철규네 집은 어둠속에 고요히 묻혀 있었다.

순분이는 가슴이 뜨거워 눈물이 펴 돌았다. 점점 눈앞이 흐려졌다.

하숙집에 이른 순분이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기쁨에 넘쳐 어쩔줄 몰라할 철규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서였다.

참으로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순분이는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희한한 별세계가 펼쳐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조국이 있는 서

쪽하늘을 바라보았다.

큰별들이 유난히도 빛나는가 하면 그 큰별들뒤에 그윽히 반짝이는 아기별들이 수없이 나타나 반짝이곤했다.

조국은 어디일가. 저 별들이 빛나는곳일것이다. 조국의 별들아! 아버지원수님께서 이젠 이국땅의 아이들때문에 더는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너희들이라도 전하여주려마...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듯 별들은 더욱 아름다운 빛을 뿌리었다.

온밤 뜬눈으로 새운 순분이는 첫새벽부터 서들렀다.

어둠에 잠긴 모퉁이들을 에돌아 신문판매지점에 갔으나 철규는 없었다. 그가 배달나간 뒤였다. 순분이는 그가 갔음직한 골목골목을 정신없이 찾아헤맸다.

멀리 동쪽에서 하늘같이 들리며 날이 휘뿔히 밝아왔다.

새벽안개 내린 한 골목에서 순분이는 신문통구리를 둘러멘 철규의 뒤모습을 어렵곳이 가려보았다.

순분이는 너무 기쁨김에 교원이라는 생각도 잊고 어린애처럼 철규를 찾으며 뛰어갔다.

《철규학생-철규!》

자기를 찾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철규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애처럼 당황해하였다. 그러더니 얼른 어깨에 댔던 신문통구리를 왼쪽집 대문뒤에 숨겼다.

그렇게 기쁨에 넘쳐 달려가던 순분이는 바위처럼 우뚝 서버렸다. 그의 행동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나왔다.

격동적인 소식을 전하러 온 이 마당에서도 저런 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순분이의 가슴은 터지는것 같았다.

순분이는 말없이 다가가 철규가 숨긴 그 신문통구리를 둘러맸다. 그리고는 앞서 걸었다. 그의 두 볼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철규는 입술을 짹 깨물고 자석에 이끌리듯 몇 발자국 따라걸었다. 하지만 몇걸음 못가서 순분이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큰 눈에서도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선생님만은... 선생님만은 안됩니다!》

눈물과 함께 애원의 빛이 떠돌았다.

순분이는 더 참을수 없었다.

《철규, 철규! 선생은 다알고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철규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셨단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원수님께서 이국땅의 모든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하라고 귀중한 돈을 보내주셨단말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순분이는 걱정을 참지 못해 철규를 부여잡고 마구 흔들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철규는 멍청하니 서서 순분이를 바라볼뿐이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아니구. 이젠 신문배달을 안해도 돼요.》

《선생님!...》

철규는 돌아서서 전주대를 부여안고 소리내어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처음 보는 철규의 눈물이었다.

순분이는 가슴을 움켜쥐고 떨리는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올라. 마음껏 올라. 쌓이고 쌓인 설움이 다 풀리도록...)

순분이의 눈에 함짝 피었던 이슬이 두볼로 흘러내렸다.

《철규학생, 이걸 받아요.》

순분이는 줍속에서 흰 봉투를 꺼내 철규에게 내밀었다. 한창 순분이를 쳐다본 철규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한테 편지 올데가 없습니다.》

철규는 다시 도리질을 하였다.

《받으세요. 철규학생에게도 편지가 올곳이 있어요.》

《.....》

철규는 편지를 받아들고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눈물이 가리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온것입니까?》

《안보여요? 조국에서 온거예요. 조국에서...》

뿌연게만 보이던 봉투우에 점차 활달한 글자로 쓴 주소가 뚜렷하게 안겨왔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중학교 2학년 1반》

철규는 편지를 뜯었다. 봉투속에는 편지와 함께 파란 종이우에 다정성스레 표본을 만들어보낸 진달래꽃송이도 들어있었다.

그것은 푸른 잎속에 반쯤 얼굴을 가리우고 철규를 향해 정다운 미소를 보내는듯하였고 금시 향기를 풍기는것 같기도 하였다.

철규는 꽃송이에다 입을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 하였다.

그의 두볼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선생님, 조국의 진달래, 조국의 꽃...》

철규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순분이의 가슴속에도 조국의 향취가 전류처럼 흘러들었다.

《그래요. 조국의 꽃, 조국의 꽃이에요!》

동녘하늘이 흰히 밝아오고있었다.

한동안 말없이 제나름의 생각에 묻혀 걷던 순

분이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몇걸음앞에서 가는 철규를 바라보았다.

어깨를 들쭉거리며 걷는 철규는 기쁨과 흥분에 떠 물결쳐가는것 같았다. 행복한 모습이었다. 연약한 두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시름이 어디런가 사라져버리고 그대신 그 어린가슴에 뚝뚝한 그어떤 감정이 그들먹이 차오른듯싶었다.

순분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눈물이 나도록 기뻐다. 빼앗겼던 모든것을 되찾은듯하였다. 그는 바로 그 소중한것을 철규에게서 보았다. 그것이 기뻐던것이였다.

이윽고 그들은 갈림길에 이르렀다. 그들은 여기서 갈라져야 했다. 순분이는 하숙집으로 가야 했고 철규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자기집으로가야 했다.

철규와 헤어져 얼마간 가던 순분이는 주머니속에 있는 모표생각이 났다. 그는 모표를 꺼내취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철규가 간쪽을 바라보았다. 감격을 안은 이아침 그것을 철규의 모자우에 달아주고싶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랴. 동포의 존엄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철규가...)

순분이는 되돌아섰다. 그리고는 철규가 간 길을 향하여 달음박질쳤다.

어느 다방모퉁이로 철규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고있었다.

《철규학생!》

《.....》

《철규학생!》

철규는 노래에 취해 순분선생이 철규를 찾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순분이 몇번 불려서야 철규는 돌아섰다.

순간 순분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의 빛이 환히 피여올랐다. 철규가 쓴 모자에 모표가 나붙어 있었다.

순분이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눈시울이 확 뜨거워났다.

학생복을 단정히 입은 철규는 티없이 맑은 미소를 던지며 순분선생을 보고있었다.

마치 난생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처럼.

철규가 쓴 모자에 나붙은 모표가 해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순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하였다. 조국을 가슴속에 지닌 철규의 모습을 본것이였다.

《선생님...》

철규는 순분이의 눈에 함짝 피여 가랑거리는 이슬을 보고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생님은 오늘이 제일 기뻐요. 제일 기쁜 날이에요.》

순분이는 마냥 기뻐다. 철규가 쓴 모자를 고쳐쳐워주었다.

자신의 교원생활이 오늘을 위해 있는것같았다.

철규는 선생이 기뻐하는 얼굴을 처음 보았다.

부채살처럼 퍼져가는 아침해살을 받아 철규의 머리우의 모표가 유난히 반짝이였다. 온 세상사람들이 보란듯이...

순분이는 철규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나란히 걸었다.

철규는 가슴을 쪽 찢고 림름하게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맞은편 길모퉁이에서 철규또래의 몇몇 소년들이 나타났다.

아마 신문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본소년들 같았다.

철규는 머리를 더 높이 쳐들었다. 순분이는 어엿한 철규의 모습을 보니 조국,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품이 더없이 고마웠다.

순분이의 뇌리에는 문득 어린시절의 자기모습이 떠올랐다.

...별찌를 원망하며 잠든 어느날 밤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그렇게도 기뻐하다가 깨어나니 꿈이었다. 그는 설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머니 몰래 이불속에서 울고 또 울었다.

《별찌이야기》와 함께 이국땅아이들의 그 눈물에 젖은 시절은 영영 가버린것이였다.

그는 철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기쁨과 희망에 넘친 철규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다정히 속삭이고싶었다.

(철규, 고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향이란 나서자란곳만이 아니겠지. 삶을 꽃피워주는 조국이 어머니고향일거야... 그래, 그것이지...)

순분이는 끝없이 걸으며 속삭이고싶었다. 우리가 안겨살고있는 그 고향, 조국의 품에 대하여 끝없이 속삭이고싶었다.

(철도출판사 기자)

## 내 마음

림원빈

내 마음

얼마나 넓고 깊으면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다 해야될수 있으라

내 힘  
내 지혜  
얼마나 바치면  
아버이수령님의 그 은혜에  
다 보답할수 있으라

아 지난날을 더듬어도  
오늘을 생각해도  
받은 사랑 너무 많고  
입은 은혜 너무 커  
내 마음 그만 눈물에 젖네

그 사랑 그 은혜  
무엇으로 해야리라  
날마다 그 생각이면  
무엇이나 하고싶네

아 그래서 나는  
힘은 적어도 일밖에 모르네  
뜨거운 생각에 눈곱을 적시며

## 가사

좋지 못한 목청으로 노래도 부르네

그 사랑 그 은혜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싶어  
손에서는 책을 놓을줄 모르네

무엇을 더하면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을까  
무엇을 좀 더 하면  
내 충성 더 활짝 피어날수 있을까

언제나 이 한가지 생각에  
젖어사는 내 마음  
진정 무슨 일 더 하고만싶네

일이라면 밤낮!  
노래라면 목청껏!  
힘이라면 있는껏!

아, 그저  
값아야 할길  
그 길밖엔 더는 없네  
(평남도 대동군 국영잠업농장 로동자)

## 달려라 정다운 나의 자동차

윤석범

뜨는 해도 둥근달도 차창가에 먼저 맞는  
수송전사 이 기쁨에 노래도 길로 난다네  
달려라 저멀리 어서 달려라 나의 자동차  
조국의 재부 싣고 힘차게 달려라 나의 자동차

고속도로 가는 길엔 천하명승 다 안겨오고  
들을 지나 오는 길엔 금나락 물결치네

달려라 저멀리 어서 달려라 나의 자동차  
조국의 재부 싣고 힘차게 달려라 나의 자동차

무사고의 붉은별을 차창곁에 수놓으며  
온 나라에 앞장서는 청춘의 보람 넘쳐라  
달려라 저멀리 어서 달려라 나의 자동차  
조국의 재부 싣고 힘차게 달려라 나의 자동차

## 삶의 노래

문기창

삶이여, 기쁨의 벗이여  
너는 언제부터

내 가슴속에 자리잡은것이냐?!

지나온 세월의 물결을 거슬러  
조용히 노를 저으면  
희미한 기억의 안개를 헤치고  
내 어린시절이 불현듯 다가서누나

가난과 고역속에 골병들어  
너무도 일찍 세상 떠난 어머니  
나는 기억 못한다  
사랑의 그 눈길, 설음비낀 그 얼굴을

풍랑세찬 바다로 나가기전에  
아버지는 어린 나를 말없이 바라보며  
애뜻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리고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 사랑의 미소도 응석부림도  
모두 잃어버린 나의 앞길엔  
그 어떤 쓰라린 운명이 기다리고있었던가?!  
그 어떤 힘겨운 시련과 굴욕이  
애어린 넋을 휘감고있었던가

모진 세월 압담한 생활  
갈수록 캄캄한 어둠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과연 무엇인지  
언제гада 알수 없었던 이 몸

한생 그렇게 흘러갔으리  
생의 막바지 기슭에서 기슭으로  
떠다니는 신세 면치 못하고  
길가의 돌맹이처럼  
이리저리 채우고 굴러다니며

내 운명 정녕 비참했으리  
만일 칠칠혹야 어둠속에서  
내 손목 이끌어 광명속에 세워주고  
살들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처럼 따사로운 품이 없었더라면

아, 두팔 벌려 안아준 손길이어

한없이 자애로운 그 품에 안겨  
흐느끼며 웃으며 진정을 담아  
내 나서 처음으로 목메여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아 나는 어머니가 있음을  
가슴 사무치게 느꼈어라  
그때부터 내 생명의 피줄속에  
어머니조국의 맥박이 높뛰고  
이 땅 모든것의 주인된 긍지높이  
억센 힘 용솟음쳤나니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나는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난 몸  
나의 삶은 사랑의 그 품에서  
비로소 시작된것  
그리고 행복에서 행복으로  
끝없이 달려가는것

하기에 내 심장  
영원히 청춘으로 불타오른다!  
헤아릴수 없는 그 은덕에  
있는 힘 다 바쳐 보답하고자  
걸음걸음 넘치는 기쁨속에  
불길같은 열정으로 내 삶을 빛내고저

진정 나의 삶, 우리의 삶은  
한생을 순간처럼 열정의 불꽃 날리며  
끝없이 오르는 충성의 높이!  
영원히 기쁨과 행복속에  
어머니조국의 참된 아들로 사는것

삶이어, 내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아름다운 추억과  
보람찬 오늘과  
그리고 미래의 꽃향기를  
오, 삶이어 기쁨의 넋이어!  
더없이 벅찬 나의 삶이어!

## 나의 총

리성철

쓰러지면서도 투사들  
불안고 놓지 않았다  
한목숨 바치면서도

너만은 살려야 했다 총...  
선렬들의 피가 숨배여

쓰러진 전사들의  
묻히지 않는 넋이 어러  
이리도 소중한 나의 자동보총아...

너를 받아안던 입대의 그날  
생각도 깊었다  
입속으로 뜨겁게 외워보던 조국을  
내 가슴에 불같이 새겨안은 시각이여서

너를 그리안을 때면  
가슴속에 활활 불타는 맹세  
그 맹세속에  
조국이란 이름과 나란히  
다시 불러보는 네 이름이거니

총이여 나의 자동보총이여  
너에게 비껴있는것 아니냐  
조국으로 조국으로 허리치는 눈길 헤쳐  
장군님 따라오던 기폭의 그 붉은색  
이 땅을 제살처럼 자각한 병사들  
원쑤의 시체를 밟고 웨치던 함성  
너를 추켜든 하늘가에  
펄펄 날리던 조국의 기발이

총이여 진정 너는  
눈물많은 인민이 피로써 찾아온  
자주의 성스러운 보검  
하기에 원쑤를 무찌르는 전사의 가슴에서  
너는 정의로만 번쩍거렸거니

오늘엔 숭고하고 무거운 의무와 함께  
어린 이 병사의 가슴에 안겨  
못잊어 조국을 생각케 하는 총

네가 없이 어찌

이 땅의 수호를 말할수 있으랴  
놓으면 존엄을 잃고  
잡으면 목숨도 바쳐야 할  
너는 진정  
수령님 안겨주신 빛나는 믿음

찬비속 행군의 밤  
너를 안고 누울 때면  
온 조국을 한품에 안아보는 마음이다  
지켜야 할 못잊을 얼굴들과  
고향의 정다운 하늘이  
너에게 소중한 비껴있는것 같아서

그래서인가 총  
무겁기도 하더라  
번영하는 조국의 무게가  
나의 어깨우에 놓여진것 같아서  
그래서 항시 가볍게 너를 든다  
불타는 결전의 언덕을 넘어  
한달음에 달려갈 마음이여서...

총이여 나의 자동보총이여  
내 마음 흔들리면  
조국이 흔들리거니

간고했던 그날에 우리 수령님  
어머님의 손에서  
조국으로 물려받은 총이여  
이 총으로 시작된 조국  
이 총으로 받들어갈 락원

아 총  
수호자가 받아안은  
조국이여...

(조선인민군 군인)

## 젊은날의 한순간을

손광주

호각소리 쟁쟁하게 울리고  
신호기발 불타는 언제우에서

삭도에 실려오는 타입들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나는 흐뭇이 바라본다.

저 멀리 아아한 산발들이  
내 걸터앉은 언제와 키돋움하는것을

얼마나 들끓는 나날이던가  
폭풍 세차던 그 밤의 웃음소리  
길없는 길을 헤쳐가던  
그날의 노래소리

하늘땅을 우렁찬 발파로 흔들어깨우며  
우리 달려온 나날이어  
이제 저 아래 호수가 펼쳐지리  
언제밀에 철썩이는 푸른 물결이

밤이면 쟁반같은 둥근달 띄워놓고  
사람들 즐겁게 이 우를 거닐리라  
꿈많은 양어공처녀의 노래속에  
팔뚝같은 잉어들이 물장단치리라

얼마나 정겨우랴  
이 깊은 산속에 펼쳐질 래일  
여기서 부서지는 달빛 천만오리도  
새로 서는 마을의 창가마다에  
행복의 웃음되어 흘러넘치리

들려오누나 행복의 속삭임소리  
그날은,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그날은  
**방문기**

눈앞에 다가오누나  
그날을 위해 바치는 청춘  
그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랴

설레이는 기쁨 안고 마음속에 귀기울이면  
그 말가운 속삭임소리  
내 삶의 기쁨도 보람도  
정녕 그때문에 있는것이니

나래치는 열정의 노래여  
아, 창조의 불길속에!  
우리의 젊음이 있어라  
량만의 노래속에  
영원한 청춘의 봄이 있어라

화단의 꽃을 보아야  
꽃인줄 알고  
푸름이 짙어서만 봄을 안다면  
내 어이 젊은 날 여기 왔으랴

젊은 머리카락 바람결에 날리고  
온몸에 힘살이 꿈틀거리는 지금  
날아오는 저 삭도를 기다리는것이  
너무도 길어만 보이는구나  
타입물 기다리는 이 한순간마저...

(평양시 서성구역 열난방사업소 로동자)

## 뜨거운 심장으로

### 권강일

풍작이룬 가을들판을 바라보는 농장원들의 마음 못지않게 용해공들의 가슴은 출강의 순간에 기쁨으로 설레이나. 환희의 목소리인양 울려 퍼지는 출강종소리, 뒤이어 출강구를 터치며 쏟아져

나오는 쇠물, 쇠물의 폭포... 한초 한초 재이며 달려온 용해시간의 총화가 출강의 이 순간에 지어진다. 시료를 떠보며 로심을 살피며 마음속에 안아보던 빛발이 이 순간에 불꽃보라를 날리며 날

아퍼진다. 한숨이라도 더 내리고 계기를 살피고 열풍을 부르며 달려온 그 불타는 마음이 이 순간에 쇠물로 쏟아져내려 남비에 고인다.

누구인들 무심하랴. 출강은 하루에도 세번 네번씩 하는 일이지만 엇그제 용해공이 된 젊은 사람도 한생을 로앞에서 산 공훈용해공도 이 순간에만은 출강장을 떠나지 못한다.

내가 황해제철소 강철직장 5호평로를 찾았을 때도 마침 출강을 하고있었는데 마치도 해가 여기서 솟아 빛을 뿌리는듯 온 용해장이 눈부시게 밝았다. 쇠물꽃보라는 날리고 빛발은 날아퍼져 용해장철지붕새로 스며내리던 해빛을 산산히 날려버리는데 용해공들이 갑옷같은 용해복을 입고서서 남비에 차오르는 쇠물을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무쇠란간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쇠물을 가늠해보고있는 로장 오구택동무를 만났다. 그는 용해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겼다고 자랑에 넘쳐 말했다.

작업공정이 짜이고 과학기술적으로 쇠물을 끓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앞당겼는가고 내가 묻자 로장은 물론 그 시간은 헛치 않은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철고지는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10대전망목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지의 하나입니다. 강철고지를 점령하여야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습니다.》**

《80년대속도》창조어로 온 나라를 부른 당은 그 앞장에 강철로동계급을 세워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듯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겠는가.

더 늘어난 하루쇠물계획을 날마다 넘쳐하려면 걸리는것이 너무도 많았다. 새로운 용해법, 로조작이 연구도입되어야 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뜻을 강철로 받들어가려는 하나의 일념에 불타는 용해공들은 머리를 쓰고 집체적로의를 거듭했다. 산소가 약한거야 할수 없이 않는가, 열풍이 약해서 열이 오르지 않는건

우리가 토의할 일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조건타발을 하면서 혁신하지 못하는 때도 없지 않았으나 끝끝내 이런 보수적이고 침체한 사상을 극복하면서 대담한 기술혁신안을 연구해냈다. 그것은 축열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태에 맞게 개조하는것이었는데 그렇게만 하면 열풍이 고르로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많이 올수 있게 할수 있었고 로온도를 훨씬 높일수 있었다.

새로운것이 흔히 그렇듯이 이 기술혁신안도 처음에는 보수주의자들과 맞닥들렸지만 이들은 대담하게 대보수기간에 축열실을 개조하였으며 로에 불을 지켰다. 예견했던대로 로는 세차게 숨을 쉬고 온도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성공이였다. 30분이나 앞당겨 출강의 종을 울릴때 용해공들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우리는 확고히 30분의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우리 용해공들은 이렇게 한초한초 출강시간을 앞당겨가며 더 많은 쇠물을 끓여내는것으로 받들어가고있습니다.》

로장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로 출강시간을 당겨온 사연을 이야기했다.

펄펄 끓는 쇠물남비를 감아돌고 달려가는 80톤 기중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로앞으로 나왔다.

로앞에서는 벌써 새로운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거뿔해진듯싶은 빈 로속으로 장입이 시작되였다. 장입기중기는 포신같은 팔로 광석바가지를 들어서는 로앞으로 우르릉 다가선다. 그러면 로문은 기다렸던듯 우로 번쩍 들려올라가고 기중기는 쓸어나오는 사나운 불길을 맞받아 로속으로 육박한다.

어느덧 불길을 막아서서 로심에 짐을 부러운 장입기는 빈바지를 들고 달려나온다. 용해공들은 저마다 말은 초소에서 한조를 어길세라 조정단추를 누르고 계기를 살피고 로를 돌본다.

교대작업반장 김지연동무는 장입기중기에 뛰어오르더니 운전공뒤에 바짝 붙어섰다. 그리고는 명령하듯 운전을 지휘했다.

《3호문에, 그렇지 구석에 한바가지.》



《2호문짝, 로심에 돌.》

그의 말대로 문짝은 열리고 닫히고 운전공은 군동작이 없이 빙빙 돌고 달리며 그가 지적하는 곳에 파철, 광석을 쏟아붓는다. 로는 백열로 불타고 방금 들어간 파철은 어느덧 녹녹해져서는 얼음녹듯 스르르 무너져내린다.

로장은 이윽히 김지연반장을 지켜보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흔히 장입시간을 용해공들은 한가한 때라고들 하지요. 이때에 영양제식당에도 가고 모여앉아서 담배도 한대 피우며 담소도 하고… 하지만 저 반장동무는 이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장입을 구석구석에 골고루 잘하고 불길을 보아가면서 덧쌓이는데가 없이 해주면 잠입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 가열시간도 용해시간도 훨씬 줄일수 있다는걸 찾았지요.》

장입을 끝내자 반장은 기증기에서 나왔다. 힘있게 맞잡는 그의 손에서 나는 당의 뜻을 받들고 펼쳐나선 강철로동계급의 확고한 신심과 용기가 느껴져 용해복을 입은 그가 더 미더워보였다.

《어떻습니까. 쇠물도표를 보니까 5호로가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내가 붉은줄이 짙죽 다투며 올라간 쇠물도표를 보며 이렇게 말하자 그는 방열복 옷주머니에서 《용광로》를 꺼내 한대 권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실이 많았지요. 용해시간이 계속 지연대도 해탄로에 밀고 원료장에 밀고 나중에는 로가 어떻게 기능이 낮소 하면서 사람

타발까지 했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 할수 없는 일 같이만 생각되면서…

하지만 <80년대속도>창조제로 부른 당의 명령을 받아안고 들끓으니 모두 척척 풀려나가지요. 이젠 조건타발이란게 무엇인지 알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로보수직장의 힘을 빌지 않고 자체로 로천장을 보수하던 일이며 로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장입, 가열, 정련… 등 공정별작업을 빈틈없이 하던 일을 들려주었다.

반장은 또다시 로문앞으로 다가서서 로심을 살피더니 장입기를 불러댔다. 두번째 장입에 이어 후장입이 시작되고 불길은 점점 로문을 세차게 떠밀며 용을 썼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고 쓴 용해장에 가로 걸린 당이 제시한 구호가 웨치는듯 불빛에 번쩍였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후에 나는 또다시 쇠물이 폭포쳐내리는 용해장에 서있었다. 작업반장은 시계를 보며 용해시간을 30분 당겼다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나는 생각하였다. 쇠물은 결코 열과 불길로써 끓는것이 아니다. 용해공들의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하여 쇠물은 끓는다. 그 심장의 맥박의 한초한 초속에 용해장의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앞당기며 끓이는 쇠물의 그 흐름속에 그 충성의 시간속에 우리 당이 불러준 《80년대속도》의 그 위대한 력사는 창조되고있는것이다.

## 지상토론

# 《근거지의 봄》의 언어형상

박영래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오늘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론을 빛나게 구현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민족재생의 밝은 앞길을 등대와 같이 환히 밝히

시며 간고하고도 시련많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업적을 불멸의 예술적화폭속에 진실하게 형상한 대기념비적 걸작들이다.

당의 지도밑에 창작된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역시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참다운 혁명의 교과서로 되고있는것은 시대의 본질과 생활의 특징을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는 표현 수단과 수법들을 적중하게 리용하고 력사적사실들이 체현하고있는 뜻깊은 내용을 생활적으로 깊이 캐내여 전개된 화폭으로 보여줄수 있도록 언어형상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한것과 적지않게 관련되어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왕청유격근거지에 도착하신후 두만강연안일대의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유격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신 1933년초부터 1934년초까지의 1년사이의 의의깊은 력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명월구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유격대와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두만강연안일대에는 적들의 통치체제에서 벗어난 광범한 해방지구-완전유격구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유격근거지에서는 창설초기에 종파사대주의자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복잡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었다. 종파사대주의자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좌경맹동적인책동으로 인하여 왕청유격근거지에도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으며 이를 극복함이 없이는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꾸려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왕청유격근거지에 오시기전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었다.

유격근거지에 빚어진 혼란은 오직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었으며 2중 3중의 포위진을 치고 달려드는 일제놈들의 발악적인 《토벌》공세를 물리치고 유격근거지는 비로소 혁명의 믿음직한 보루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바로 이와 같은 력사적인 사실을 생활의 본색 그대로 장엄한 화폭속에 생동하게 담고있으며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묘사언어로서의 소설언어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사적에 깃든 끝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들과 생활화폭들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독자들을 소설의 세계에로 감명깊게 끌어들이고있다.

소설언어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생동하고 참신한 언어표현에 의해 담보된 감동적인 묘사에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형상하는데 응당한 초점을 돌리고 감동적인 묘사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견줄데없는 높이에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증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정,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묘사는 어느 갈피를 펼쳐보아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는 류현민이 국제당모스크바부류에 제기하는 보고문에 다음과 같은 인상깊은 구절들이 있다.

《그는 유격근거지의 실태에 대하여 증상적으로 써보낸 <통보자료>들과 무기명서한의 필자에 대하여 나에게 묻지 않았다. 범상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그것이 누구인가고 집요하게 파고들것이다. ... 그는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지어는 무엄하기 짝이없는 물음에 대하여서조차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여주었다.

나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그들중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파악하고 그에 공명하기에 앞서 그의 인격에 먼저 감화되어 다시말하면 그가 베푸는 사랑에 감동되어 그를 따르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의 사상으로 점차 무장되면서 혁명가로 자라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인상적인 구절들에는 조선혁명에 조선사람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신념밑에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진두에서 간고한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드물지 않는 담력, 크나큰 포용력과 그지없이 소박하신 인간적품모가 얼마나 깊이 있게 형상되고있는가!

《범상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그것이 누구인가고 집요하게 파고들것이다.》

《그의 인격에 먼저 감화되어》, 《그의 사상으로 점차 무장되면서》 등은 모두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감동적인 표현들이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의의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이국의 하늘밑에서 10여년간 살면서 빼앗긴 조국을 찾아줄 진정한 령도자를 찾지 못해 모대기던 류현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다름아닌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심을 통감하게 된

한없는 기쁨과 끝없는 흠모의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한없는 긍지와 기쁨, 불타는 흠모의 감정은 류현민이 작성한 보고의 구절들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부터 은유의 수법으로 씌어진 상징적인 주장토도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청년장군!

청춘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생동하고 강의한 령도자!

그의 모습과 이 봄은 하나의 조화로 어울려져 나로 하여금 심각한 서정에 자꾸 잠겨들게 한다. 나에게서는 근거지의 이 봄이 자연의 봄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새 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으로 느껴진다. 지금 흐려진 나의 눈앞에는 웬일인지 첫상봉때에 본 발갛이를 하던 그의 모습, 그때의 모든 전경이 심각한 의미를 띤 상징적인 화폭으로 안겨온다. 그가 팔뚝에 힘을 주어 땅에 깊이 박은 보습... 그 번쩍이는 보습날우로 물결치며 뒤번져지던 검은 흠발... 아, **김일성**동지는 전인미답의 혁명의 황무지를 새 사상의 보습으로 갈아엎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류현민의 심중에서 우리나온 이 심장의 웨침은 조국에 대한 향수로 아픈 마음 달랠길 없어하던 그의 가슴에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은 신념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와 신뢰의 정 의 직접적표현이다.

특히 근거지의 봄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새 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으로 느끼고 《전인미답의 혁명의 황무지를 새 사상의 보습으로 갈아엎어나가는것》이라고 불멸의 주체 사상이 구현되고있는 근거지의 현실을 자연현상에 비유한 상징적인 문장흐름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얼마나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으며 청년장군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칭송의 감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가!

《혁명의 화창한 봄》, 《전인미답의 혁명의 황무지》 등의 표현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감정뿐아니라 기존명제와 공식에 물젖었던 류현민의 사상정신세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음을 드러낸 뜻이 깊은 표현들이다.

이처럼 소설은 문장과 단락, 하나의 언어표현에도 깊은 뜻이 숨배이게 함으로써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이고있다.

국제당부료에 보내는 보고문의 구절들에는 《탄복하였다.》 《완전히 공감하였다.》 《행운을 지

니였었다.》를 비롯하여 비슷한 의미의 슬어들이 문장의 끝에 련속 병렬되었다.

이것은 류현민의 세계속에 확고히 뿌리내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풍모에 끌리고 주체적인 사상에 공명하며 강철의 논리와 한없이 넓은 도량에 탄복된 류현민의 감정을 명백하고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더 절절하여만났던 시대와 인민의 역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최진동, 한영권, 김창역을 비롯한 유격대원들과 리재명, 김진세, 마종삼, 현옥심 등 근거지인민들 그리고 박수원과 반일부대의 오의성 서려장 초려장의 내면세계를 드러낸 표현들에서도 잘 드러나고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여 마지않는 인민의 감정을 뜻이 깊고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소설언어의 초점이 돌려졌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의 언어는 또한 당시 사회력사적현실과 근거지인민들의 생활과 사상정신세계가 풍만하게 안겨오도록 묘사한것으로 특징적이다.

《꿀짜기가 떠나가도록 종을 울리며 촌민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다음부터 마을의 공기는 전에없이 뒤숭숭해졌다. 밤이 깊어가도 집집의 방문들에는 불빛이 환하고 불안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이것은 창설초기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거지에 조성되었던 불안한 분위기를 묘사한 구절이다.

소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 비로소 것처럼 소원하던 유격대에 입대하게 된 농민 청년 김창역의 환희로운 감정세계를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창역이는 눈을 슴벅이며 어느 문으로 해서 집안으로 뛰어들가하고 궁리했다. 집에 있는 세계의 문중에서 정지문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것같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문이었다. 지난날 갖가지 재난과 형들이 죽었다는 소식, 기막힌 기별들이 그 문으로 날아들어왔으며 식구들의 입에 풀칠할 량식, 입을웃, 마실물, 땀나무들이 모두 그 문으로 들어왔다. 벼락처럼 내리치는 재난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기절하여 쓰러지지 않고 집안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온 어머니의 한숨이 서려서 저 문널이며 문설주가 저렇듯 시꺼멓게 그슬린것이 아닌가, 이제는 저문에 좋은 소식만 날아들고 웃음이 넘칠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빛어진 근거지의 복잡한 현실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직 장군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신념으로부터 운명도 미래도 모두 장군님께 맡기고 살아온 당대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력사적현실에 맞게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소설은 이와 같은 묘사들로 하여 당시 인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진실하게 그려낸 소설로 근거지생활의 정서가 짙게 풍기는 교양적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될수 있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는 인물들의 성격에 맞는 대사도 잘 쓰이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명대사는 풍부한 생활체험과 깊은 사색에 기초해서만 나올수 있다.

소설에 씌여진 근거지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의 진실하고 생활적인 대사들은 시대의 본질과 인간생활의 특징을 드러낸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에 술성을 부각하는데 훌륭히 기여하고있다.

특히 소설의 대사들은 근거지인민들의 풍부한 생활체험이 잘 안반침되어있으며 그들 자신이 심장으로 파악한 생활과 투쟁의 진리가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지금 우리 사령관동지의 가까이에겐 혈육이라고는 없소. 아버님과 어머님은 갖은 고생을 다 하며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 삼촌님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생활을 하고계시고 두 동생도 고향에 계시는 조부 모님들도 소식조차 모르오. 사령관동지는 우리를 혈육이상으로 믿으며 혁명을 령도하고계시오. 이런 사령관동지인데 우리가 혈육이되어 잘 받들고 잘 모셔야 하지 않겠소? 나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랑을 약속한 이상 그 감정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서로 리해하면서 오직 사령관동지만을 받들고 혁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소. 그래서 어찌다가 만나도 다 리해하겠거니 하고 싫은 소리랑 했소. 그게 리해 안되고 싫으면 물러가도 좋소.》

최진동이 약혼녀인 림성실에게 하는 이 대사가 그토록 사람들의 크나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마디마디에 수령의 참된 전사의 자세가 웅심깊게 표현되고있기때문이며 어버이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체현되어있기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의 대사의 위력은 그것이 작품의 해당상황과 계기에 맞아야 하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 한계를 벗어나 그 시대와 그 당시 인민들의 정신세계와 생활까지도 리해하고 그려볼수 있게 하는데서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보여주는것은 예술적형상의 본성이 아닐뿐아니라 예술적인

어의 본성도 아니다.

소설에는 소박하나 뜻이 깊은 리재명의 대사, 흙냄새가 풍기는 김진세, 마종삼로인의 대사, 박수원, 한설봉의 성격적인 대사를 비롯하여 개성적인 대사를 잘 탐구하여섬으로써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이들의 성격적특징을 잘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당시 우리 인민모두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있다.

이처럼 소설에 씌여진 대사들은 참으로 생활과 투쟁의 참뜻을 깊고 폭넓게 파악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말뒤에 말이 있고 웅심깊은 명대사들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또한 여러가지 문체적수법을 널리 써서 작품의 개성적특성을 뚜렷이 살리고있다.

《꽃샘을 하던 쌀쌀한 추위가 숙어들자 전쟁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 시꺼멓게 얼룩진 두만강연안 산밭들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솟으로 되어 시꺼멓게 서있는 나무숲들과 재무지들밑에서는 파릇파릇한 싹들이 창공을 향하여 머리를 쳐들었다. 골짜기들에서 달려내려오는 봄물의 기운찬 흐름소리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대기를 뒤흔들고 양지바른 산기슭과 벼랑턱이며 산봉우리들의 밑에는 렬사들의 피흔적인듯 진달래가 점점이 수놓아졌다.》

이 묘사가 이렇듯 가슴을 부풀어오르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것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미학적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생동한 고유어들을 옮겨 살려쓴데 있다.

《꽃샘을 하던 쌀쌀한 추위가 숙어들자》, 《산밭들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솟으로 되어 시꺼멓게 서있는》, 《봄물의 기운찬 흐름소리》, 《양지바른 산기슭과 벼랑턱이며 산봉우리들의 밑에는 렬사들의 피흔적인듯 진달래가 점점이 수놓아졌다.》 등의 표현들에는 사령관동지의 사상의지대로 싸워 근거지를 혁명의 책원지로 튼튼히 꾸린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궁지와 진정이 넘쳐나고있으며 심장으로 체험한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 민주주의적시책으로 가꾸어진 근거지의 봄은 미구에 도래될 광복된 조선의 봄,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봄으로 활짝 피리라는 우리 인민의 믿음이 그대로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소설은 형상적요구에 맞게 의인법을 적절하게 썼다.

의인법은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적특질을 밝히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는 효과적인 표현수법의 하나이다.

《죽은 고목처럼 움츠러들어 말이 없다.》 《깊은 잠에 든듯하다.》 《고요히 흐느적이다.》 등은 자연현상의 움직임을 인격화하여 표현의 생동성과 정서성을 보장하면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

리세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비유가 다양하게 쓰이고있는 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세계, 그들의 감정과 생김새의 특징뿐아니라 자연환경을 묘사하는데도 적중하게 쓰이고있다.

《대오가 기복이 심하지 않은 구릉지대의 밋밋한 울리반이를 몇개 넘으니 라자구시가가 한눈에 안겨왔다. 우중충한 산들을 병풍삼아 그앞에 오בות하게 펼쳐진 도시였다. 해빛에 창문들이 운모조각처럼 반짝거리는 관청건물들과 뼈죽하게 솟은 제분소의 지붕 그리고 제재소건물들을 제외하고는 땅에 들어붙은듯한 단층집들이 뻥뻥이 들어앉은 시가는 대지의 빛갈과 어울려 그 분각이 뚜렷하지 않고 어둑하게 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협을 무릅쓰시고 반일공동전선실현을 위하여 들어서신 라자구시내

에 대한 묘사이다. 이 생동한 묘사에서는 《우중충한 산들을 병풍삼아》, 《운모조각처럼》, 《땅 밑에 붙은듯》, 《어둑하게》 등 비유적표현을 적절하게 씌으로써 력사의 먼지를 고스란히 들쓰고있는 고풍의 도시-라자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작품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적수법을 써서 언어형상에서의 모범을 창조하였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그것이 담고있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그리고 개성적인 언어형상의 빛나는 모범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의 정, 끝없는 충성의 열정을 심어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 가사

# 탄부의 인사

리안희

탄광마을 소문난 청년갱 찾아  
새 일터로 처음오는 운전공처녀  
설레이는 마음안고 달려왔건만  
탄부들문 대피신호 급히 울렸네

아 발파소리 우렁차게 높이 울리며  
이게 바로 탄부의 인사라나요

기름진 탄발이 깊어지던 날  
친근해진 그 총각이 싱글벙글  
처녀가 실어내는 검은금에는  
채탄공의 기쁨이 어려있대요

지상토론

아 석탄더미 전차가득 실어도 주며  
이게 바로 탄부의 인사라나요

분기계획 넘쳐끝낸 막장앞에서  
축하의 환영곡도 즐거운 저녁  
꽃다발 안겨주는 그 처녀에게  
공을 세운 채탄공은 속삭이었네

아 미더운 그 총각은 밝게 웃으며  
이게 바로 탄부의 인사라나요.  
(평양시 동대원구역 출판물보급소 보급원)

## 형상수준과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

박용학

현실은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소설, 사람들이 참된 삶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되는 그러한 무게있는 소설을 요구한다.

오늘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혁명은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용용히 사뭇치며 흐르는 대하의 격류와도 같이 전진하는 시대와 이 시대의 복판에서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질풍같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요구는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개척과 관련된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준 그러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소설을 요구하며 하나의 생동하고 뜻깊은 세부묘사를 통하여 백을 헤아려보고 지울수 없는 인상과 감명을 주는 그러한 세부묘사가 있는 소설들을 절실히 요구한다.

하나의 자그마한 세부에서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느낄수가 있고 해당시대 인간들의 자주적요구와 지향, 생활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는 생동하고

뜻이 깊고 특색있는 세부묘사가 책의 갈피갈피마다에 있는 소설이라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길동무가 될수 있고 사상혁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상혁명의 힘있는 수단이며 무기이다.

소설에서의 세부묘사는 예술적형상의 질을 높이고 심오한 사상을 예술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짙은 정서로써 감수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세부묘사를 떠나서 소설의 형상적수준의 제고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으며 심오한 사상의 진실한 천명을 기대할수 없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하나의 티가 옥의 가치를 떨어구는것처럼 잘 형상하지 못한 세부하나가 작품 전체를 망칠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면서 창작가들은 자그마한 세부도 흘시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작가가 인간을 알고 생활에 정통하는것이다.

소설가들이 창작실천에서 인간을 알고 생활에 정통한다는것은 작품에 묘사하는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작중인물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지적수준, 심리세계와 감정세계, 관습과 기질 그리고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꿰들고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하며 생활이 작가의 몸에 폭 배인데로부터 작품에 그리는 생활을 자유자재로 묘사할수 있도록 파악하고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창작의 주인은 소설가자신이다.

창작의 직접적담당자인 작가자신이 작중인물들과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있고 구체적으로 알고있는가에 의하여 뜻깊고 생동한 세부묘사가 주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진정으로 인간을 알고 생활을 파악하자! 이것이 묘사를 본성적요구로 하는 소설문학에서 진실한 세부묘사를 할수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작가가 그리는 작품의 주인공과 인물들에 대하여 내면세계의 구석구석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생활을 정통하고있을 때 사람들의 뇌리에 항시 잊혀지지 않는 진실하고도 감명깊은 세부묘사가 얻어지게 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이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특성으로 하는 인간은 결코 추상적인 존재인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존재이며 현실적존재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간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 그리고 감정세계와 심리세계, 관습과 기질에서 언제나 구체적존재이며 개성적인 존재이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을 꿰들고있는 인간정신의 기사가 되여야 하며 인간심리의 전문가가 되여야 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조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있어야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할수 있는것과 같이 작가, 소설가도 자기 작품에 묘사되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하여 개성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있어야 하며 작품에서 인간들을 자유자재로, 임의로 다룰줄 알아야 한다.

작가는 자기가 묘사하는 주인공이 격동적인 사변앞에 섰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봄향기 그윽하게 풍기는 들판에 섰을 때에는 자연을 어떻게 감수하고 자기 심정을 표현하며 무엇인가 깊은 사색에 잠기었을 때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기를 즐기며 웃을 때에는 소리는 어떻게 내어 웃고 입언저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 자기가 그리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사상에서부터 미세한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파악하고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작가는 인간을 전모에서 파악하고 정통하는 인간정신의 기사, 인간심리의 전문가로 되여야 하는것과 함께 인간의 내면세계를 꿰들어볼줄 아는 예리한 작가적안광, 투시력을 가져야 하는것이다.

반짝이는 세부묘사는 어디까지나 창작가가 인간을 알고 생활에 깊이 침투했을 때라야만 생긴다.

우리가 알고있는 명작들은 이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문학이 인간학인이상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인간을 모르고 생활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인간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며 인상깊은 세부묘사를 할수 있겠는가.

오직 작가가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고 그 생활을 꿰들고있어야 각이한 환경과 정황에서 나타나는 해당인물의 사상감정의 다양한 발현과 표정, 행동선들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성격발전과 생활의 논리에 맞게 진실하게 그려나갈수가 있으며 그 인물의 고유한 성격적특징과 사상주제를 밝히는데 적극 이바지되는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할수가 있는것이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의 본질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다만 고스란히 방불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세부묘사가 아니라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껴있듯이 그 세부를 통하여 시대를 엿볼수 있고 생활발전의 본질과 합법칙성, 성격의 특징을 생동하게 파악하게 하는 세부묘사이며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면서도 매 생활현상의 묘사의 뒤에는 작가의 예리한 분석과 평가가 주어져있는 그러한 세부묘사라는데 있다.

이러한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야말로 인간과 그 생활을 깊이 파악하고있는 소설가만이 할수 있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세부묘사인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의 세부묘사는 여기에서 귀중한 경험을 준다.

장편소설들인 《준엄한 전구》와 《1932년》, 《백두산기슭》 만이라도 상기하여보자. 이 소설들에는 참으로 반짝이는 세부묘사가 갈피갈피마다에 주어져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작품들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장편소설 《1932년》에서 력사의 집 소사하집장면에서의 일련의 세부묘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날로 악화되어가는 자신의 병세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나가시는 그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신 어머니의 손에 대한 인상깊은 세부묘사를 통하여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어머님께서는 배개를 밀어주시였다.

어머님께 자꾸 걱정을 끼치실가봐 배개를 받아 취시려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눈길에 배개를 밀어주시는 어머니의 손에 미쳤던것이다.

그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어머님께서는 벌써 그 손으로 바늘을 잡으시고 한뼘한뼘 소매자락을 감치고계시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머니의 손에서 눈길을 뗄수가 없으시였다.

마디가 굵고 거칠어지고 살이 빠진 어머니의 손-어린시절에 그이께서 보신 어머니의 손은 그렇지 않으셨다.

대동강가에 빨래하는데 따라가시면 돌아오실 때는 의례히 어머님께서 세수를 시켜주시였다. 그때의 손은 부드럽고 희였으며 물을 움켜도 새지 않으시던 그런 손이었다.

중강을 지나 무송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까지 손가락사이가 벌어지지 않는으셨다. 화전으로 떠나던 때 집을 들어주시던 어머니의 손은 그래도

지금처럼 구불고 거칠어지지는 않았었다.

번연히 아는것이지만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어머니의 손이 왜 이렇게까지 되였는가 하는 강한 충격이 머리를 들었다. 완악한 세상의 가시덤불속에서 그 손으로 삶의 길, 싸움의 길을 헤쳐나가셔야 했던만큼 그럴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가슴아픈것이였다. 저 손으로 한평생 땅을 파시고 돌을 주어내시였으며 풀을 뜯으시였다. 빨래방망이가 수없이 닳아 끊어지고 바늘끝이 무디어졌다. 시장하실 때는 저 손으로 치마끈을 졸라매시고 참으시였다.》

소설은 마디가 굵고 거칠어지고 살이 빠진 손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병에 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조국의 자유와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 다 바치고 계시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어머니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어머니의 병세를 두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가슴뜨겁게 펼쳐보여준다.

잘된 세부묘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는 이처럼 작품에서 거대한 사상미학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다.잘된 하나의 세부묘사, 그것은 진정 수백수천의 작가의 말을 대신하고있으며 심오한 사상을 풍부한 정서로써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인식시켜주고 체득시켜주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잘된 하나의 세부묘사, 그것은 참으로 작가가 제기한 심오한 사상을 추상화된 론리나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천명하게 함으로써 문학작품을 강연제강이나 사회과학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술작품으로 되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며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강한 미학정서적감흥과 사색을 불러일으켜야 할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게 하는 담보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장편소설 《1932년》의 창작가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업적에 끝없이 감동된데로부터 예술적환상을 펼치였으며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한 정력적인 연구와 탐구의 결과에 것처럼 감동적인 세부묘사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쉬이 알수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의 감동적인 세부묘사도 역시 창작가들이 자기가 취급하고있는 묘사대상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어 완전히 정통하여 자기것으로 만들며, 생활을 환히 꿰고있어야 생활이 풍기는 진실한 세부묘사를 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준다.

이 소설에서 《민생단》으로 몰린 리경준일행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작 만나뵙고보니 경애하는 수령관동지께서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고계시는 몸

이심을 새삼스레 깨달은데로부터 자기들의 마음을 피롭히던 《민생단》 문제는 보잘것없는것이며 그 기나긴 밤과 밤을 이은 무서운 몸부림과 모대김도 모두 혁명의 근본문제와는 멀리 떨어진 사사로운 일이었던것 같아 일종의 부끄러움까지 느끼었다는 그들의 심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얼마나 진실한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 고생을 하였습니다.》라고 과분한 말씀을 하시었을 때의 방안의 정경을 《피창에 바른 종이가 펠럭거리고 나무그림자들이 춤을 추었다. 새벽녘이 되면서 바람이 일고 나무가 몹시 설레었으나 방안에는 태풍이 지난 뒤같은 정적이 흐르고있었다.》라고 묘사한것이라든가 울렁이는 감동과 충격을 참을길없어 그만 녀성들속에서 먼저 《흑...》하는 흐느낌소리가 울린것에 대한 묘사도 또한 진실하다. 그리고 그 전날과 다름없이 《어머니》라는 친근한 말씀으로 자기를 불러주신 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감격하여 굵다란 눈물방울을 흘리는 속에서도 사령관동지의 웃자락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또렷해지는 흙탕물자리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윤칠녀의 형상에 대한 세부묘사, 《장기령의 구리빛목에서 또다시 손가락같은것이 꿈틀거렸다》라고 한 특징적인 세부묘사 등은 것처럼 뽀글고있던 경애하는 사령관동지

를 뵈는 순간 자기들의 일로 그이께 심뇌를 끼쳐드린 죄송함과 자기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신임과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금치못해하는 그들의 충격적인 심정을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고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이며 묘사는 구체적인 세부묘사를 통하여 실현된다.

소설가들이 소설의 특성을 바로 인식하고 묘사정신을 높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착실하게 하는 여기에 소설의 형상성을 높이는 길이 있으며 소설문학의 전투적역할을 제고하는 담보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소설가들은 미담이나 충격적인 사건과 사실에 매혹을 느끼던 나머지 인간과 생활탐구를 놓쳐버리는것과 같은 폐단을 철저히 없애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참된 전형으로 될수있는 인간의 탐구에 열정과 사색을 쏟아부어야 하며 일단 탐구된 인간에 대하여서는 그의 사상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하며 생활에 정통하여야 한다. 여기에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착실히 할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 확고한 담보가 있다.